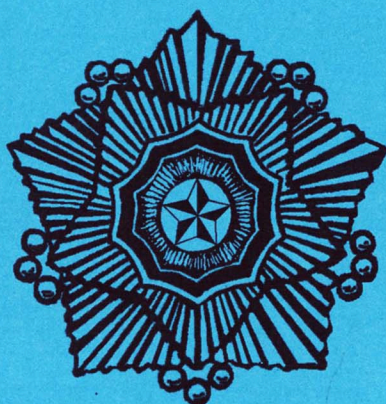


조선문학

특간호
800호



6

주체103(201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6호

(루계 제800호)

특 간 호

차 례

| | |
|--------------------------------|-------------|
| 그리움의 세계(시) | 차 영 도(3) |
| 장군님 오신 날은(시) | 함 영 근(3) |
|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시(시) | 마리아 모라이스(4) |
| 영원히 빛나는 6월 19일이여(시) | 백 하(5) |
| 수령님사랑 장군님사랑 꽃피워주시네(가사) | 권 오 준(5) |
| 단편소설 넘 원 | 탁 숙 본(6) |
| 명언해설 | (19)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16) |
| { 6월의 푸른 계절에 | 황 명 성(17) |
| 시 원수님과 인민(가사) | 김 철 진(26) |
| { 그이의 사색 | 곽 명 철(19) |
| 주체문학의 대강 | (21) |
| 장군님의 미 학관(혁명일화) | (18) |
| { 조국 | 정 서 촌(18) |
| { 이것은 잊어보지 못할 이야기 | 박 웅 전(16) |
| 시 전의 | 김 일 규(21) |
| { 람베에 대한 람시(답시) | 김 경 기(20) |
| { 혁명의 환호속에 외 1편 | 변 흥 영(27) |
| 국방공업의 업적에 바쳐진 서사시적화폭(평론) | 안 희 열(22) |
| 심장의 고백이 들리는 절절한 시형상(단평) | 한 송 이(29) |
| 우리의 최고사령관(전시가요유래) | (26) |
| 산에 대한 의미(수필) | 백 일 홍(28) |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이 영광스러운 혁사
적사명을 수행하는데서 당의 붉은 정수분자들인 사상
일군들은 꺼지지 않는 해불이 되고 우렁찬 나팔이 되
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조선문학》잡지의 800호
사상전의 포문을 열고 시대적명작들을

| | |
|------------------------|-------------------|
| 더 많이 창작하자(론설) | 고 철 훈(31) |
| 《조선문학》잡지에 남긴 추억의 목소리 | 김병훈, 오영재, 최학수(34) |
| ◦ 깊은 산 무성한 숲 | 정 기 종(35) |
| 수 기 ◦ 인연, 사랑, 《조선문학》잡지 | 백 명 길(38) |
| ◦ 나의 벗 | 리 라 순(39) |

단편
소설

| | |
|-----------|-----------|
| 우리 사람들 | 리 룡 운(42) |
| 영원할 나의 수업 | 서 청 송(60) |
| 한모습 | 엄 성 영(52) |
| 젊어지는 모습 | 공 천 영(58) |

◇ 시 ◇

| | |
|-----------------------|----------------------------|
| 권정도앞에서 | 전 수 철(59) |
| 사회주의를 위하여 | 조 광 철(51) |
| 페철지구의 아침 | 주 광 남(54) |
| 물길굴에 새긴 형춘의 일기(시초) | 기 경 호(55) |
| 외월은 흘러만 가는가 | 김 정 삼(73) |
| 통일을 부르는 목소리(시 묶음) | 동기춘, 김영일, 김형준, 박철, 서일순(74) |
| 황해금강 장수산(산수시초) | 한 옥 란(76) |
| 외상을 적당하여 외 1편(고전시) | 류 린 석(78) |
| 날개 | 김상훈 역(78) |
| 깊은 뿌리, 알찬 열매(단평) | 유리 워로노브(이전 쏘련) 박명순 역(78) |
| 아편전쟁시기 중국인민의 반침략에국투쟁을 | 정 철 호(71) |
| 반영환 시가문학(자료) | 리 한 철(79) |
| 성구, 속담 | (25) 상식(30), (77) |
| 작가일화묶음 | (57) |

그리움의 세계

차 영 도

그리움!
우리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가 있다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아침에
당중앙창가를 우러러 읊터난 이 그리움은
장장 수십년세월을 거쳐
사품쳐흐르는 대하마냥
거대한 그리움의 세계를 이루었나니

어찌하여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장군님 만나뵙기를 그토록 소원하며
한마음 오직 그이만을 그리며 사는것인가

기쁠 때도 그리워 찾고 힘들 때도 찾고...
아, 생을 마감둔 그 운명의 순간에조차
어머니의 품을 더듬어찾듯
목메여 불러찾는 장군님!

그렇다! 이 그리움으로 우리는
회천의 산악같은 언저도 단숨에 쌓아올렸고
기적같은 사과꽃바다도 이 땅에 펼쳤거니

정녕 이 그리움이 무슨 정이길래
이 나라 아들딸들

가슴타는 그리움 그리도 소중히 안고
한목숨 바치기도 서슴지 않더냐

아, 한평생 인민밖에 모르시는 우리 장군님!
오로지 인민위해 이날까지 맞아오신 찬눈비가
너무도 우리 가슴 허비고
장군님 겪어오신 일만고생이 뼈속에 저려들어
그리움마저 눈물에 젖는 인민의 마음이어!

말해보자 이런 불같은 정과 사랑으로
일심단결의 철갑을 두른 우리의 심장에서
누가 감히 이 그리움의 산악을 허물수 있더냐
이것으로 하여 온갖 세상재부가 부럽지 않고
천만대적이 두렵지 않은 내 나라 내 조국아!

오,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이 나라 천만군민의
불같은 이 그리움!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고
가장 값진 재부중의 재부인
이 절대불변의 위대한 그리움의 세계!
이것만으로도 우리 조선은
무적필승의 김정일강성대국이어라!

주체100(2011). 7. 5.

장군님 오신 날은

함 영 근

그날은
신록이 질어가는 여름
례사로운 보통날이었다
20대의 청년장군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날은

너무도 소박한 모습으로
소문없이 들어서시는 그이를 맞아
정원의 나무잎새들에선 이슬이 반짝이고
새들은 이 나무 저 나무 옮겨앉으며

청신한 이슬방울을 날려 무지개를 펼쳐드린 날

눈부시여라
온 누리를 밝히시는
그이는 조선의 해님
하늘이 낸 위인이시여
6월의 태양도 축복의 빛발
그이께 비쳐드린 6월의 아침

그날부터 그날부터
장군님의 걸음은 더 바쁘시기만 하였다

수령님 바라심이라면
힘한 길 먼길 주저하셨던가
수령님 받드시는 그 길에
크고 작은 일 가리시였던가

수령님의 기쁨은
장군님 자신의 제일기쁨
수령님의 념원은
장군님 자신의 제일념원
그 기쁨 그 념원을 위해
낮도 밤도 휴식일 명절날도 없으시였거니

수령님을 받드시는 장군님의 충정을 두시고
수령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당중앙위원회 김정일동지는
나의 사상을 백프로 계승하고
나의 혁명업적을 백프로 교수발전시키고있습
니다

수령님 걸으실 밤길 다 걸으시고
수령님 걸으실 길 새벽이슬 다 맞으셨기에
인민은 그이를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초목들도 그이 가시는 길에

꽃을 피워 향기풍기지 않았더나

당중앙위원회 집무실
뜨락에서부터 시작된 그 길은
자신을 다 바치시는 애국헌신의 길
그 길에 새기신 기쁨과 고난은
선군조선의 력사가 되고
선군조선의 혁명실록이 되어
조국청사에 찬란히 빛을 뿌리고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창가에
꺼질줄 모르는 불빛은
선군태양의 빛발이였고
우리 당을 승리에로 이끄는 향도의 빛발이였고
세기를 밝히는 혁명의 화불이었나니

오, 신록이 질어가는
반세기전 6월 19일은
우리 당이 다시한번
비약의 나래를 펼친 날이었다
백두산대국의 만년초석이 더 튼튼히 다져진 날
이었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시

마리아 모라이스

김정일동지!
당신은
지칠줄 모르는 열혈의 투사이시였어라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한없이 경모하고 높이
모신분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며
자신의 모든것 다 바치시였어라

김정일동지!
당신은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계승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조선의 탁월한 령도자이시였어라

김정일동지!
당신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고귀한 귀감
사랑과 열정, 지혜와 헌신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주체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어라

오늘 세계는
또 한분의 위인을 맞이했어라
그이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
계승해가시는분

그이는
불변의 기치 위대한 선군으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라
자주와 평화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간고하고도 장엄한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시여라

(필자는 브라질시인임)

영원히 빛나는 6월 19일이여

백 하

내 몰랐노라
가슴설레이는 향도의 전설로
끝없는 매혹속에 온넋을 불태우면서도
못 잊을 력사의 그날
그 얼마나 찬란한 빛발이
시대의 련명으로 솟아올랐던지

내 몰랐노라
너무도 조용히 소문없이
장군님 당중앙위원회에
첫자욱을 새기신 6월 19일이
온 행성우에 눈부신 미래를 열어제끼며
그 얼마나 위대한 력사의 닳을 올렸던지

내 처음 한가슴에
김일성주의빛발을 받아안고
격동으로 들먹이는 대지를 내달으며
세계를 향해 웨치던 그 환희여
장군님 목숨같이 안겨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도에
내 온 심장을 바쳐 락원을 꽃피우며
넘고넘던 행복의 년대들이여

말하라 대동란의 90년대
세계사회주의체제가 무너져내렸을 때
그 누가 꺼져가던 행성의 운명을 구원했거나
말하라, 오성산의 칼벼랑이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이
팡란하는 바다같이 밀려들었을 때
결사의 사선길에 나서시여

제국주의포위환을 산산 동강내신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

세계는 보았다 력사의 그날에
90년대의 흐린 하늘에
누리를 밝히며 더욱 찬란히 빛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
난공불락의 보루 조선

온 행성이 놀랐더라
일심단결 사랑의 화원에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졌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추켜들었을 때
그 얼마나 열렬한 동경과 환호가
대륙마다 뜨거이 굽이쳤던가

정녕 이 땅우에
6월 19일이 있어
강성국가의 락원이 꽃피고
아프리카의 끝없는 사막에도
남아메리카 수도와 수도들에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들이
끝없이 태어나 행복을 속삭이며
온 행성에 자주의 꽃이 만발하나니

노래하라
기나긴 반세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찬란히 빛나는 6월 19일이여

가 사

수령님사랑 장군님사랑 꽃피워주시네

권 오 준

환하게 웃으실 때면 수령님 뵈옵는듯
다심하신 음성 들으면 장군님 오신듯
아 한없이 친근하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수령님사랑 장군님사랑 꽃피워주시네

아이들속에 계실 땐 그 영상 밝은 해님
병사들속에 계실 땐 그 미소 태양의 빛발

아 한없이 친근하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수령님사랑 장군님사랑 꽃피워주시네

수령님과 장군님 그 모습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주시는 그이는 인민의 태양
아 한없이 친근하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수령님사랑 장군님사랑 꽃피워주시네



락 속 본

1

모란봉에 봄빛이 질어가던 4월의 어느날이었다. 여러대의 승용차가 살구꽃이 만발한 칠성문거리를 지나 북쪽으로 달려가고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명산정밀기계공장으로 가시는 길이었다.

김정일동지를 모신 승용차에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고있는 리송이 타고있었다.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길을 바래드리는듯 길가에 하얗게 내려앉았던 살구꽃들이 흰꽃구름을 일으키며 승용차를 따라서고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명산정밀기계공장으로 들어서신것은 한낮이 다 되었을 때였다.

공장일꾼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제품진렬실에 들리시였다.

전시된 제품들을 세심히 보아주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진렬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검색으로 미끈하게 도장을 한 설비를 더욱더 바라보고계시다가 《이 설비가 108호로구만.》하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설비결정으로 바투 다가가시여 정면으로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고나서 설비를 친히 쓸어보기까지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몹시 흥분된 표정이시였다.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의 억양과 존안에는 기쁘실 때에만 표현되는 특유한 빛이 어리어있었다. 그것은 그이를 오래동안 몸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는 파정에 리송이 체득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각

이였다.

리송이 한결음 다가서며 조용히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그렇습니다. 이 공장동무들이 장군님께서 주신 기술문헌에 기초하여 완성한 108호 설비입니다.》

《이곳 동무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령님께서 념원하시던 설비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며 설비를 동작시켜 제품을 가공해보라고 이르시였다.

한 기술자가 조작단추를 누르자 설비에 붙어있는 여러 표식판들에 빨간 신호불이 켜지면서 진동음이 고르롭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설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랭각수가 일으키는 뽀얀 안개발속에서 미세하게 반짝이는 불꽃방전을 유심히 들여다보시였다.

머리칼보다 더 가는 동선에 임플스가 통하면서 소재를 가공해나가고있었다.

공장당비서인 박영식이 김정일동지께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 소재를 가공하고있는것이 조선지도입니다.》

《조선지도란 말이요? 조선지도, 우리 나라 서해안은 굴곡이 대단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설비가 그 복잡한 서해안굴곡면을 따라 내려가며 소재를 가공하고있다 그 말이지?》

《그렇습니다, 장군님》

소재에서는 불꽃이 쉬임없이 뽀얀 안개장막을 헤

치며 퍼져나가고있었다. 조선지도의 서북쪽 압록강 하류로부터 시작하여 평안북도의 철산반도와 그 주변의 숲한 섬들을 에돌아 크고작은 만들을 살살이 누빈 불꽃은 어느새 공화국북반부지역을 지나 경기도, 충청남도를 거쳐 전라북도를 향해 거침없이 내려가고있었다.

전라북도 군산지역으로 불꽃이 움직이는것을 보는 순간 리송의 머리속에는 언제인가 남조선에 대하여 김정일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것이였다.

…전라도 군산은 일제가 제일먼저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항구도시들중의 하나이다.

왜 그런가? 군산은 호남벌을 끼고있기때문이다. 호남벌은 남북의 길이가 80키로메터 달하고 동서의 길이는 약 50키로메터에 달한다. 이런 지리학 적특성으로 하여 이 일대는 예로부터 벼생산기지로 소문이 났다.

일제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군산에 항을 개설하고 호남벌일대에서 나는 쌀을 모조리 실어갔다. 땅이 기름지고 경치가 아름다운 이 고장은 일제의 군화밀에 짓밟히고 그 좋은 쌀도 배로 모조리 략탈당했다. 국력이 약했고 과학기술이 뒤떨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노동당시대에 반드시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따라앞서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된다.…”

리송의 속마음을 헤아리신듯 김정일동지께서는 걱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오늘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 공장에서 108호 설비를 만들어낸것은 큰 성과입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이름으로 동무들에게 감사를 줍니다.》

김정일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공장일꾼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장군님을 우러러 뜨거운 눈물을 쉬임없이 흘리기만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으로 이 108호설비를 많이 만들어 공장을 현대화하고 국제시장에도 진출할데 대한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명산정밀기계공장을 다녀온 그날 리송은 밤깊도록 잠들수 없었다.

머리속에는 108호에 대한 생각이 가득차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것처럼 높이 평가해주신 108호설비, 그 설비를 제작완성한 기술자들과 일꾼들에 대한 그이의 높은 평가…

그이께서는 이 기계를 만든것은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특히 공장당비서가 정이 들고 애착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시였다.

정이 들고 애착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는 한때 어떻게 생각했던가.

리송은 얼굴이 뿔뿔 달아오름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추억은 먼 그날에도 거슬러올라갔다.

108호설비가 명산정밀기계공장에 맡겨지게 된것은 퍼그나 오래전의 일이었다.

당시 우리 나라는 민족최대의 대국상을 당한 때라 사람들도 산천도 모두 피눈물에 잠겨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리송을 집무실로 부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상우에 놓여있는 기술문헌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부부장동무, 이것이 108호기술문헌입니다.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것인데 끝내 보시지 못하고…》

김정일동지의 음성은 갑자기 갈리시였다. 리송은 그만 울컥하고 눈물덩어리가 솟아오르는것을 참아낼수가 없었다. 더 말씀을 잊지 못하고 한동안 기술문헌을 내려다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해서야 뒤를 이으시였다.

《지금은 첨단과학기술인 CNC를 하는것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부부장동무가 이 기술문헌을 잘 연구해보고 꼭 완성하여야 하겠습니까.》

순간 리송은 가슴이 뭉클해왔다. 기술문헌을 소중히 받아안으려니 자꾸만 눈물이 나오고 목이 메여왔다.

수령님의 유훈으로 된 기술문헌이였다.

리송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에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름을 느끼며 힘있게 대답드리였다.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생각깊으신 눈길로 리송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시였다.

《이 설비제작은 어디에 맡기는것이 좋겠습니까?》

리송은 흥분을 누잠하며 잠시 생각을 더듬어보았다.

피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명산정밀기계공장 당비서 박영식이였다.

공장당비서로 임명받고 부임인사를 하려 부서에 들렀던 박영식이 두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하나는 기술력량을 보충해달라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고급한 설비를 한두대 해결해달라는것이였다. 좌표보링반과 최정밀공작기계였다. 그러면서 설비해결이 당장 곤란하면 기술력량을 동원하여 공장에서 자체로 만들어보겠다는것이였다.

리송은 박영식에 대한 파악이 이미 있었다.

그는 도당위원회에서 사업할 때 어느 한 도자기 공장 기술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여러해동안 생산이 저조하던 공장을 반년사이에 도적으로 생산이 손꼽히는 공장으로 추켜세우고 전국적인 보여주기 사업까지 요란하게 하여 소문을 낸 일군이였다.

어느날 합숙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리송이 박영식에게 물었다. 당시 박영식은 도당 과장이였고 리송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고있었다.

《과장동문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해양공학부 통신을 나왔습니다.》

박영식의 대답에 리송이 《그런데 도자기부문을? 그 분야는 생소했겠는데...》하고 의문을 표시하자 《물론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저야 고등교육까지 받았는데 결심하기탓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찾아 공부하니깐 길이 열리더라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무엇이든 마음먹고 파고들면 해결할수 있다는 창조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식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장밤 계속되었다.

리송은 장군님께 그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 기술 문헌도 그와 토의해보겠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긍정해주시였다.

2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있었다.

마가울의 찬비였다.

박영식은 비내리는 창가에 서서 물끄러미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일이 이렇게 번져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였다.

박영식이 리송부부장으로부터 108호첨단설비기술 문헌을 받아가지고왔을 당시의 공장생산형편은 그리 낙관적이 못되었다.

지배인은 건강상리유로 출근 못하는 날이 많았고 나이가 많아 은퇴한 당비서의 후임으로 자신이 부임되어왔을 때에는 기사장이 공장생산과 행정사업 전반을 도맡아보고있는 형편이였다.

박영식은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힘을 넣는 동시에 108호기술문헌대로 첨단설비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술연구조를 조직하고 그 책임자로 종전에 로봇트설장으로 일하던 엄덕호를 임명하였다.

박영식은 직능에 맞게 임무를 명백히 분담하였다.

지배인은 당분간 입원 및 료양치료를 하여 병을 털어버린다.

기사장은 공장현행생산과 기술참모부서의 사업을 책임진다.

당비서는 공장당위원회위원들과의 사업 특히 기술일군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공장종업원들의 물질문화, 후방사업을 후방부지배인과 함께 책임진다.

이어 상무가 조직되고 항목에 따르는 분담이 구체화되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따라 공장은 활력에 넘쳐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박영식은 로동계급의 문화후생사업의 거점으로 될 명산은정원건설과 새로운 형식의 로동자문화주택건설 그리고 태양열온실건설에 힘을 넣는 한편 중요하게는 108호기술문헌에 기초하여 새 설비제작에 온 정력을 쏟아부었다.

공장도처에 눈이 번쩍 뜨이는 구호들이 나붙고 기발들이 나붙기였다.

방송원은 격정에 넘쳐 새 혁신으로 종업원대중을 선동했으며 때로는 박영식자신이 확성기를 들고 그들을 고무하며 혁신으로 호소하였다.

1년사이에 공장은 생산문화와 생활문화확립에서 완전히 때뎌이를 하였다. 공장정문을 새롭게 일떠세운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건물도 합칠것은 합치고 낡은 생산건물은 대담하게 고쳐지으면서 공장구내를 번듯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구내길도 곧게 펴고 피치포장을 하여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게 만들었으며 장마철이면 골짜기에서 쏟아져내리는 물때문에 애를 먹던 골개울도 이 기간에 말끔이 정리하여 큰물이 나도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공장구내를 공원과 같이 꾸려놓았다.

하지만 108호설비제작사업에서는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박영식에 있어서 큰 고민거리였다.

108호설비제작에 착수한지 퍼그나 세월이 지나갔지만 고민거리는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 무렵 공장사업에 대한 신소가 있었다. 신소는 곧 당비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얹친데 덮치는 격으로 지배인의 병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었다.

지금껏 당일군을 해오면서 박영식이 지금처럼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괴로와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후둑후둑 창문을 때리고있었다. 박영식은 몸이 오싹 줄어들며 찬기운을 느끼었다. 감기라도 걸린듯싶었다.

그의 귀전에는 며칠전에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하던 목소리가 귀아프게 들려왔다.

《당비서가 온 뒤로 내쳐 뉘이기만 하니 언제 허리퍼볼새가 있나.》

《생김새는 무던해보이는데 일욕심이 지내 많은 것 같아.》

《많은거야 좋은거지.》

《검열이 붙는대.》

《당비서가 머리아프게 되었어.》

말하는 품을 보면 일반로동자들은 아닌것 같은데 어둠이 깔린 때라 뒤모습을 보고서는 누구인지 딱히 알수 없었다.

3

명산정밀기계공장 검열자료를 보고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료에서 당비서가 독단을 부리고 인정이 없으며 로동자들의 생활문제에 관심이 적다는 점에 대하여 쓴 대목과 지배인의 건강때문에 그를 해임할데 대한 도당위원회의 의견에 당비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배인을 해임하는 경우 당비서인 자기자신이 그보다 먼저 해임되는것이 당적원칙에 부합된다고 하였다는 내용, 이번 검열사업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는 자기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정식 인정했다고 쓴 대목에 진한 밑줄을 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박영식을 다른 공장에서 당비서를 할 때부터 잘 알고계시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어느 설날에 그 공장을 찾았던 일이 떠오르시였다.

...몹시도 추운 아침이였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려고 그 공장에 나가시였다. 그런데 공장당비서는 보이지 않고 지배인만 있었다. 당비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명절날이 되면 양복차림에 넥타이까지 매고 나오곤 하던 당비서라고 한다. 오늘 아침에도 분명 그런 옷차림새를 한 박영식과 설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보통날에는 작업복차림으로 언제나 로동화를 신고다니던 그가 이날만은 까만 구두를 알른알른하게 닦아신고있었고 눈처럼 하얀 와이샤쯔에 밤색무늬줄이 간 넥타이까지 매고있었다고 한다. 어제 밤만 해도 한 로동자와 창고안품을 놓고 열을 올리며 논쟁을 한 당비서였다고 한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설날아침도 박영식은 공장에 나오자 바람으로 로동자합숙에 먼저 들렀다고 한다.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훈훈한 합숙호실에 들어

선 순간 그는 대뜸 열관리공들을 생각했다.

당비서는 그길로 집에 들어가 작업복과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보이라칸으로 달려갔다.

열관리공들을 음식을 퍼놓은 휴게실로 떠밀어보낸 후 자기가 직접 슬라크를 갈구리로 끌어내고 송풍기를 돌리였다. 그리고는 탄삽으로 연방 걸싸게 무연탄을 화구로 퍼넣기 시작했다. 로안에서는 빨간 불꽃이 썸썸듯 펄펄 솟구쳐오르면서 삼단같은 불길이가 활활 타올랐다. 로동자들이 달려나와 자기네가 하겠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음식을 들면서 좀더 쉬라고 들여보냈다. 그리고는 화구에 련속 무연탄을 퍼넣었다.

화구로는 탄이 설새없이 날아들어갔다.

한참 불을 때고나서 방안온도를 알아보기 위해 합숙으로 오던 그는 그곳에서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그는 감격과 기쁨, 죄스러움이 한데 엉킨 표정으로 《수령님, 수령님께서 오신줄은 모르구...》 하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 탄재까지 뽀얗게 오른 당비서의 모습을 보시고 수령님께서서는 모든것을 헤아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런 일을 회상하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도리를 저으시였다.

집무실의 밤은 깊어가고있었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히 집무탁주위를 거니시였다. 그의 심중은 착잡하시였다.

공장지배인의 문제도 심중하지만 당비서 박영식에 대한 자료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느껴지시였다. 당비서가 독단을 부리고 로동자들의 생활문제에 관심이 적다는것은 무심히 넘길 문제가 아니였다. 로동자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위해 건설하던 샘물수출기지를 지배인도 입원하고 없는 사이에 혼자 결심으로 폐기시켜버렸다는것이 골자였다.

...공장에서는 신덕샘물에 못지 않는 질이 좋은 샘물원천을 가지고있었다. 그 샘물에 대한 분석지표는 국제수질평가기준을 초월하여 매우 전망이 좋은 샘물수출지로 지목되어있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그 장소에 물을 수출할수 있는 기지를 꾸릴 결심으로 건설판을 벌려놓았던것이다. 물을 수출하여 쌀을 사오자는것이였다. 그런데 박영식이 공장에 온 뒤로 물수출에 대한 희망도 좌절되고말았다. 리유인즉 물원천지의 경치가 아름답기때문에 그곳에 로동자들의 야간정양소와 탁아소를 건설하자는 것이였다. 박영식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진행된 회의에서 날을 세워 말했다고 한다.

《외화를 번다면서 샘물을 함부로 팔수는 없습니

다. 일찌기 당에서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밀기계공장으로서는 108호설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옳다. 하지만 108호설비가 다 될 때까지 종업원식량은 어떻게 하는가, 쌀물과 쌀을 바꾸자는데 왜 그렇게 외딴으로만 생각하는가 하는 의견이었다.

제기된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였다.

거기에 간부사업문제 등 본인이 인정하고있는 것과 같이 모든 문제는 박영식에게 귀착되어있었다. 검열자료대로 본다면 공장은 헤어나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장이라도 공장에 나가보고 싶으시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치 않으시었다. 적들이 지금 우리 나라를 향하여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었다.

당장 최전연초소로 떠나셔야 했다.

지금쯤 최고사령부 작전조성원들이 차있는 곳에서 기다리고있을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집무탁앞으로 다가가시여 문건을 끄당겨놓고 그우에 마지크를 달리시었다.

활달한 필치로 《보류!》라고 쓰시고 그옆에 《리송》이라고 덧붙이시었다. 리송이 료해해보라는 뜻이시었다.

4

《공장검열자료가 매우 복잡하구만. 공장에 나가 여러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명산정밀기계공장에서 돌아온 리송에게 신중한 어조로 물으시었다.

동해선을 따라 북으로 달리는 열차안에서였다. 최전연초소를 시찰하시며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할 작전전술적방안들을 검토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느라 이 며칠간을 최전연일대에서 보내시고 오늘은 열차로 함북지구로 가시는 길이었다.

리송이 사업수첩을 든채로 말쑥올리었다.

《장군님, 당비서와 지배인을 비롯하여 공장부원 급이상 일꾼들은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로동자, 기술자들도 만나보고... 당비서동무는 모든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시었다.

《료해는 어떤 립장에서 하는가가 중요합니까.》

《철저히 객관적립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동무는 검열성원들이 문제시하여 제기

한 썰어놓은 팔알같은 자료인 성문화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것이겠습니까. 결과는 그 공장에서 108호설비를 만들기 힘들다는것이요...》

《장군님.》

리송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자기를 믿고 기술문헌을 맡기었는데 죄스럽기 그지없었던것이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습니다.》

《그렇다!》

민망스러운 눈길로 리송을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밀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의분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것 같아 가슴이 아프시었다.

박영식이 정말 그런 사람이겠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음!》하고 심호흡을 하시며 돌아서시여 차창가로 다가가시었다. 더욱토록 차창밖을 바라보시었다. 차창밖으로는 바다가 흘러가고있었다. 검푸른 바다, 굴실대는 밤바다... 그러나 불빛 한점 보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서인가? 아니면 기름사정으로 고기배들이 바다로 못나가기때문인가. 분명 기름사정때문일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답답해오시었다. 잠바의 목깃을 조금 헤쳐놓으시었다.

박영식이... 박영식이...

입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보시었다.

문득 박영식을 처음으로 만나보시던 일이 떠오르시었다.

공화국창건 40돐을 앞두고 평양에서는 로보트 전시회를 크게 진행한적이 있었다. 전시회를 앞둔 어느날 새벽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보트전시장을 수령님께 보여드리기에 앞서 전시회가 열릴 평양체육관으로 나오시었다. 전시해놓은 로보트들을 돌아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시장일구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곳에 설치해놓은 로보트는 좌우, 상하, 앞뒤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소재를 연방 나르고있었다. 그곳에서는 모색이 후더분하게 생긴 일꾼이 로보트를 조종하는 기술자들을 도와 일하고있었다. 알아보니 그가 공장당비서 박영식이였다. 그때가 새벽 4시였다.

하루사업이 끝나고 총화까지 마감짓고나면 보통 밤 12시가 다 되는데 그때 차를 달려 전시장으로 나와 기술자를 돕고있다는 박영식이였다. 공장에서 평양체육관전시장까지 오자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러면 잠은 언제 자는지 알수 없었다. 그리고도 일은 일대로 한다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꾼이라는 생각이 김정일동지의 심중에 깊이 새겨졌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믿고싶으시었다. 차창밖

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우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나는 동무가 철저히 3자의 립장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료해하였다는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장문제를 그렇게 보아서는 원인을 옳게 밝혀내기 힘들것입니다. 부부장동무는 검열성원이 아니라 명산정밀기계공장을 지도하는 일군이므로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기 자신이 알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김정일동지의 절절한 음성을 리송은 숨을 죽인 채 자자구구 심장에 새겨넣고있었다.

《동무도 나도 검열성원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자면 사람들의 심장속을 꿰고들어가야 합니다. 그 공장 지배인의 해임문제가 제기되어있는데 박영식은 그것을 배제하고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서는 108호설비제작문제, 간부문제 등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알수 없습니다. 돌아가서 생각을 깊이 해보시오. 여기에는 인간들의 운명문제도 깔려있습니다. 일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신소한 문제가 검열으로 이어졌다면 교훈을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 말씀을 마쳤을 땐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리송이가 나간 뒤 다시 집 무탁을 마주하고 앉으시였으나 문건을 번지시면서도 마음 한끝은 명산정밀기계공장으로 향하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판을 불러 박영식을 데려오라고 이르시였다.

박영식이 도착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복지구를 현지지도하시고 야전차를 타고 함경남도로 가시던 길에 개울가에서 점심식사를 하실 때였다.

일행은 너럭바위우에 모여앉아 쥬기밥을 한덩이씩 들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영식이 어푸러질듯 달려와 올리는 인사를 다정히 받으시며 그를 가까이 부르시였다.

《어서 여기 와앉소. 마침 한덩이가 남아있소. 같이 들지요.》

박영식은 대번에 눈굽이 뜨거워올랐다. 얼마나 바쁘시였으면 이제야 점심을… 그것도 한지에서…

《장군님, 전 오던 길에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이렇게 늦게야…》

박영식은 목이 짝 메여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금시라도 두볼로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헌헌히 웃으시였다.

《밥이란 이렇게 출출했다가 먹어야 맛이 더 나는데 법이요. 자, 어서… 들라는데. 불리워오는 길인

데 언제 맘편히 식사를 했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쥬기밥 한덩이를 굳이 박영식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무우장절임과 염한 오이를 반찬으로 넣은 너무도 소박한것이였다. 박영식은 자꾸만 눈앞이 흐려오고 목이 메여올라 두손으로 쥬기밥을 꼭 움켜쥐고는 차마 입에 가져가지 못했다. 108호설비도 아직 성공 못하는데다가 검열을 받고 부부장이 료해까지 내려왔으니 체구실을 못하는 죄스러움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장군님,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샘물병을 고뿌에 기울여 물을 따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영식동무가 잘못된것이 많은 모양이구만, 만나자부터 자기 비판을 하는걸 보니… 응?… 어쩐다? 밥먹을 때는 욕을 안한다는데…》

점심을 간단히 끝내고 인차 길을 떠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영식을 옆자리에 앉히시고 검열자료문건을 꺼내드시였다.

《그럼 이젠 〈재판〉을 좀 해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웃으시며 마지크를 꺼내드시고 조항별로 성문화된 자료에 밑줄을 그으신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108호설비제작문제와 관련되어있는 계획화사업에서의 그 무슨 위법현상문제는 이미 박영식이 내각을 통하여 비준을 받은 문제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간부사업을 무원칙하게 하고있다는 문제와 공장종업원들의 생활에 관심이 적고 공장당비서가 독단을 부리고있다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이때부터 박영식은 자꾸만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것을 삼켜가며 자초지종 말씀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영식이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리해하시였다.

박영식은 친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사람이였다. 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가 2살때 1211고지에서 포병으로 싸우다가 전사했다. 그래서 자라면서 늘 부족한것이 육친의 사랑이였고 그리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그런 그였으니 눈물을 흘릴만도 한 일이었다. 더우기 그가 108호설비를 시작할 때에는 한다는 사람보다 못한다고, 공학도 모르는 사람이 첨단설비를 만든다는것이 리해되지 않는다고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연구전과정에 그의 발목을 붙들고 시비한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이렇게 108호설비제작을 진정으로 지지하여주시고 힘을 주시니 어찌 박영식이

눈물을 쏟지 않을수 있겠는가.

김정일동지께서 박영식에게 말씀하시였다.

《박영식동무,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나는 동무가 108호설비를 하겠다고 제기했을 때 로동계급을 위하여 설날에 보이라에 가서 불을 때던 동무의 그 심장을 믿고 말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이 말씀은 박영식을 더욱 울리였다.

공장에서 신소가 제기되고 그 뒤따른 검열과정에 리해하고 받아들이기 바쁜 문제들에 대하여까지 잘못을 모두 당비서인 자신에게 있다고 허심하게 인정은 하였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뜬눈으로 새날을 맞이한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 아픈 가슴을 안고있는 박영식을 김정일동지께서 직접 불러 만나주시고 잘못을 저지른 자식의 일을 두고 안타까와하는 친부모의 심정그대로 하나하나 물어주시니 격동되는 심정을 어디다 비길데가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영식이와 마주앉기를 정말 잘했다고 거듭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박영식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꼭 소학생 아니, 유치원생처럼 솔직하고 꾸밈이 없이 깨끗하게 느껴지시여 맑은 샘물을 들여다보시듯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지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영식이가 자기에 대해 말은 다 안했지만 그와 담화를 하시는 과정에 많은것을 헤아려볼수 있으시였다.

박영식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제자리를 지키기만 하는 일꾼들이였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이 도와줄수 있는것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었다.

박영식은 사리사욕이 없었다. 그는 팔 넷에 막둥이인 아들모두를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보냈다. 공장에 우대물자가 분배되거나 사람들에게 대한 표창문제가 제기되면 최대의 공정성을 가지고 대했으며 그런 일을 통하여 당일군인 자신의 얼굴이나 인기를 높이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가지지 않았다. 로동계급집단에서 성장하여 당일군이 된 자신의 처지를 순간도 잊지 않고 생활하였다. 그런 당일군이기 에 화려한것보다 소박하고 순수한것을 좋아했고 겉멋보다 내용을 중시했으며 껍데기보다 알맹이를 중히 여길줄 알았다.

《장군님, 사실은 저보다도 설비제작을 책임진 엄덕호동무의 고생이 더 많습니다.》

그는 설비제작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찌꺼기 찌꺼기 말씀드리였다.

30번째 시험이 실패하던 날 엄덕호는 마침내 108호설비본체앞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몸부림을 쳤다.

이젠 정말 더 어찌지 못하겠구나 하는 절망의 목소리가 그의 몸부림에서 그대로 울리고있었다.

박영식은 자기도 모르게 코마루가 찡해왔다. 버릇처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아침에 점심식사용으로 닭은 통강냉이를 한줌 넣고 나왔었는데 그나마 주물직장의 어린 청년에게 다 주어버린것이다. 고난의 행군때라 먹을것도 변변치 않아 박영식은 자주 통강냉이를 주머니에 넣고다니며 끼니를 에우곤 하였다. 그나마 없어 끼니를 번지는 사람들을 보면 박영식의 《점심밥》은 그들의 호주머니에 통채로 들어가곤 했다.

박영식은 가슴이 쓰러왔다. 엄덕호에게 통강냉이 몇알이나마 쥐여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박영식은 실망해서 엄덕호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엄덕호는 어깨가 더욱 졸아들어 한줌만 해보였다. 웬간한 바람에도 날려갈것 같았다.

공장당비서가 이런 사람에게 빵 한조각 쥐여주지 못하면서 최첨단설비의 성공을 바란다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같았다.

그렇다면?...

아니다!

박영식은 피륙 뇌리를 치는 생각에 정신을 번쩍 차렸다. 자기도 모르게 아래입술을 짹 깨물며 두주먹을 부르짖였다.

《자, 이제 주저앉으면 끝장이요. 일어서야 하오.》

어깨를 불안아 일으켜세웠다. 그 말은 엄덕호에게 한 말이기 전에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사실 박영식도 엄덕호 못지 않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한점에 이르고있었다. 박영식의 가정생활 형편은 이 시기 사실상 남들보다 더 어려웠다. 박영식자체가 절대로 특전을 바라지 않은데다가 연약한 안해가 끼니거리로 무엇을 좀 구해오면 또 그대로 혼자만 먹을수 없다며 로동자들에게 들고나가기 했던것이다.

《힘을 냅시다, 힘을... 우린 절대로 주저앉을수 없는 사람들이요.》

박영식은 젊은 시절 삼복철의 무더운 더위속에서 선채안에 들어가 장시간 용접불꽃을 날리며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2만톤급배무이를 성공시키던 일을 회상하며 엄덕호네를 고무했다....

《동무는 그런데도 샘물수출기지건설을 반대했구만. 로동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당비서가 말이요?》

그의 말을 들으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신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박영식은 고개를 숙이고 떠들거렸다.

《저는 차마… 자원을 팔아… 식량을 산다는게… 물도 우리의 자원인데…》

《그래서 108호설비를 만들어판다는거겠지… 담보는 뭐요, 108호를 성공시킬 때까지… 노동자들은 기다려야 하는가?》

《죽어나사나 우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저앉을수가 없었습니다. 식량은… 식량은… 아직…》

박영식은 더 말을 못했다. 두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윽해서야 박영식은 다시 입을 열었다.

108호는 좀처럼 성공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참으로 검질기고 집요하였다. 100여차례의 시험 끝에 어느날 상급기관의 한 일군이 찾아와 이렇게 점잖게 권고하였다.

《여보시오, 비서동무, 100번나마 실패했으면 결심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소?》

그 소리에 맥을 놓고있던 당비서는 자리에서 펄떡 일어서 추상같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당신이 108호설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아는가? 100번의 실패라구,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번을 실패한것이 아니라 108호가 되지 않는 100가지의 원인을 밝혀냈을 따름이요.》

박영식이 상급기관 일군에게 이렇게 격하여 말해보기란 이때가 난생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말을 그렇게 했어도 현실은 여전히 준엄했다. 100번을 넘어선 시험, 회수는 점점 불어났다.

그럴수록 한결옴한결옴 성공에로의 길은 가까와지는셈이었다. 드디어 최종시운전을 하는 날이 왔다. 박영식도 엄덕호도 것처럼 성공을 바라면서 스위치를 넣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다. 설비들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다. 디디고선 땅이 그대로 꺼져버리는것 같았지만 박영식은 주저앉을수 없었다. 술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있었다. 박영식은 현현히 웃으며 엄덕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19세기 어느 한 과학자가 충전지를 2만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사실을 들려주면서 그 과학자에 비하면 우린 19 900번은 더 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으라고 고무하였다.

《엄덕호동무, 언젠가도 말했지만 실패라는 말 자체를 나는 인정하기 싫소. 이 시각 기술로 방조할수 없는 내가 동무에게 당비서로서 아니, 동년배로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시련은 과학자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피할수 없는 생활의 한형태이다. 시련에 부딪치면 고개를 꺾듯이 쳐들고 나

는 너보다 더 굳세다. 내 반드시 너를 디디고 올라서고야말것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나를 못 이긴다.〉 이것이요.》…

이 모든것을 말씀드리는 박영식의 눈에는 자신도 어쩔수 없게 또다시 눈물이 고여있었다.

이날 김정일동지께서는 저녁늦게야 야전렬차로 돌아오시여 박영식과 함께 렬차식당으로 가시였다. 시원한 맥주를 한병 가져오라고 이르신 장군님께서 품소 고뿌에 맥주를 따르시였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는데 한고뿌 드오.》

《장군님, 저는 사실 술과 맥주는 그닥…》

박영식이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어서 드오. 동무가 술을 못한다기에 맥주를 가져오라 한거요. 맥주는 조금 마신다면서?…》

김정일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굳이 고뿌를 손에 쥐여주시였다.

《이런 때는 한고뿌 마실줄도 알아야 하오. 그러면 속에 땀뻘뻘하게 축 내려갈수도 있지.》

박영식은 억 하고 소리내며 또 흐느끼였다. 자신은 신소에 검열까지 받고 걱정만을 드렸는데 이처럼 다심히 가슴속 상처를 헤아려주시며 마음을 써주시니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던것이다.

《자, 울지 말고 어서 마시오. 그래야 나도 밥을 들지.》

그이의 한없이 인자하신 말씀에 박영식은 눈물속에 맥주고뿌를 들었다.

삼시에 속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박영식의 얼굴에 순간에 피어오르는 홍조를 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맥주를 혼자서 다 마신것 같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자, 이젠 제기할것이 있으면 제기하시오.》

분위기가 한없이 따뜻해지자 박영식이 장군님께 가슴속에 묻고있던 말을 삼가 올리였다.

《장군님, 우리 지배인동무의 해임문제가…》

박영식은 떠듬거리며 지배인이 전장은 나쁘지만 기술도 있고 일하려는 욕심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듣고만 계시였다.

《그리고 엄덕호동무는… 전쟁전에 강원도 철원군 분계선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때 한 인민군전사에 의해 공화국품에 안겼습니다. 부모가 없는 그는 애육원과 학원에서 공부하며 성장했습니다. 입당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당문건 아버지한테 수령님의 존함을 모셨기때문입니다. 집행위원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2살때 부모를 잃고 당의 품속에서 자랐다, 그러니 부모의 이름도 얼굴

도 나는 모른다, 그러니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준 은혜로운 품이 김일성원수님의 품이다, 어려서 학원에서 나는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노래하며 자랐다, 그러니 나의 아버지는 분명 김일성원수님이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가?

그의 말에 한 집행위원이 그래도 감히 문건에 그렇게 할수 있는가고 하면서 그의 입당을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엄덕호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의 입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열에 그 문제가 또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문제도 제가 무원칙하게 그를 지지한다고 간부사업문제에 귀결시켰었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죄스러운 어조로 아뢰이는 박영식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져 무릎 위에 모아진 두손등우에서 부서져내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욱더 박영식을 쳐다보시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어려운 설비제작을 맡아안고 고생하고있는 그를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싶으시였다. 우리가 최첨단돌파전에 나서자면 우리 일군들부터가 강한 의지와 자신만만한 배심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농민같이 순박하고 어지개만 느껴지는 박영식을 생각깊은 눈길로 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비서동무는 앞으로 일을 더 잘해야 하겠습시다. 검열에서 당일군에 대하여 거론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종업원들의 식량문제는 나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동무는 훌륭한 당일군으로 수령님의 기억속에 있었습시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 동무를 회고하시며 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동무라고 말씀하시였습시다. 동무는 수령님께서 아시는 일군이라는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영식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장군님!》하고 목메여불렀다.

그날 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송을 부르시였다.

《명산정밀기계공장 당비서동무는 당정책을 잘 아는 동무입니다. 종업원들이 식량고생을 하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샘플수출기지건설을 반대할 때 그가 오죽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욱더 108호설비제작에 운명을 걸고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것입니다. 옳습시다. 그래야 합니다. 우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난 그 동무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CNC를 위해 나라의 얼마 안되는 자금을 통채로 가지고 그 개발자들을 찾아가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인민들이 식

량고생을 하고있는데 쌀이나 비료가 아니라 CNC를 위해 그 자금을 가지고가자니 가슴속에선 피눈물이 흘렀습시다. 그러나 그 길을 걸었기에 오늘 CNC는 확고한 전망이 생겼습시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에게도 내 심정을 이야기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당비서를 만나고나니 그 생각이 또 나서 눈물이 나왔습시다. 그 동무가 옳게 생각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최첨단공작기계를 생산하여 그것으로 식량도 해결하고 공장현대화도 하겠다는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난 그 동무를 믿습시다. 우리 그 동무를 도와줍시다.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력량도 보충해주고... 식량도 좀 보내줍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러시면서 한통의 문건을 리송에게 주시였다. 검열조가 올렸던 공장에 대한 료해문건이였다. 그 문건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친필이 새겨져있었다.

—자원을 수출하지 말라는것은 당정책이다.

—지배인의 해임은 보류하며 외국에 병치로 보낼것.

—엄덕호동무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당의 보배들이다.

《내 대신 동무가 내려가서 잘 도와주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당부를 담아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

승용차는 전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성공한 108호설비를 처음 보아주러 가실 때에는 모란봉에 살구꽃이 만발하였는데 지금은 눈꽃이 하얗게 피어있었다. 1년 8개월이 흘렀다.

길지 않은 이 기간 공장은 얼마나 몰라보게 발전했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승용차안에서 다시금 사진을 한장한장 번져보시였다.

새로 건설한 108호분공장전경과 108호설비가 늘어선 공장안은 얼마나 멋있는지 보고 또 보아도 계속 보고만싶으시였다.

샘물수출기지를 건설하려던 곳에 새로 일떠세운 로동자들의 야간정양소와 탁아소는 또 어떻고...

이번에는 공장종업원일동의 명의로 쓴 그 편지를 펼치시였다.

국제시장에서 108호설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당의 요구대로 자원이 아니라 기계설비를 수출하고 공장운영에 필요한것들을 마음대로 사온다고 한다. 식량도 자체로 보장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사진과 편지를 받아보시고

기쁨을 금할수 없으시여 이처럼 명산정밀기계공장으로 떠나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옆에 앉은 리송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108호설비도 CNC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CNC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였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그새 리송동무가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니다.》

리송이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다.

《저보다도 공장동무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였습니니다. 당비서동무와 지배인동무는 이 108호설비에 기초하여 빠른 기일안에 공장에 무인화직장을 일떠 세워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니다. 지배인동무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와서 한몫 단단히 하였습니니다.》

엄덕호동무는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기어이 우리의 과학과 기술로...》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차창밖을 내다보시였다.

눈덮인 산과 들이 흘러가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족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제일 기쁜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배인동무랑 엄덕호동무랑 얼마나 발전했습니니까. 박영식동무처럼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당일군이 있기에 공장이 소리치며 일떠선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승용차는 명산정밀기계공장 108호분공장 앞에서 멈춰섰다.

2층건물에 연건평이 수천평방미터나 되는 분공장의 넓은 현장은 마치도 요란한 기계전시장을 방불케 여러가지 형의 공작기계들이 짝 차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년 8개월 남짓한 기간에 너무도 몰라보게 전변된 현실앞에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온 현장이 밝아지도록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여기에 줄지어서있는 108호설비들이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CNC기계들입니다. 여기 동무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자력갱생의 힘으로 108호설비생산에 성공하고 이처럼 훌륭한 분공장을 일떠세웠습니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이름으로 이 공장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에게 특별감사를 줍니다.》

김정일동지의 말씀에 리송이며 박영식이, 엄덕호들이 그이를 우러러 열렬한 박수갈채를 올리였다.

수행원들도 그들을 따라 크게 박수를 쳤다.

《공장동무들이 고생은 많았지만 이 사업은 그만

큼 보람도 크고 영예로운 일이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정겹게 공장안을 둘러보시다가 기계를 동작시키도록 하시였다.

기대옆에 서있던 기대공이 기동단추를 누르자 기계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동작하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에 입력한대로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체하며 선삭가공, 구멍가공, 후라이스가공 등 자유자재로 모든 공정을 거침없이 수행해나가는 기계의 작업모습을 지켜보던 수행원들속에서 《야! 야!》하는 감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이 터뜨리는 감탄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우리는 기계공장뿐아니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이처럼 CNC로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최첨단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그 개척정신, 창조적기풍으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황홀한 심경에 잠겨 주의깊게 듣고있는 리송이네를 바라보시며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또다시 108호의 휘황한 배일을 펼쳐주시였다.

《CNC기술의 명맥을 우리 손에 확고히 틀어쥔 조건에서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은 오늘 세계의 발전된 나라들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현실을 우리 수령님께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수령님께서 평소에 그토록 념원해오신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간 《김정일동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나와 온 현장이 떠나갈듯 한 감격으로 설레이였다.

만세소리는 저 멀리 푸른 산발너머로 멀리멀리 오래도록 메아리쳐갔다.

리송은 흥분으로 하여 가슴을 들먹이며 눈을 습벅거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하신 말씀, 수령님께서 평소에 그토록 념원해오신 그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렸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아, 언제인가 108호기술문헌을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수령님의 념원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던 김정일동지의 말씀이 다시금 가슴을 뿡뿡 울려주었다.

리송은 마냥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억제할수 없어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서는 12월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아이들과의 친교는 사실 나의 생활에서 하나의 큰 락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통과 고뇌를 씻어주는 하나의 강력한 세척제라고 말할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동심속에 잠겨보라. 그러면 그대는 생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것들로 하여 인류의 생활이 더 아름답고 다채로와진다는것과 그들의 눈망울에 차넘치는 리상을 꽃피워주고 지켜주는것이 성스러운 사명임을 가슴이 부풀도록 깨닫게 될것이다.》

《김금순은 9살을 살고 영생을 얻은 소녀였다. 9살이면 콩다리연필처럼 짙막한 생애이다. 그러나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인생이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높이에 도달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이것은 있어보지 못한 이야기

박 응 전

이것은 있어보지 못한 이야기
있었어도 믿기엔 꿈같은 이야기...

전쟁의 포성이 멎지 않은 1953년 1월
평양에서 열린 전국농민열성자대회
대회장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손엔 알알이 영근 벼이삭이 들려있었네

그이께선 벼이삭을 드시고 말씀하셨네
—이것이 어러리벌 다수확농민이 지은 벼이삭입
니다
평범한 한 여성애국농민의 피땀이 습배인
어러리벌을 대회장에 옮겨놓으신듯

그리고 말씀하셨네
미제놈들에게 그의 온 식구가 피살되었다고
한 여성의 아픈 마음 가서주시려는듯
이 동무가 논농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날 오후 회의가 시작되었네
수령님께서 회의주석단에 나오시길 기다리는데
회의 주석단에 나오던 사회자가
장내를 향하여 뜻밖의 사연 전해주었네

어버이수령님께서 급한 일이 제기되어
회의를 지도하지 못하신다고
그리고 자신께서 앉으셨던 자리에

어러리벌 여성농민대표를 앉히라고 하시였다고

수령님 앉으셨던 주석단 가운데 자리에 내가
앉다니
그것은 백성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
두고두고 인민의 용서 못 받을 외람된 일
차마 생각조차 할수 없었네 앉을수 없었네

박수소리 박수소리에 떠밀려 떠밀려
수령님 앉으셨던 자리에 앉은 여성농민대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은 옷섶을 적시고
수령님사랑에 목매여 터치는 박수소리 박수소리

아, 인민을 받들어 천하를 얻으신 수령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금방석에 앉히고싶으신 그 마음에
여성대표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앉았나니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주시고
인민을 지상천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
하늘땅이 뒤바뀔대도 무궁세월 전해지리

이것은 있어보지 못한 이야기
있었어도 믿기엔 꿈같은 이야기...

6월의 푸른 계절에

황 명 성

신록이 짙어가는 푸른 계절
추억도 뜨거운 6월의 그날
나는 어깨에 외줄배기
초소의 이름없는 병사

알수 없었다
꿈많은 가슴에 입당청원서를 품고
복무의 길 걷는 흥안의 병사
그 어떤 고마운 축복을 받고있는줄

솔직히 알지 못했다 그날의 의미를
감회도 깊이 안아보는 마음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
당중앙위원회에 첫자옥 새기신 날이여

푸른 계절의 기상이었던가
백두의 노을빛으로 강산을 물들이며
창공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던
당중앙청사의 당기의 펄럭임소리

오늘도 가슴울려 우러르니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밝히는 등대인양
밤이 지새도록 꺼질줄 모르던 불빛
그이 사색과 탐구 바치시는 헌신으로
청신한 새벽을 불러오지 않았던가

향도의 그 빛발이었더라
예지와 열정에 빛나시던 안광
패기와 활력에 넘치시던 걸음
조국땅 그 어디라 끝간데없이
총메고 내 섰던 최전연전호에도 오시여

훈련길에서 숙영의 우등불가에서
남모르게 움트던 시정의 새싹도

따뜻이 한품에 안아
시인의 꿈을 소중히 꽃피워주시고
당원 보람찬 내 인생의 길만 보살펴주셨던가

내 나라의 천만군민과 한식솔로
끓을래야 끓을수 없는 정을 잊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주신 손길
그 손길따라 이 땅우에 변혁의 기적이 솟아
정치사상 군사강국의 위용을 자랑하며
세계앞에 김일성조선의 존엄을 떨쳤나니

푸른 계절 력사의 그날부터였더라
수령님의 주체의 위업을 굳건히 이어
무비의 담력으로 당을 이끄시고
선군의 의지로 격변하는 시대를 주도하시며
폭풍세찬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오신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내 노래하노라
천하제일 위대한 그 품에 안기여
오직 하나의 유일사상과 령도로
백전백승 불패인 우리 당
백배천배로 뭉쳐진 일심의 대오
사회주의 내 조국은 인간사랑의 화원으로
아름다운 미래가 창창히 펼쳐졌음을

오, 심장을 터쳐 노래하고노래하노라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이 강산 푸른
계절에
인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장군님의 모습과 함께 영원히
불멸의 그 업적 만대에 길이 전할
영광의 6월 19일이여!



장군님의 미학관

몇해전 11월초였다.

최전연에 있는 어느 한 부대에서 건설한 크지 않은 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 로데란간을 잡으시었다.

그러시더니 발전소를 부감하시면서 《아주 멋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동행하였던 한 일군이 그이께 정중히 말씀드렸다.

《발전소를 유원지처럼 잘 꾸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유원지처럼 꾸린것이 아니라 발전소를 건설하니 유원지처럼 되었습니다.》

이럴 때 부대정치일군이 그이께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단풍이 들었을 때에는 멋있었는데 지금은 단풍이 떨어져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지금도 멋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보다도 병사들이 땀으로 이룩해놓은 창조물의 가치를 더 아름답게 보시는 그이의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조 국

정 서 촌

노한 불길은 보천보의 시가를 휩쓸고있는데
빨찌산들 한밤에 다시 행군하였네
그리운 땅 울창한 수림속에 자국을 남기며
총을 메고 한결음한결음 멀리 떠나갔네

앞에는 장강 다시 또다시 뒤를 돌아보며
조국의 마지막지점인 산기슭을 내릴 때
길가의 오막집 한채 사립문 열리더니
맨발채로 할머니 한분 길을 막아섰네

한생을 돌처럼 살아온 이 나라의 할머니
대원들을 껴안고 뜨거운 눈물 흘렸네
아니 눈물을 삼키고 해빛과 비바람에 그들은
대원들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 씻어주었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으랴!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올 그날은 언제이라!
앞에는 장강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기슭을 치는데
돌부리에 채이며 할머니는 오솔길 더듬었네

마치도 바위를 머리에 띄우고 오는듯
할머니는 가쁜숨 쉬며 물 한동이 길어왔네
—내 고향의 물이네 빠근히 이가 시릴걸세
뚝배기에 퍼서 허물없이 대원들에게 권하였네

대원들은 마시었네 동이에 넘치는 차디찬 물을
한모금도 한방울도 남기지 않았네
그리고 떠나갔네 어머니땅 마지막기슭에서
모자 벗어 공손히 작별인사 드리고

아, 그밤 기약없이 떠나가는 아들딸들을
조국은 이렇게 배웅했나니
마르지 않았더라! 빨찌산들 심장에 젖어든 물은
밀림을 헤쳐준 세월과 행군을 거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세상에 흐르는 장강보다도 대해보다도
한량없이 깊었더라 할머니가 퍼주던 뚝배기의
물은...

《인민대중이 좋다고 하는것이 좋은것이며 인민대중이 아름답다고 하는것이 아름다운것이다.》

김 정 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좋고 아름다운것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뜻. 인민대중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물질문화적재부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이다. 아름다운것 가운데서 어떤것이 가장 아름다운것인가 하는것을 가려볼줄 아는것

은 어디까지나 주관이다. 인민대중의 평가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이다. 인민대중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제일 잘 알고있기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아름다움이야말로 아름다운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것으로 된다.

그이의 사색

곽 명 철

우리 다는 몰랐어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매일 매 순간 아버지장군님
펼치시고 무르익히시는
사색의 시작과 그끝을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을
만대에 빛내실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이어가시는
그 사색의 폭과 깊이를
정녕 누가 다 헤아릴수 있었으랴

하지만 나는 오늘
강성부흥하는 내 조국땅우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완벽하게
그 모양을 빚낸
그이의 위대한 사색의 결실을
나는 가슴뜨거이 보고있다

이 땅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세월을 앞당겨 펼쳐진
눈부신 전변의 그모두는
그이의 심원한 사색의
위대한 결실이 아니던가

사상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대하고
문화로 황홀한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시기 위해

사색을 하시며 실천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며 순간의 사색을 멈춘적 없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한생은
위대한 사색의 한생
위대한 실천의 한생이시였거니

우리 다 알았던가
그이께서 그날에 펼쳐가시던 사색의 그 전부를
끝없이 이어가시던 그이의 사색은
애국 애민 애족으로
아득히 먼 천만년미래를 품으신것

대를 이어 주체위업의 눈부신 령마루우에
최후승리의 붉은기 휘날릴 그날을 그려보신
그이의 불후의 위대한 사색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높이 모시여
이 땅우에 빛나게 실현되어가고있거니

오늘도 장군님의 사색은
원수님의 사색속에 이어지고
장군님의 념원과 구상을 꽃피우실
원수님의 불후의 실천속에 구현되고있어라

더 열렬히
더 웅장히
더 심오히...

담 시

담배에 대한 담시

김 경 기

방축우에 높이 쌓은 벼랑가리 흔들며
떠들썩 병사들의 웃음소리 터졌네
권하는 담배 달게 피우며
아바이는 화선시절 이야기하네

그렇지 어버이수령님께선 바로 저쯤
전호숙의 탄약상자에 허물없이 앉으셨지
정찰조의 주먹밥도 맛보아주시며
수리개들의 무훈담도 들어주시며

헌데 이 일을 어쩌면 좋으랴
그만애야 귀에 꽂은 꽂초를 보시고
그이께선 벌써 다 알아내셨다네
전사들의 주머니가 비어있음을

그이께선 담배갑을 꺼내시면서
우리더러 이렇게 물어보셨네
어느때 담배맛이 제일 좋던가고...

저마다 제나름으로 대답을렸지
광산출신병사는 발파소리 셈하며
쉬일참에 한대 태우는 맛이라고
그리고 농민출신병사 나는 말일세
이른새벽 갈아엎은 발머리에 앉아
마라초를 두툼히 말아 피우는 맛이라고

어버이수령님 흥겨우신듯
호탕히 웃으셨네
—웁소 웁은 말이요 다들...
하지만 나는 전사들과 마주앉아
이렇게 피울 때가 제일 좋거던!

나뉘피우는 담배맛은 더 좋다시며
한대도 남김없이 나뉘주셨지
내겐 곱배기로 두대를 더 주시며
손수 성냥까지 그어주셨지

글쎄 어떤분이시라고 불을 붙이겠나
헌데 그이께서 드신 성냥불은
자꾸만 자꾸만 타들어가고
그러니 어쩌겠나
할수없이 불을 붙일수밖에...

그때 우린 정말 몰랐거던!
무척 담배를 좋아하는 병사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 피울수 있도록
그이께선 즐기지도 않으시는 담배를
달게 피우셨다는것을!...

그런분이시지 우리 수령님은
화선식당의 국맛까지 보아주시는
콩나물 기르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는!...

담배는 다 탔네만
그이께서 붙여주신 그 불은
 옮겨붙기 시작했지
불타는 심장으로...
수리개들은 떠나갔지
그리고 원썬들의 심장을 통채로 들춰왔지!...

알겠나!
수령님 지퍼주신 한점 불꽃은
온 전선에 원썬격멸의 불바다로 펼쳐졌거던!
수령님은 이렇게 한가치 성냥불로
병사들의 심장에
폭풍우로도 끌수 없는 불을 지퍼주셨거던!

아바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었다
담배연기 한껏 빨아 가슴깊이 머금고
병사들도 후더워오는 눈곱 습벽이었다
숫구치는 눈물을 담배연기로 감추면서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편이나 장편을 써야 소설가로 인정받을수 있는듯이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작가들가운데는 평생 단편소설만 쓴 소설가도 적지 않다. 소설의 사회적가치는 결코 그 부피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단편이라고 하여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있으면 얼마든지 명작으로 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시기적이며 선동적인 내용을 담은 벽소설 같은 짧은 형식의 소설도 절실히 요구한다. 벽소설은 기동성과 전투적호소성이 있는 대중교양의 좋은 수단인 하나이다. 대건설전 투장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 기적과 혁신을 기동성있게 반영하는데서는 벽소설을 따를만한 소설형식이 없다.》

진 리

김 일 규

봄빛처럼

좌절로 얼어붙은 대륙에

눈석을 불러주며

해빛처럼

서리찬 역풍에 떨던 생명의 아지들에

부푸는 희망의 꽃망울을 움켜쥐주며

한자한자

위대한 저작의 글발이

주체의 내 조국에서 빛발쳐오를 때

무겁게 떠돌던 비구름은 갈라지고

그늘 깊던 지구가

얼마나 밝아졌는가

그리움에 되새겨보던 사회주의

그 밝은 희망의 보금자리를

눈앞에 현실로 펼쳐보이며

저자거리 구슬픈 동양의 그 손들에

세계의 주인으로 창파를 헤쳐갈

운명의 노대를 쥐여주며

한자한자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높은 모습을 안고

해돋이마냥 누리에 퍼져오른 위대한 빛발이어

갈증에 시달리던 사막에서의 샘물처럼

항로 잃은 배길에서의 등대처럼

온 인류가 활력의 숨결을 한껏 호흡했나니

오, 첨예한 대결의 진두에서

승리에서 승리를 마련하시며

비통한 애도의 아픔을 다 이기시며

우리의 김정일동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 불멸의 철리를 들어 행성우에 없으실 때

세계는 거대한 자기의 가슴에 자리잡고

시대의 운명에 영원한 피줄기를 이어주는

크나큰 심장의 박동을 느꼈노라

그리고 똑똑히 보았노라

세기를 이어 불멸하는

태양같이 눈부신 사회주의조선을!

국방공업의 업적에 바쳐진 서사시적화록

안 희 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세계의 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명백》(탁속본 작)은 자립적국방공업을 건설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작품이다.

장편소설은 새 조국건설시기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해방후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전쟁시기에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그이의 숭고한 인간적품모와의 결합속에서 생활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정치, 위대한 전략, 위대한 령도예술을 깊이있게 그려내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수령님의 품모를 격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소설에서는 자립적국방공업을 나라의 명백이라는 심오한 철학적종자를 잡고 나라의 물질적담보이며 생명선인 자립적국방공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한편의 소설작품으로 나라의 국방공업의 발전력사와 그 빛나는 생활력, 거기에 바쳐오신 수령의 령도품모와 령도업적을 형상적으로 명백하게 밝혀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설득력있게 밝혀내고있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국방공업건설에 대한 가장 현명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과정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조국해방전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감동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거쳐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나라가 처한 엄중한 정치정세에 대처하여 자체의 국방공업건설문제를 가장 절박한 과제로 내세우시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당 및 군사일군들의 회의에서 국가의 보안문제, 병기생산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존경험이나 외세의존적견해에 대하여 그 어떤 해설로써가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큰 나라에 청탁하여 해결하려다가 실현되지 않아 항일유격대원들이 백두밀영에 병기창을 여러곳에 차려놓고 작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무기들을 자체로 만들어 일제와 싸운 경험을 실감있게 이야기하신다. 그 말씀에는 항일유격대가 발휘한 자력갱생의 전통을 본받아 병기공업을 일떠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이 뚜렷이 명시되어있었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제시하신 병기생산의 방침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국력이 약하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고만다는 력사의 심오한 진리와 우리 민족의 망국사의 피의 교훈, 무기생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실천적경험에 기초한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전략적방침이었음을 강조해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자립적병기공업건설방침은 불과 몇해안에 평천리병기공장에서의 전쟁과 함께 이설된 지하병기공장에서의 위력한 우리 식의 기관단총과 수류탄, 박격포와 포탄을 비롯한 현대적무기들이 계열식으로 수많이 생산되어 전쟁 제1계단작전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미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면서 혁혁한 전과를 이룩한데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파시되는데 대하여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환경속에서 무기생산을 계속하실 비상한 결심을 굳게 하시며 국방공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킬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과정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서도 감명깊게 펼쳐고있다.

작품에서 형상되고있는바와 같이 전쟁 제1계단에서 인민군대의 드센 공격앞에 만신창이 된 미제는 패망에 직면하게 되자 저들의 육해공군무력과 15개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총동원하여 수십만의 방대한 무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를 뒤덮으며 총공격으로 달려들었다. 현대적무기생산력사가 이제 겨우 3,4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와 현대적무기생산의 력사가 오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의 대결전은 군사무장력대비에서 그 차이가 너무도 엄청난것이였다.

전쟁승리의 기본요인은 군대의 정신력이지만 그에 강력한 무장력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전쟁 제1계단에서 인민군대의 정신력은 비할바없이 우월했지만 총이 모자라서 랍동강계선에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러한 가슴아픈 심정을 누를길 없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참히 파괴된 평양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총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지금쯤은 우리가 미제침략자들을 남쪽땅에서 완전히 내쫓았을거요. 우리는 총이 없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소. 총이 넉넉했더라면 우리 전사들이 피를 적게 흘릴수 있었고 전쟁을 속전속결할수 있었소.》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현대적무기생산의 력사가 너무도 짧은데다가 어느 나라에서도 무기지원을 받지 못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게 된 현실을 가슴저리게 절감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오직 자체의 무장력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게 되시였다. 때문에 기관단총 700정을 시급히 만들데 대한 파업을 주시여 평양시 방어부대에 넘겨주시였으며 군자리지하병기공장을 수품지대로 이설하여 수류탄과 여러가지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낼데 대한 군사위원회결정을 채택하시는 비상결단을 내리시였다.

이와 함께 북부내륙의 천연요새지들에 우리 식의 철벽의 지하병기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모조리 족쳐버릴 방대한 구상을 펴시는것이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위대한 구상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기적만을 창조해나가는 백두령장의 철의 신념과 비범한 예지, 무비의 담력에서 빛발쳐나온 위대한 구상임을 생활형상으로 설득력있게 론증해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작전구상을 무르익히신데 기초하시여 군자리

지하병기공장을 모체로 하여 모든 병기직장들을 독립적인 병기공장들로 확대발전시키며 나라의 국방공업을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문제를 하나의 정책적로선으로 정립하여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당시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고산진의 림성골 정승하로인의 집에 산업상인 정일룡과 병기공장당위원장인 현무광을 친히 부르시여 자립적국방공업은 나라의 명맥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작전지형도를 짚어가시며 나라의 병기공업, 군수산업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주시는 숭엄한 형상은 강철의 의지와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탁월한 전략가, 령도예술가로서의 백두의 천출명장의 형상을 부각시켜주는 감동적인 생활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작전지휘하시는 그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철의 신념과 의지로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시며 새로운 병기공장들을 전국도처에 건설하여 현대적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다. 소설에서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국방공업을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은 전쟁의 제3, 4계단에서 실감있게 형상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적방침에 따라 북부내륙의 천험의 요새지들과 나라의 도처에 일떠선 병기공장들에서 여러가지 현대적무기들이 쏟아져나오자 반공격에 들어선 인민군장병들과 제2전선부대용사들은 범한테 날개가 돋친격이 되어 공화국북반부지역으로 깊숙이 쳐들어왔던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넘기며 38도선이남 멀리로 쫓아냈다. 결국 인천상륙작전을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대비하면서 감은절전까지 결속짓겠다고 한 맥아더의 호언장담은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미제는 할수없이 정전담판을 제기해놓고서는 그 막뒤에서 저들의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원자탄공포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한편 《하기공세》요 《추기공세》요 《신공세》작전을 위한 《시범전투》요 하며 모든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그때마다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당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저들의 비극적운명이 불보듯 명백하게 되자 미제는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다.

소설에서 미국의 비극적운명의 원인을 객관적인 식견과 안목으로 투시해본 미국의 동양력사학자이며 첩보전문가인 잭슨은 《...조선인민의 무한한 정신력이란 사실상 김일성장군에 대한 신앙심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입니다. 이 정신력에 군사무력이 안

받침되고있습니다. 제일 무서운것은 최근 포무력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있는것입니다.…」라고 정당하게 평가했던것이다.

실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군대와 인민의 높은 정신력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자립적국방공업을 건설하고 전쟁시기에도 끊임없이 발전시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의 위대한 승리였다.

작품은 이러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나라의 명맥인 자립적국방공업을 튼튼히 마련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책동을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탁월한 전략가,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라는것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여기에 바로 작품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답이 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국방공업부문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서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믿음은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를 물론하고 다 믿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내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가장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병기공장을 꾸리던 초시기 부유출신의 산업국장이 나라에 단 한명밖에 없는 총설계가인 지용모기사를 두고 그가 일본에서 대학공부를 했고 일제의 병기제조소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불신을 표시했을 때 《…자신을 믿는다면 지용모기사를 믿어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사자격을 주어 우리 나라의 첫 기관단총설계가로 내세워주시였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철학에 떠받들리워 김홍근기사, 류일룡, 조규정 그리고 리병혁이도 첫 병기공장의 로동계급대오에 들어섰다. 이렇듯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에 의하여 지난날 식민지민족으로서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운 병기공장의 로동계급대렬에 합류되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눈물겨운 생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에서는 국방공업부문 로동계급과 인민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전쟁의 형세가 더욱 준엄해지자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은 병기생산국장 고정환은 공장회의에서 대렬안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많이 들어와있다고 하면서 소도전쟁시기에 쏘련에서 동유럽지역에 있는 군수공장들을 우탈지역으로 옮길 때 한것처럼 우리도 계급적으로 대렬정리를 해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가 하면 자기의 견해를 상급에 제기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정환의 비뚤어진 사고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다른 나라에서 한 대렬정리로써가 아니라 병기공장의 기술자, 기능공, 로동자들도모두를 다 귀중한 혁명동지, 혁명전우로 여기시고 공장을 수품으로 이설할 때 한명도 빼놓지 말고 가족들까지 사고없이 데리고가도록 하시였다. 소설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사랑과 믿음의 철학성은 성천의 한 목사가 몸보신에 쓰시라고 보내온 성천약밤 두지함을 식량고생을 하는 군자리지하병기공장의 결사대원들에게 보내주시고 바람세찬 압록강반에서 홀웃바람으로 무기를 만들고있는 수품병기공장의 로동계급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겨울솜옷을 보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에서 더욱 깊이 보장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은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통천의 지군일목사에게 써보내주시는 애국열로 심장을 꿰게 하는 한장의 찢막한 친서에도, 수품의 로동자가족들인 두 산모에게 보내주시는 은정어린 미역과 산꿀, 닭알지함에도 뜨겁게 어리여있었다.

인간에 대한 가장 참다운 사랑과 믿음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시기에 그들의 정치적생명과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부 편협한 일군들이 지용모기사가 성천군의 최학순목사의 딸과 애인관계를 가지고있다고 하여 그에게 당원의 자격문제를 걸고 들며 정신적으로 괴롭히고있을 때에 그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보호해주시였으며 허가이의 비호를 받고있는 정치적야심가인 고정환이 현무광의 사업방법과 작품문제를 걸고들며 외곡된 자료를 제기했을 때에도 그에게 정치적인임을 변함없이 안겨주시고 더욱 빛내여주신다.

리승엽이 파견한 사범성검열그루빠라는것이 내려와 포탄생산공정을 단축하여 생산을 늘이고 계획외의 철갑모를 연구생산한 김홍근기사와 그를 적극 도와나선 사람들을 군검제도를 악용하여 반혁명분자, 간첩으로 몰아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에는 몸소 현지에 오시어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혁명적의리는 당의 전략적방침관철과 군수공장들의 건설을 위해 그렇듯 정력적으로 활동하던 김책동지가 뜻밖에 서거하였을 때 사랑하는 전사의 령구를 원수들이 다치지 못하게 잘 안치하도록 하시는데서와 군수공장을 지켜싸우다 희생된 려사들의 이름을 눈물을 흘리시며 한사람한사람 외우시는 그 숭고한 모습의 형상에서도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시련도 죽음도 맞받아나갈수 있게 하는 불사신의 신념과 힘을 낳는 원천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군자리지하병기공장의 결사대원들은 전기와 식량공급이 완전히 두절된 최악의 조건에서도 군밤 몇알씩으로 끼니를 에우며 철야전투를 벌려 기관단총 750정을 기한전에 완성해내는 기적을 창조했고 수품의 병기공장로동계급은 빈터우에 용선로를 세우고 요구되는 파철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수류탄을 비롯한 여러가지 무기들을 많이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주었다.

소설에 펼쳐진 이러한 예술적형상은 위대한 수령님과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사이에 혈연적누대로 맺어진 사랑과 믿음, 의리의 관계가 얼마나 고결하며 숭고한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해방후 빈터우에서 병기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국방공업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었음을 설득력있게 밝혀주고있다.

장편소설 《명맥》은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숭고한 령도풍모를 다양한 형상수단과 수법을 활용하여 품위있고 격이 높게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우선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심오한 철학적인 종자를 틀어쥐고 자위적국방력의 물질적담보이며 나라의 생명선으로 되는 자립적국방공업을 일떠세우는데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형상과제로 내세우고 예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뚜렷이 부각시켜 보여주었다.

또한 나라의 국방공업건설과 그의 확대발전과 관련한 수많은 자료들을 실재한 력사적사실 그대로 형상적으로 재현하고있다.

작품에 등장시킨 김책, 정일룡, 현무광, 전종

호, 한성룡, 지용모, 최성준, 김인호, 김은순 등과 같은 인물들은 모두 병기공장 초기기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깊은 연고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나라 군수공업발전과 운명을 같이해온 실재한 력사적인물들이다. 작품에서는 이렇게 력사문헌에 기록되어있는 사실과 인물자료들을 풍부하게 조사장악하여 예술적형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력사문헌적가치를 풍부히 하고있으며 형상의 설득력과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마감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자립적국방공업건설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시기 위하여 나라의 국방공업을 선군정치의 명맥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불패의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므로써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위업에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서도 형상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묘사형상의 활용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그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해방후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을 강화발전시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민족사적 및 세계사적대공적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장편소설 《명맥》의 높은 사상에예술성은 주체적 국방공업을 건설하여 우리 나라를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전하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 백두의 천출명장들을 대를 이어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힘있는 교양수단으로 된다.

성구, 속담

량 심

- 량심은 내적인 명예이다
- 량심에는 도금을 못한다
- 량심에 옷을 입히지 말라
- 량심의 종이 되고 의지의 주인이 되라
- 량심은 천사람의 증인과 맞먹는다
- 량심은 우리를 감시하는 마음의 경종이다
- 이 세상에 허없이 말하는것은 오직 량심뿐
- 최고의 재판은 량심의 판결
- 가장 으뜸가는 장식은 깨끗한 량심이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주체40(1951)년 9월 어느날 밤이었다.

조선인민군 한 구분대가 주둔하고있는 전선동부의 월비산이 바라보이는 어느 한 마을에서는 이동영사대의 영화상영이 진행되고있었다.

여기에는 인민군군인들이며 마을사람들과 함께 전선현지창작의 길에 나선 작가 김복원과 작곡가 김원균도 있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기록영화 《1950년 5.1절》이었다.

화면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높이 받들고 해방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펼쳐나선 조선로동계급의 자랑스런 모습들이 비쳐졌다.

격동적인 영화의 화면들이 흘러가는 가운데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졌다.

아, 얼마나 뵈옵고싶던 장군님이신가.

전쟁의 불길속에서 건강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뵈는 관중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것이 넘쳐흘렀다.

일시에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고 감격의 파도가 출렁이는 인민군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가 한껏 어리었다.

기록영화는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에 의하여 다시 한번 상영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날 밤 시인과 작곡가는 잠들수 없었다.

언제나 인민군전사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함께 계시며 용맹을 안겨주고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

그이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이 있고 그이께서 계시여 승리는 우리의것이 아닌가.

친근하고 영명하신 장군님의 영상은 진격하는 대오의 진두에 모셔진 백전백승의 기폭이고 우리의 최고사령관은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희세의 명장이시며 전사들의 친아버이이다.

그날 밤 창작가들이 받은 강한 충격은 그대로 가사로 흘러나왔고 친근하고 장중한 선율로 나뒀다.

오늘도 부대는 원쑤를 부시고
들과 강물 산밭을 넘는다
나가는 진두에 언제나 그 모습
용맹을 부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의 부름에 원쑤를 부시고
그이를 모시고 승리를 노래하리
...

전화의 나날 가요 《우리의 최고사령관》은 이렇게 태어났다.

노래는 삼시에 인민군전사들속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전사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그뿐이 아니다.

합창 《우리의 최고사령관》은 예술인들의 전선 위문공연에서 언제나 첫 순서로 연주되었으며 그것은 그대로 싸우는 전투원들의 힘이 되고 용맹이 되었고 인민군군인들을 대중적영웅주의에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가 사

원수님과 인민

김 철 진

인민을 위한 사랑으로 하루일 시작하고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한밤도 밝히시네
아 인민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한마음 인민은 원수님만 따르웁니다

인민을 위한 사랑에 한생의 꿈이 있고
인민을 위한 헌신에 더없는 기쁨 있네

아 인민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한마음 인민은 원수님만 따르웁니다

불타는 마음 인민은 그이만 생각하고
영원한 충정 인민은 그이만 받드네
아 인민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한마음 인민은 원수님만 따르웁니다

격정의 환호속에 외 1편

변 홍 영

만세!
만세!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오르는
영광의 대회 주석단으로
우리 원수님 나오신다
활달하신 그 걸음새
거룩하신 그 모습

태양의 광망에 휩싸인 장내
해쫂는 태양이런가
만세의 환호성은 눈물에 젖고
격정의 박수소리 우뢰쳐 진감하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장

한없이 솟구치는 뜨거운것이
나의 두볼을 소리없이 타고내린다
대번에 목이 꼭 메여와도
목청을 다하여 웨치는 만세소리
눈물젖은 가슴속에서 터져나온다

아, 얼마나 몸가까이
꿈결에도 뵈고싶던분이시나
인민의 선경이 꽃피나는 대건설장
파도세찬 섬초소 최전연의 고지들에서
천만군민을 아버지 한품에 안아주실 때
이 마음 그 품 향해 달려갔노라
그렇게도 간절히 그 품에 얼굴묻고싶었노라

자나깨나 품고산 그 평생소원이 이루어져
오늘은 영광의 상상봉에 내가 섰구나

꿈만 같은 행복감에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한다고
탓하지 말아다오

가슴속에 불덩이로 끓는
천사의 이 격정 이 감격
그 어이 세상을 향해 터치지 않으랴
만세!
만세!

장내를 뒤흔드는 이 웨침 이 환호
이 세상 가장 걸출한 위인을
우리 혁명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받든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분출이다
하늘땅 끝까지 원수님을 길이 모시고
성스러운 백두위업을 기어이 완성해갈
선군조선의 억척불변의 신념의 맹세다

아아, 격정의 이 환호속에
내 다시금 뜨겁게 새기노니
자애론 그 손길 높이 드시여
영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정녕
민심이 따르고 천심이 떠받든
세기의 천출위인이시다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선군조선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격사의 선언

그이는 지금
조선혁명이 걸어온 승리의 로정을
영광의 단상에서 자랑차게 총화하신다
장장 천만리
사상으로 개척되고 사상으로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진로를
시대앞에 찬연히 밝히신다

그이는 지금
백두산악을 딛고 서시여
흘러간 세기와 앞에 올 세기를
한품에 안아보시는듯
사상이 위대하고 령도가 위대해
자기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수놓아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사를 펼쳐가신다

천만심장을 틀어잡는 그이의 연설

구절구절 혁명철리로 번뜩이나니
사상을 틀어쥐면 강자가 되고
사상을 버리면 노예가 되는
절대불변의 진리의 선언이여

비약의 불길 솟는 대건설의 전구에서
금나락 물결칠 가없는 전야
풍어기 날리는 만선의 바다
최첨단돌파전의 동음 높은 기대앞에서
사상공세의 나팔소리 더 높이 울리게 하라

우리 당중앙을 천겹만겹 보위해선
결사옹위의 성세를 더 철벽으로 다지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육탄되어 나가는
천만용사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라
선군조선의 번영기 세상이 보란듯 펼쳐게 하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 당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인민들
백두산폴물이 오른 혁명배낭에
우리 당정책을 가득 담아메고 찾아가는
당사상일군들의 힘찬 걸음걸음을
정답게 이끌어주시는 그 손길 그 믿음은
사상의 기수들이 안고갈 꺼질줄 모르는 화불이다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의 미싸일로 그 어떤 도전도 짓부시며
폭풍쳐나가는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
원수님 펼쳐주신 사상사업의 대강을
불멸의 기치로 추켜든 선군혁명의 앞길엔
최후승리의 해돋이가 찬란히 열려오나니

오, 신심은 백배하다
원수님의 연설을 받아안은 심장들은

불같은 혁명열 애국열로 뿔뿔 끓는다
항일유격대의 진격의 나팔수처럼
우리 당 사상전의 전초선에서
승리의 진군가를 우렁차게 울려가리라

가자 사랑하는 조국이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만발하게 꽃피나는
백두산대국의 아름다운 미래로

아아,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천하제일 사상강국으로 무궁번영할
태양조선의 천만년 세월을 펼쳐주셨다
로동당의 붉은 사상으로 영원히 백전백승할
조선혁명의 앞날을 창창히 열어주셨다!

수 필

산에 대한 의미

백 일 홍

나는 어릴적부터 산을 몹시 두려워했다.

산이라는 지정학적개념보다도 감각적으로 나에게는 산이란 더없이 크고 우중충하기만 하고 그 속에 무언가 알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많은것을 품고있는 알수 없는 존재, 두렵기만 한 존재였다.

유년시절이 흘러간 지방 소도시의 나의 외가집교외에 있는 산이 간직하고있는 나의 발자취가 그런 생각을 더해주었는지도 모른다.

소학교동무들과 함께 보물찾기놀음에 빠져 한발작한발작 저도 모르게 깊이 들어간 숲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덮치듯 갑작스레 나를 에워싼 어둠과 함께 건잡을수 없는 무심증과 공포에 싸여 끝없이 울고있었던 그 유년시절...

그다음부터 나는 산을 멀리했다. 가지가지 울음소리를 내는 이름모를 새들과 양증스럽고 아름답기도 한 수많은 꽃과 풀들이 유혹했지만 나에게는 한번 체험한 공포가 더욱 위력했던것이다.

그 산이 다 자란 오늘 나에게 불현듯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 산이 바로 나의 외가집이 있는 마두산이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광스런 현지도로정과 더불어 마두산혁명전적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바로 그 산...

가실 곳 많으신 그이께서, 만나실이 많으신 그이께서 대한의 사나운 추위가 땀뺀 기운을 내뿜는 한겨울에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텔레비존화면에서 뵈으면서 나는

마음속에 크게 미쳐오는바가 있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을 보시면서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다고,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서 신념의 무게를 산과 같은 무게로 받아안았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같이 크고 귀중한것, 정의와 진리로 더없이 묵중한것을 안겨주시었다.

혁명은 곧 신념이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 꽃같은 인생길의 첫시작을 땀 새 세대에게 산같이 안겨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천근만근의 무게.

나는 마음속에 산을 안은것만 같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이 이 나라 강산의 산과 산들에 깃들어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원한 뜻이 산발들에, 숲들에 그대로 숨배여 항일의 혁명선열들의 목소리로 세월과 세월을 넘어 울리는 산은 나에게 더없이 친근하고 귀중한 존재로 안겨온다.

그리고 혁명적신념을 억년 드눌지 않는 바위같이, 산같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혁명의 길을 갈 때 인생의 모든 영광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신심을 희열속에 다지고다진다.

산!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이 나라 방방곡곡에 뽀얗게 뻗어간 산들을 바라본다.

단 평

심장의 고백이 들리는 절절한 시형상

—가요 《그이 없인 못살아》를 두고—

한 송 이

...

그이 없인 못살아 김정은동지
그이 없인 못살아 우린 못살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살아

들으면 들을수록 경애하는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사는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의 토로를 다 듣는듯 하다. 진실한 마음속 고백들이 가슴을 울린다.

전우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따뜻한 정을 주시는 그이,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도 다 품에 안으시고 하늘같은 믿음을 주시는 그 은덕이 가사의 구절구절들에서 화폭으로 안겨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주어야 합니다.》

가사 《그이 없인 못살아》는 우리 인민의 친근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을 노래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만 믿고사는, 그이 없인 못사는 인민들의 뜨거운 진정을 진실하고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삶의 매 순간순간 그이를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우리 인민, 이 세상 한끝에 간대도 언제나 그이를 마음속에 모시고사는 우리 인민은 왜 그이 없인 못사는것인가.

가요는 매 절들에서 단계별로 그에 대한 해답을 심화시키면서 작품의 사상정서를 밝히고있다.

친근하신 그이의 정 가슴에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

정!

정을 떠나 인간을 생각할수 없다. 개개의 심장이 하나로 되는 근저에는 바로 그 정이 있는것이다. 이런 정에서부터 출발하여 그이 없인 못사는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를 노래한것이 작품의 진실성을 담보한 근본바탕으로 되는것이다.

차디찬 바다물속에 온몸이 다 잠겨들어도 그이 타신 자그마한 목선을 끝없이 따라서던 병사들, 그들에게 어서 나가라고 손짓하시는 그이의 눈가에 어리던 눈물,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이라 불러주시며 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모습, 저저마다 그이의 팔목에 매여달리며 따르던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들.

입에 오른 가사와 함께 심장에는 숭고한 그 화폭들을 련상시키는 시형상속에 경애하는 그이와 정으로 심장을 합치고 정으로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뜨겁게 안겨온다.

정에 대하여 노래한 작품은 많다. 하지만 이 가사에서는 그이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를 단순히 정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하늘같은 믿음으로 더욱 충만시키고있다.

하늘같은 인덕과 믿음에 끌려
우리모두 따르며 사네

...

정으로 맺어지고 거기에 하늘같은 믿음으로 하여 더욱 굳어진 결합체는 절대로 떨어져선 못사는것이다. 이렇듯 가사의 1절에서는 그이 없인 못산다는 시적주장을 정과 믿음이라는 평범하면서도 진실하고 고결한 인간관계속에서 뜨겁게 펼쳐나갔다.

가사는 2절에서 사상주제적내용의 폭을 더욱 넓히었다.

우리 마음 그이만이 제일 잘 알고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래퍼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가사에서 안겨오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은 마음속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 행복, 우리 운명도 지켜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이다.

친부모의 정은 육친의 정가운데서 가장 소중한고 귀중한것이다. 천만인민의 행복도 미래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의 생각도 헤아려 꽃피주시는 경애하는 어버이의 그 정은 이 세상의 모든 부

모의 정을 다 합친대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
인것이다.

그리하여 인민은 경애하는 그이가 없이는 못사는
것이며 열화같은 흙모의 그 정은 우리 인민의 마
음을 철석의 맹세와 신념으로 더욱 충만시키는것
이다.

함께 온 길 새겨봐도 앞길을 봐도
태양같은 그 미소로 가득차있네
그이만을 받들며 세상 끝까지
충정다해 모시고살리

진정 불타는 이 맹세는 우리 인민모두가 안고사
는 뜨거운 그정이 터치는 열의 분출이다.

그렇다.

끝없는 정과 하늘같은 믿음을 주시고 운명도 미
래도 지켜주고 꽃피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없
인 우리 인민은 못산다. 경애하는 아버이를 충정다
해 받들어가며 영원히 그이 품에 안겨 모든 꿈을
이루어갈 신념 또한 드림없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
늘 온 나라 인민은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를 받들며
그이를 따르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진
리로 새겼고 경애하는 원수님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
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마다 억척같이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곧 우리모두의 운명이시다.

바로 이 마음속 진정,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에
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충정의 맹세가 그대로 가사
에 어렸고 그것이 곧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로 되고
있다.

이렇듯 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없인 우린
못산다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 고백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정서를 한없이 진실하고
더욱 절절하게 하여주었다.

가요 《그이 없인 못살아》는 가사형식의 측면에
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가사에서 기본으로 살리고있는 반복의 수법은 주
제사상적과제에 맞게 탐구된 형식이다.

가사나 시작품에서 반복의 수법은 대체로 운률조
성의 기본수법으로 쓰이지만 이 가사에서 반복의
수법은 커다란 의미적효과를 나타내고있다.

그이 없인 못사는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의 토
로들을 다 담으려는듯, 끊임없이 샘솟는 그 진정
의 목소리들을 끝없이 울려주려는듯 한개의 시련
에 무려 세번, 네번에 걸쳐 반복시켜준 시구는 심
장에 파고들어 강렬한 느낌과 정서를 불러일으키
고있다.

그이 없인 못산다고 한번 터치면 그이의 따뜻한
정이 가슴에 따뜻이 안겨와 또다시 우러러 터치고
싶고 그러면 또 산울림마냥 심장에 메아리치는 진

정의 토로!

이렇듯 가사는 시구를 편이어 반복해줌으로써 시
의 사상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있으며 시형상을
더욱 절절하게 하고있다.

가사에서는 또한 반복의 수법과 함께 도움토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작품의 사상정서를 더욱 힘있
게 강조하고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그이 없인 못살아》를 《그이
없이 못살아》로 했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작
가는 굳이 도움토 《는》을 써서 자기의 심정을 절
절히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셔야 우리도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적강조를 위하여 작품에서는 다
른것보다 어느 한가지를 특별히 짚어서 더 강조하
는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의 기능을 윤택게 살려쓴것
이다.

그렇듯 절절하고 열화마냥 뜨거운 시형상!

그것은 시인 한사람의 시형상의 기교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 인민모두의 사상정서
를 그대로 담았기에 그렇듯 절절한 감정세계를 펼
쳤다고 본다.

결음마다, 시각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흙모
와 신뢰의 정으로 심장들을 더욱 뚫게 하고 경애하
는 그이만을 받들어 세상 끝까지 가고갈 불타는 맹
세 더욱 굳게 하는 가사 《그이 없인 못살아》는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으로 뭉쳐 백두산대국의 승리
를 떨쳐가는 힘찬 진군길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
지고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상 식

유엔이 새로 정한 문맹자기준

유엔이 새 세기의 문맹자들을 3부류로 나
누었다고 한다. 즉 1부류는 글을 모르는 사
람, 2부류는 현대사회의 부호(지도, 곡선도
등)를 식별할줄 모르는 사람, 3부류는 콤퓨
터를 리용하여 학습, 교류, 관리를 할줄 모
르는 사람들이다.

1부류의 문맹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맹자들이며 2부류와 3부류의 문맹자들은
《기능형문맹자》로 다시말하여 교육은 받
았지만 과학기술상식측면에서는 문맹자와 같
은것이다.

사상전의 포문을 열고 시대적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고 철 훈

오늘 우리는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천만 국민이 돌격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리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조선문학》잡지발행 800호를 맞이하게 된다.

백두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며 강도 일제를 무찌르시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35(1946)년 7월 《조선문학》잡지의 전신인 《문화전선》창간호를 받아보시고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문학잡지를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하시면서 잡지편집과 발행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잡지는 내용이 풍부하게 글을 잘 쓰고 편집을 다양하게 해야 독자들의 환영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문화전선》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당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려 주는데 중점을 두고 편집을 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아래서 800호의 발행을 자랑하는 《조선문학》잡지는 승리만을 새겨온 우리 당의 력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다.

잡지의 갈피를 펼치느라 지금도 해방의 환희와 격정을 터치며 민족의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고 새 민주건설로 들끓던 조선로동계급의 우렁찬 마치소리와 장군님 주신 땅에서 발같이하는 농민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고 포연자욱한 전호숙에서 화약내 끄슬린 잡지를 펼쳐보며 승리의 맹세를 다지던 병사들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다.

어찌 그뿐이라. 전후복구건설의 힘찬 동음속에서 우람차게 일떠선 황철의 용광로, 천리마의 기상이 나래친 강선의 붉은 노을이 눈앞에 안겨오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친애하는 그이로 높이 모시고 친위대, 돌격대로 살며 열정의 밤을 패던 작가, 예술인들의 모습도 어려온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노래 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조선문학》잡지야말로 우리 문학이 걸어온 자랑스런 력사이다.

창간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주옥같은 작품들은 주체조선의 문학사를 빛내였으며 조선의 작가들은 잡지와 함께 성장하고 자기 이름을 문학사에 새기었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천리마시대를 대표하는 단편소설들인 《〈해주—하성〉서 온 편지》(김병훈), 《길동무들》(김병훈), 《백일홍》(권정웅), 《당원》(김복향), 《애착》(최창학), 《행복》(석윤기), 《령북땅》(리병수),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진재환) 등을 잊지 못해한다. 천리마의 시대정신이 나래치고 천리마시대사람들의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그린 이 소설들은 지난 세기 60년대에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되었다.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가 높이 울리던 1970년대에도 잡지에는 단편소설 《자기 위치 앞으로!》(엄단웅)와 같은 박력있는 작품이 올라 인민들을 투쟁으로 고무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사상예술적으로 감동깊이 형상한 단편소설들인 《력사의 자취》(권정웅), 《눈석이》(석윤기), 《철의 력사》(변희근) 등이 《조선문학》잡지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뒤를 이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들인 《고요》(리종렬), 《조선시간》(성혜량), 《새벽산보》(김문창), 《붉은 눈보라》(리희남)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그린 단편소설들인 《우리의 계승》(윤정길), 《감사》(윤경찬), 《12월의 그이》(황용남) 등이 잡지에 실림으로써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조국에 대한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 《나의 조국》(김상오)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한 서정시 《어머니》

(김철)도 《조선문학》잡지에 실려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실로 《조선문학》잡지야말로 우리 문학의 얼굴이며 주체조선의 문학사를 풍부히 하고 빛내이는 마름줄 모르는 샘줄기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힘있는 사상선전수단으로 복무하여온 《조선문학》잡지와 함께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들을 투쟁과 승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담겨져있는 붉은기정신과 고난의 행군정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혁명적인생관을 철저히 구현한 작품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 고전적정식화는 주체의 사상론에 기초하여 명작의 본질과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를 밝힌 위대한 명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그 위력한 무기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실 확고한 결심밑에 우리 작가들을 명작창작전투에 불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문학예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혁명적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추동력입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와 들끓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상예술성이 높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 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사상예술성이 높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의 명작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시대의 명작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견결히 고수하여오신 붉은기정신, 다시말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되어있고 일심단결의 신념과 자력갱생,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가 담겨져있는 작품, 하여 원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

싸일을 말한다.

지난 시기 한편의 혁명적인 시나 명곡이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였다면 오늘의 명작은 미싸일을 대신한다.

새 세기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명작은 사상정서적감화력에 있어서 지난날의 작품들보다 더 위력하여야 한다.

시대의 명작, 사상의 미싸일은 소리만이 요란한 재래식무기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담겨져있고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침단무기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어 피끓는 심장으로 군대와 인민들에게 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혁명적타관을 안겨주는 시대적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명작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창조와 활동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주체문학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으며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찬란히 개화발전할수 있다. 당의 유일적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이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곧 수령의 령도체계이다. 오늘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운다는것은 곧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체계를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인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간직하고 그이의 유일적령도만을 받드는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지니고 선군시대 주체문학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가야 한다.

명작창작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에 충실하려면 우리의 작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정통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포착하고 가슴에 새길 줄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는 곧 시대의 요구, 인민의 요구이며 지향이다. 작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학을 창작실천의 선차적요구로 내세우고 깊이 있게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문제를 종자로 선정하고 창작에 구현함으로써 당이 바

라고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가치있는 명작을 창작하여야 한다.

명작창작전투를 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작가들의 붓대를 사회주의수호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는데로 지향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리상이며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 나가는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공세는 더욱 우심해지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달려있다.

우리의 작가들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꺼지지 않는 화불이 되고 우렁찬 나팔이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작가들은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시와 가사에 담아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하며 소설에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본은 사회주의의 본태에 맞게 생활을 아름답게 그리는것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가들속에서는 현실주제작품을 창작하면서 생활의 자질구레한 문제를 가지고 창작하려 하거나 거기에서 숨씨를 보이려는 경향이 있다. 생활의 본질을 가려보지 않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나 이지러진 성격에 흥미를 가지고 그런것을 그리는데만 신경을 쓴다면 사회주의본태를 잃게 되며 아무리 재간을 피워도 당이 바라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생활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하려면 작가들 자신이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현실공정의 감정을 지녀야 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지니지 못한 작가가 애국주의작품을 창작할수 없듯이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긍정의 감정을 지니지 못한 작가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을 아름답게 그릴수 없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속에 사회주의본태가 살아있으며 그 생활속에 묻혀있는 인간의 아름다운 세계를 독창적으로 발견할줄 아는 작가만이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그린다고 해서 생활을 미화분식하거나 자화자찬하여서는 안된다. 생활을 미화분식하는것은 주제사실주의창작방법과 어긋나며 생활에 있지도 않는 비진실한 형상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불만을 자아내는 역작용을 가져올뿐이다.

미화분식과 함께 자화자찬도 금물이다. 오늘 우리는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전장에서뿐만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와의 보이지 않는 대결과 경쟁을 치렬하게 벌리고있다. 투쟁과 변혁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이미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자화자찬하면서 사회주의가 좋다는 식으로만 노래한다면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라태하게 만들고 투쟁하기 싫어하는 무골충으로 만들어버린다.

작가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작품에 그리면서 사람들속에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줄뿐아니라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도자적역할을 놀아야 한다. 하여 사회주의 내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명작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 이룩되고있는 약동하는 시대의 거세찬 숨결을 작품에 잘 반영하는것이다.

문학은 시대의 산물이며 격변하는 시대가 명작을 낳는다.

오늘 우리는 력사에 류례없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대한 력사적전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영웅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오늘의 벽찬 현실은 그대로 시와 노래이며 위대한 서사시이다.

지난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서 군인건설자들은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하여 마식령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렸고 올해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성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작가들은 이러한 약동하는 현실속에 뛰어들어가 시대의 거세찬 숨결과 시대정신을 작품창작에 구현하여야 한다.

작품의 종자도 현실속에 있고 소재도 현실속에 있으며 세부도 현실속에 있다. 들끓는 현실이야말로

《조선문학》잡지에 남긴 추억의 목소리

《문학은 사람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다. 사람은 혁명적인 문학을 통하여 생활을 더 잘 알게 되고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배우게 되며 세계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된다.》

김 정 일

《조선문학》잡지는 우리 문학의 얼굴이고 척도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이 잡지의 창간과 더불어 우리 문학의 새로운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해방된 우리 나라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이정표를 따라 계속 줄기차게 발전해왔기때문이다.

《문화전선》으로부터 《문학예술》로 그리고 《조선문학》으로 이름을 바꾸며 오늘에 이르는 이 잡지의 발행로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업적과 끝없는 믿음과 사랑의 력사가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속에 창간된 《문화전선》잡지!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자기의 첫 폐지에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싣고 세상에 출현한 《문화전선》잡지!

...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의 사명감을 뜨겁게 간직하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한

《조선문학》잡지는 계속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대의 명작들로 장식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문학》잡지는 우리의 주체문학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김 병 훈

《조선문학》잡지!

참으로 《조선문학》잡지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도록 해주신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체문학이 걸어온 길의 광휘로운 력사가 다 담겨져있으며 대와 대를 이으며 새로운 발전의 길로 계주해온 하나의 큰 문학저수지라고 말할수 있다.

이 저수지를 이룬 수백수천의 시내물들은 우리 작가들이 걸음도 많이 걷고 땀도 많이 흘리며 시대와 인간에 대하여 사색하고 그 많은 밤들을 밝히며 짜내고짜낸 심혈의 시내물이며 때문에 이 저수지의 물은 푸른빛이 아니라 붉고 무겁다.

...

시문단이며 소설문단의 많은 우수한 작가들은 우리에게 창작의 계주봉을 넘겨주고갔지만 《조선문학》이라는 문학의 저수지안에서 지금도 끝없이 문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있다.

이 거대한 문학저수지야말로 기쁨도 있고 웃음도

로 창작의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터전이다.

작가들은 취재배낭을 메고 현실속에 들어가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양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시대의 숨결을 작품에 담아야 하며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피끓는 심장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하여 전인민적인 집단적혁신운동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전환의 1970년대처럼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

의 진공나팔소리가 온 나라에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한다.

당사상전선의 투사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병들인 우리의 작가들은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 명작풍년을 안아옴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있고 고무와 질책도 있고 성공과 실패도 있는 우리 문단의 얼굴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 영 재

《조선문학》잡지는 처음에 《문화전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창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체 조선의 문단을 대표하는 기동잡지로서의 중추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독자대중을 주체시대의 영웅들로 키워내고 또한 많은 문학청년들을 작가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된다.

...

나는 천리마운동시기에 다행스럽게도 문학작품들을 다루는 편집생활을 하게 되고 더우기 《조선문학》편집부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이 문단지가 대중교양과 문학운동상에서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천리마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조선문학》잡지에는 단편소설들인 《백일홍》, 《길동무들》, 《해주-하성서 온 편지》, 《령북땅》,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 등등의 단편소설들과 장편연재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비롯하여 천리마시대의 인간전형들을 그리고 노래한 수많은 산문, 운문, 극작품들이 련속 실려나가 커다란 사회적파문을 일으켰다.

한번은 평안북도 어느 한 산골군에 출장갔다가 그곳 양어장의 이름난 혁신자를 만난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조선문학》잡지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양어공이 될 결심을 하였노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때처럼 《조선문학》의 편집원으로 일하는 궁지와 보람을 느낀적이 없다.

나는 《조선문학》잡지를 통하여 독자대중앞에 나선 석개울의 창혁이가 구체적으로 몇명의 제2의 창혁이들을 길러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조선문학》잡지를 통하여 독자대중앞에 나선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이 술한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을 키워낸 본보기인간들로 되였다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오늘날 《조선문학》잡지는 선군시대의 인간전형들을 창조하고 선군시대를 노래하는 작품들을 독자대중앞에 내보내어 그들을 선군시대의 영웅들로 교양,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최 학 수

수 기

깊은 산 무성한 숲

정 기 중

나는 오늘 우리 작가들의 가장 미더운 벗이며 우리들의 자랑이며 기쁨인 《조선문학》잡지에 지금까지 실린 수많은 소설과 시, 극문학과 평론 등 여러 종류의 작품들을 하나하나의 크고작은 나무와 무성한 숲에 비기여 말하고싶다.

《조선문학》잡지가 이루어놓은 깊은 산과 무성한 숲, 그것은 절로 생겨나지 않았다. 처음엔 몇십 그루의 나무를 심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 이후 오랜 세월을 두고 거기에 쏟아부은 수많은 작가들의 사랑과 꿈과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숲은 내가 첫걸음마를 떼고있을 때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조선문학》잡지가 첫출발을 한 그 기슭에 맨처음 삽을 박은 작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나무들을 얼마나 심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짐작할수는 있다. 키를 솟구어 바라보면

아득한 저 멀리 그 첫 기슭에 지금도 우듬지를 활짝 펼치고 서있는 갖가지 나무들이 바로 그날의 작가들이 써낸 작품들이다. 그 나무들마다 자기 주인의 이름을 적은 폐쪽이 걸려있다. 아름답기로송도 있고 미출한 잣나무, 이깔나무들과 하얀 옷을 줄라입은 몸매날씬한 봇나무들도 있다. 산기슭에는 갖가지 떨기나무숲과 나란히 은행나무, 개암나무, 오동나무, 지어 크고작은 아름다운 꽃들도 눈길을 잡아끈다.

세월이 가면서 산은 깊어지고 숲은 무성해졌다. 잡지가 창간된 때로부터 이제는 800호에 이르렀으니 그 매 호가 차지하는 숲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는것이 옳을까? 아니, 그것은 누구도 계산할수가 없을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숲속에서 내가 처음 맞닥들였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작품은 단편소설인 《축복》(석윤기)이었던것 같다. 그리고 천세봉선

생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런재호들을 정신 없이 찾아있던것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부터 나는 이 숲속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살이 뒤지며 맞다드는 족족 닦치는대로 읽고 생각하고 꿈을 꾸었다.

총천 병사로서 군사복무를 할 때에도 나는 이 숲과 한시도 떨어져있지 않았다. 이후 내가 인민군출판물들에 자기 이름이 찍힌 단편소설들을 발표할 때에도 이 숲은 줄곧 희망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 시절 《조선문학》잡지를 통하여 나에게 작가의 꿈을 키워주고 자기가 걸어갈 인생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게 해준 잊지 못할 작품들로는 《행복》(석윤기), 《령복방》(리병수),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진재환), 《백일홍》(권정웅), 《길동무들》(김병훈), 《정보로 걸어라》(정창운), 《해빛을 안고온 청년》(리종렬), 《자기 위치 앞으로!》(엄단웅), 《해빛밝은 나라》(최학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들수 있다. (소설이외의 작품들은 빼놓지 않기로 한다.)

큰 산에 큰 숲이 우거지고 큰 메아리가 울리는 법이다. 그 산의 큰 메아리가 줄곧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왜 꿈만 꾸는가? 왜 여기 와서 자기의 나무를 심고 키를 대보지 않는가?》

그렇다, 나는 너무 오래 꿈만 꾸고있었다. 동갑나이의 작가들이 《조선문학》잡지의 숲속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패쪽들을 몇개씩 걸고 서있을 때에도 나는 그저 선망의 눈길로 하염없이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왜 생각만 하는가? 왜 실험해보지 않는가?》

파학사에 남은 한 유명한 해부학자의 말이다. 그 말과 무성한 숲의 부름은 꼭같은것이였다.

하여 나는 용기를 내여 이 숲의 한 귀퉁이에 애 어린 나무모 하나를 심게 되였다. 그것이 별로 이름없는 단편소설 《교두보에서》이다. 거기엔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나의 이름 석자가 찍힌 패쪽도 얹전히 걸려있었다.

그 패쪽이 오래전부터 이 숲을 가꿔온 주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 작가(김원중)가 회의연단에 나가 토론하면서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생면부지의 작가(군복입은 작가라는데)가 쓴 단편소설 《교두보에서》를 아주 흥미있게 읽었다는것, 그런데 어느 한 세부때문에 작품의 격이 떨어졌노

라고, 이 교훈을 단단히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말은 점잖았지만 사실 그것은 호된 질책이었다.

그때 나는 매를 맞는 아픔보다도 나의 작품이 물망에 오르는것이 더 기뻐다.

아니, 지금도 나는 만장앞에서 첫 매질을 해준 그 작가를 고맙게 생각한다.

보잘나위없는 작품이라면 매를 들지도 않았을것이다. 몇줄 읽다가 벌벌떨게 폐지를 넘기고말았을것이니 매를 들어야 할 리유도 없다. 그런데 그 작가는 회의연단에 나가서까지 그 작품을 떼들었다. 결과는 많은 선배작가들과 동료작가들이 나에게 대하여 관심하게 만들었다. 저저마끔 호기심을 가지고 묻기 시작했다. 그 작가의 이름이 정 뭐이랴구? 도대체 어느 별나라에서 온 어떤 생둥이랴구?...

그다음 단편소설 《행진곡1번》이 《조선문학》잡지에 나갔을 때에도 한 작가(김삼복)가 작가동맹 회의연단에서 토론하면서 그 작품을 분석평가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왜서인지 출판물에 실리는 평론가들의 작품평들보다 소설가들이 직접 나서서 분석평가하는것이 더 반갑고 더 오래 기억에 남는것은 무슨 까닭일까?...

흔히 평론가들은 작품의 우단점을 평가하나 소설가들은 그저 소감을 말한다. 전자들은 판결을 내리고 후자들은 경험을 나눈다. 그래서일가?...

이렇듯 《조선문학》잡지는 전국의 작가들이 매달 회합하는 문학운동의 축전무대이기도 하다. 소설과 시, 극문학, 아동문학작품들에 대한 평론, 단상, 수기, 작가연단 등... 매달 열띤 토론들이 벌어진다. 비평뿐아니라 호평도 적지 않다. 그 비평 혹은 호평들에 대한 맹렬한 반론도 계속된다. 경험이론의되고 교훈이 분석된다.

언제인가 시인 김철이 《조선문학》잡지에 우산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의 여러 작가, 시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추억하는 수기를 발표한적이 있다. 그 글에서 시인은 어느 한 대목에 느닷없이 여기 우산장에서 군복입은 작가 정기종이 장편소설 무엇을 어떻게 썼노라고 회상하였다. 나에게 해서 쓴 글은 아주 짧은, 단 몇줄로 된것이였지만 그것이 나에게 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유명한 시인의 추억속에 아직은 첫 출발선에 나선데 불과한

나의 이름도 새겨져있는것이 그리도 기뻐던것이다. 그것은 《조선문학》잡지가 나에게 준 고무격려와 지지의 한례증이다.

그뿐아니라 앞에서 말한 단편소설 《행진곡1번》은 나의 작가적운명전환에 일정한 작용을 하는 계기로까지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내가 4.15문학창작단 작가로 임명되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석유키단장이 나와 담화하는 기회에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동문 지금까지 자기가 쓴 작품들중에서 어느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오?》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갑자르기만 했다. 몇해전에 장편소설 《태백산줄기》가 나갔으므로 그것을 말하는것이 옳을상싶었다. 아무튼 장편소설이 아닌가. 그것도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그때 그는 마치 나의 마음속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웃으며 말하였다.

《단편중에서 말이요.》

그제서야 나는 별로 생각지 않고 《사랑과 위훈》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음, 그렇게 말할줄 알았소. 하지만 난 언젠가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 〈행진곡1번〉이 더 인상깊더구만. 하나의 작은 단편에 장편소설과 맞먹는 큰 사상을 담은게 마음에 들었소. 그걸 읽고나서 난 생각했지. 이 친구는 총서를 쓸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요.》

이렇듯 《조선문학》잡지는 수많은 작가들을 발견하고 채찍질하고 고무를 주는가 하면 그들 신진작가들의 앞날을 보증하고 축복해주기도 하였다. 나는 지금도 작가 한웅빈이 언젠가 단편소설 《금수강산을 수놓는 처녀》를 《조선문학》잡지에 발표하고 너무 흥분하여 나에게 써보낸 편지의 한구절을 그대로 기억한다.

《...자네도 읽어보았지? 인제는 〈조선문학〉잡지가 나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준셈일세. 드디어 오랜 세월 꿈꾸어오던것이 실현되었네. 만세!》

얼마후 그는 자기에게 대문을 열어준 《조선문학》잡지에 단편소설 《희망은 실현되었다》를 발표하였다. 둘이라는 한 소년의 꿈과 모험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꿈, 한생의 숙망이 실현되기까지의 갖가지 고충과 모지름을 그린 일대 기쁨과 감격의 서정시였다.

인제는 거의 모든 작가들이 《조선문학》잡지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있다. 그 뿌리는 조국의 대지에 현실속깊이 파고들며 헤아릴수없이 많은 영양소를 빨아들여 줄기에 보낸다. 그리하여 나날이 나무는 자라고 또 자라 거목이 된다. 이것이 바로 뿌리의 힘이다.

지난 시기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몇편의 단편소설들만이라도 다시 상기해보자.

《척후병》(리동구), 《언제나 그날에》(안동춘), 《수풍호반사람들》(김삼복), 《생명》(백남룡), 《열일곱사람의 웃음》(김정), 《천암산》(백보흠), 《상봉》(남대현), 《왜가리떼 날아들 때》(김영희), 《타격》(박운) 등...

후날 이들이 발표한 무거운 총서형식의 수령형 장편소설들은 모두가 《조선문학》잡지에 뿌리를 둔 생동하고 박력있는 단편소설들에서 자라난 거목들이라고 할수 있다.

그외에도 많은 신진작가들이 지금 인상깊은 단편소설들로 《조선문학》잡지를 이채롭게 장식하고있으며 생명력있는 역센 뿌리를 통하여 거목으로 자라고있다. 그들은 수도에도 있고 전국각지 공장과 농촌, 건설장들에도 있다. 그들중에는 새로운 현대적문체와 새로운 문제성을 들고나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 녀류작가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생동한 시와 가사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녀류시인들도 있다.

이렇듯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조선문학》잡지의 깊은 산에서는 골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나날이 더 높아지고 무성한 숲속에서는 우듬지를 활짝 편 나무들마다에서 온갖 새들이 날아며며 복받은 삶을 지저귀고있다.

나는 생각해본다. 우리 《조선문학》잡지의 900호, 1000호가 편집될 때에는 어떤 주인공들이 자랑스러운 이 숲을 가꾸며 어제와 오늘을 추억하게 될가? 그들은 또 이 800호의 주인공들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작품에 대하여 어떻게 분석하며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가?...

믿고싶다. 아니, 믿어야 한다. 이제 그들이 《조선문학》잡지 800호를 전후한 시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선군혁명문학의 무성한 숲을 가꾼 오늘의 우리 작가들을 사랑과 존경을 담아 추억하게 되리라는 것을!...

수 기

인연, 사랑, 《조선문학》잡지

백 명 길

아직은 철없던 중학시절, 파란 뚜껑의 《조선문학》잡지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나는 국어선생님에게 물었던적이 있다.

《선생님! 〈조선문학〉은 어떤 잡지입니까?》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우리에게 국어를 가르치던 녀교원은 남달리 글짓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조선문학〉은 한마디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잡지예요. 월간으로 나오는 이 잡지엔 우리 나라 작가들이 창작한 우수한 작품을 실어준답니다. 학생이 글짓기공부를 잘하면 이다음 커서 작가도 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선문학〉잡지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작품을 실을수 있단 말이에요.》

국어선생님의 이야기는 나의 작은 가슴을 세차게 울렁이게 했다.

(나도 작가가 되어 꼭 이 잡지에 내 이름이 새겨진 작품을 실어보겠어.)

그때로부터 세월은 살같이 흘러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해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창작과(당시)에 입학하여 문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드디어 나의 꿈이 바야흐로 실현되어가는 배움의 나날이 시작된것이다.

정말 꿈만 같았다. 정말 행복하였다.

작가가 되어 《조선문학》잡지에 작품을 실어보려던 나의 소시적 꿈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너무도 이르게 성취되었다.

그때 나는 졸업작품으로 단편소설 《어머니는 광부였다》를 창작하였었다. 작품변론에 참가하였던 창작지도일군들은 작가적인 싹을 발견한 기쁨을 숨기지 못하며 작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었고 결과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변론에 통과하게 되었다.

변론장을 나서는 걸음으로 나는 어깨가 으쓱해져 《조선문학》편집부를 찾아갔다.

나의 소설을 받아본 편집원선생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바라보며 나이는 몇이고 어떤 작품을 어느 출판물에 발표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나이를 묻는 편집원의 물음에 27살이라고 담차게 대답할수 있었으나 어떤 작품을 어느 출판물에 발표하였는가 하는 물음에는 입이 떡 굳어지고말았다. 작가들도 저어하는 《조선문학》의 문턱을 너무도 쉽게 성큼 넘어섰다는 자책감이 머리를 쳤던 것이다.

나의 속마음을 죄다 엿본듯 편집원선생은 빙긋이 웃으며 나에게 자리를 권하면서 물었다.

《백동무의 고향이 광산마을인데구만.》

《예. 이 소설에 소개된 성천광산이 저의 고향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김보배녀성은 전후에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대신하여 막장에 들어가 착암기를 잡고 굴을 뚫은 우리 나라의 첫 녀 성공훈광부였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난 그는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감정을 소설에 잘 반영했다고 과분한 평가를 내려주며 소설에 내포된 결점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해주었다.

그후 나는 편집원이 의견을 주는대로 작품을 수정하여 몇번이고 편집부에 걸음을 걸었다. 이 과정에 소설은 가을별에 익어가는 황금나락처럼 여물어졌으며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조선문학》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그때 내 이름 석자가 찍혀진 《조선문학》잡지를 받아보았을 때 맛보았던 기쁨과 희열의 감정은 아직도 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혀있다.

나는 운수가 좋은 사람이였다. 《조선문학》에 실린 나의 소설은 창작지도일군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대학졸업후 그렇듯 소망하였던 작가대렬에 드디어 서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문학》잡지와 나는 첫 인연을 맺었다. 그 첫 인연이 맺어진 이후 다른 많은 작가들과 함께 《조선문학》잡지와 뉴대는 날이 갈수록 튼튼해졌다.

나는 이 글에서 지금은 우리결을 떠나간 잊지 못할 편집원에 대하여 꼭 이야기하고싶다.

때이르게 싹튼 씨앗은 눈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마련이다.

한때 나에게서는 창작에서의 진통을 이기지 못하고 일시나마 작가대렬에서 떨어져나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정작 작가대렬에서 떨어져나가고보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나날이 더해지는 정신적허탈감으로 하여 나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해 가을.

나는 내가 일하던 기업소의 부업발로 이동작업을 나가게 되었다.

산천은 황금빛으로 풍만하게 익어갔지만 나의 가

숨은 이삭을 땀다만 쪽정이강냉이이삭처럼 쭈그러들기만 했다. 인적도 없고 인가도 멀리 떨어진 한적한 강냉이밭에서 하는 일이란 밤이면 메뚜기를 쫓느라 낫양푼을 맥없이 두드리는 맹랑한 일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가을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한산한 늦은 저녁 오솔길로 허위허위 올라오고있는 사람의 모습이 문득 띄었다.

가까와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다름 아닌 《조선문학》잡지편집원이었던것이다.

너무도 반가와 나는 그만 그의 손을 와락 잡고는 물까지 흘렸다.

한참이나 상봉의 기쁨으로 가슴을 달구던 나는 이런 곳은 날에 시내에서 백리나 떨어진 이런 외진 곳으로 어떻게 찾아왔는가 놀라움을 안고 물었다.

《편집원이 작가를 찾아왔는데 놀랄게 있소?》

그의 말에 나는 그만 화석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는 분명 나를 작가라고 불러주었던것이다.

나는 무겁게 머리를 떨구었다.

편집원은 가방에서 소설원고를 꺼내놓으며 말했다.

《그전에 동무가 제출했던 단편소설원고요. 함께 토론해봅시다.》

그날 밤 나와 편집원은 손전지를 켜놓고 밤새도록 작품토론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큰 손을 높이 쳐들어보이고 떠났다.

그렇게 태어난 작품이 바로 단편소설 《술에 깃든 녀》이며 그해에 나는 그 작품에 수여된 《조선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로독을 풀새없이 마주앉아 다 식어가던 나의 가슴에 문학열기를 부어주던 그 편집원의 열정적인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그후 나는 그런 고마운 편집원들과 함께 《이 땅의 아들》, 《전우의 고향》, 《세월은 흘러도》를 비롯한 여러편의 소설작품들을 《조선문학》잡지에 발표하게 되었으며 그 나날에 다시 작가대렬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듯 작가들의 창작의 길에 바쳐진 《조선문학》잡지편집부의 수고가 바로 800호의 년륜을 새긴 때 잡지들에 력력히 어려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며칠전에도 작가들이 짧은 형식의 단편소설들을 많이 창작하여 《조선문학》잡지에 발표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다시 학습하였다. 정말이지 로작의 굴절을 새길수록 《조선문학》잡지에 바쳐진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또 한분의 걸출한 문학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주체문학의 새로운 대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가도 우리들의 사명과 본분은 변함이 없다.

나는 이 글을 마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안은 사상일군된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더 높은 창작목표를 내세우고 힘껏 노력하여 지금 창작하고있는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을 시대를 선도하고 독자들의 기대대로 읽히우는 작품으로 창작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수 기

나의 벗

리 라 순

우리 문단의 력사와 함께 걸어온 《조선문학》잡지가 오늘은 800호에 이르렀다. 《조선문학》을 교과서로, 교두보로 삼고 문단을 빛내인 존경하는 스승들과 선배작가들 그리고 동료작가들...

이들처럼 나 역시 《조선문학》잡지를 통하여 성장한 작가이다.

가슴이 젖어든다. 《조선문학》잡지에 처음 발표한 수필 《창조와 우리 생활》!... 수필은 자강도에 있는 시집을 다녀온 평양새각시가 자기 힘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나가는 자강도사람들의 투쟁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이야기한것인데 별로 품을 들이지 않고 발표되었었다.

마음이 부풀어올랐다. 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수필이 실린 《조선문학》잡지를 펼치고 활자로 찍혀나온 글을 보고 또 보았다. 몇번째 다시 읽었지만 싫은줄 몰랐다. 《조선문학》잡지의 한페이지에 나의 자그마한 글도 들어있다는것이 그렇게도 기쁘고 환희로왔던것이다.

그런데 나를 찾아온 아동문학분과의 젊은 작가가 말하는것이였다.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수필을 봤소. 처음치고 그만하면 팬찮더구만. 헌데 기행문으로 나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나보다 서너살이

상이지만 그는 벌써 높은 창작실력과 리론으로 하여 문단에 이름이 쟁쟁한 작가였다. 그런 실력있는 작가의 의견이었으니...

후에야 나는 그 수필이 자기의 체모를 갖추지 못한 어설픈 예술산문이었다는것을, 그것이 출판되게 된것은 신인작가가 체험한 진실한 감정을 귀중히 여겨준 《조선문학》잡지편집부의 너그러움이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문학》잡지에 작품을 낸다는것은 엄격한 문단의 심사에 나서는것이라는것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 수필을 지금도 귀중히 여긴다. 왜냐면 김형직사범대학 작가양성반을 졸업하고 작가동맹에 배치받은 내가 처음으로 《조선문학》잡지에 찍은 소박한 자욱이기때문이다.

다음부터는 《조선문학》잡지에 작품을 내는것이 조심스러워졌다.

두번째로 단편소설 《들국화》를 써가지고 편집부로 갔으나 처음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편집원들의 요구성이 높았던것이다. 애써 노력했으나 따를수 없었다. 수정작업으로 몇달 끝낸 작품은 종내 《조선문학》잡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른 출판물에 실리고말았다.

나는 그때야야 《조선문학》잡지에는 문학의 높이와 격이 보장된 문학작품들만이 발표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후 단편소설 《행복의 무게》원고를 들고 《조선문학》잡지 편집부를 찾아가했을 때였다.

출판사에서 오래동안 일하고있는 나이많은 편집원이 물었다.

《전번에 의견을 준대로 고쳤소? 이번엔 명작으로 만들어왔겠지?》

벌써 원고를 들고 여러번 편집부에 출입한 나였다. 그래서 편집원도 소설원고를 이미 파악하고있었던것이다.

대답을 못하고있는 나에게 그는 원고를 놓고가라고 했다. 창작실에 돌아와 이제나저체나 소식을 기다리는데 편집부에서는 감감무소식이였다. 기다리다못해 편집부로 떠났다.

선교네거리에 있는 건늬다리에 올라섰을 때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찾아가고있는 편집원이 앞으로 마주오고있었던것이다.

나를 보자 그는 떠날 때 전화를 하고 올걸 그랬다고 걱정해주었다. 묻지 않아도 원고때문에 오는 길이라는것을 넘겨짚었던것이다.

편집원은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 나에게 딱한 표정을 지었다.

《원고를 다시 읽긴 했는데... 뭐라구 설명해야 할지?》

심중에 무엇인가 쿵! 무너지는듯 했다.

편집원은 될수록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설명했다.

《좋은게 많소. 감각적이라든가 분석적이라든가... 현대 소설이 안됐거든. 어떻게 해야 살리겠는지?...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가면서도 원고를 들고가던중이요.》

그제서야 나는 그가 병원으로 가고있다는것을, 치료받으러 가면서도 나의 원고를 가지고간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실망한 나를 두고 안타까와하던 편집원은 자기가 불편한 몸이라는것도 잊고 손에 든 원고를 펼쳐들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건늬다리란간에 기대어 작품토론에 열중했다.

의견은 많이도 쏟아져나왔다. 작품이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것인지 모르겠다, 지루한 심리묘사, 끝없이 계속되는 주정토로, 지면을 짝 채운 과학기술적문제...

나는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니 인젠... 기각이군요.》

눈물이 고여올랐다. 밤을 새며 우산장에서, 창작실에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온갖을 부어온 원고였던것이다.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던 편집원이 동정어린 목소리로 권고했다.

《처음원고를 버리고 다시 쓰는게 어떻겠는지?...》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것도 모르고 쿵쾅거리며 돌아섰다. 보풀이 인 원고를 들고 창작실에 돌아와 그대로 덮어두고말았다. 하지만 편집원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원고를 재촉하고 세부를 토론해주고 새로 찾은것을 알려주기도 했다.

용기를 얻은 나는 편집원의 요구대로 원고를 버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새로 완성한 원고를 보고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편집원이였다.

《됐소! 인젠 내기요.》

단편소설 《행복의 무게》는 이렇게 《조선문학》잡지에 실리였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웠다. 소설의 생리와 감정조직, 구성과 성격형상 등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함께 작품을 위해 사심없는 방조를 준 동료작가들의 아름다운 동지적우애와 작품의 완성을 위해 진심으로 애써준 편집원들의 숨은 노력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었다.

이제는 《조선문학》잡지편집부로 가는것이 두려워졌다.

그동안 《조선문학》잡지에는 수령형상단편소설인 《문수봉기슭에서》, 《샘은 깊은 곳에서 솟는

다》, 전국문학축전상을 받은 실화문학 《보금자리》 등 여러편의 단편소설들이 실리었다. 하지만 《조선문학》잡지가 작가로서 나를 도약시켜준것은 말쑥났던 단편소설 《내 사랑 저 하늘》이었다.

작품은 어느 한 처녀연구사가 화력발전소의 굴뚝에 설치한 제진장치에서 허용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하는 이야기였는데 편집부에 간 첫날부터 말쑥이었다. 그때 《조선문학》잡지를 판여하던 출판사의 한 일군이 작품초고를 보고 웬일인지 접수할수 없다고 하는것이였다. 이러저러하게 리유는 많았다. 나는 물러설수 없었다. 지금까지 여러 작품을 냈지만 이 단편이야말로 작가로서 나의 얼굴을 보여줄 작품이었기때문이었다.

또다시 작품완성을 위해 편집원과 함께 힘겨운 길에 나섰다. 이마를 맞대고 토론했다. 주제, 종자, 세부, 어휘표현... 벌써 여러번이나 원고가 수정되고 전화가 불같이 오고갔으며 자료를 확인하고 따져보았다. 편집원은 한때 자기도 제진장치연구에 대한 단편소설을 쓰려고 했던적이 있었다고 하며 그때 수집했던 자료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기도 했다. 하여 작품이 《조선문학》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소설이 시대에 뒤떨어진 제진장치연구를 작품에 취급했다는것과 작품의 정책적대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평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때 《조선문학》잡지편집원이 작품을 옹호하여나섰다. 발전하는 시대와 함께 과학기술도 부단히 갱신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지난 세기의 60년대에 설치한 제진장치를 21세기인 오늘 새롭게 개조하고 혁신하는것은 웅대한 일이다, 이런 시대정신과 조국의 하늘을 이전보다 더 맑고 푸르게 하려는 꿈을 지닌 한 처녀연구사가 낡은 제진장치를 개조하여 작은 허용오차까지도 없애려는것이 왜 사회주의본태에 어긋나는가 하고... 그러면서도 고충은 컸다.

이름없는 소설가와 편집원의 고충을 헤아리기도 한듯 바로 그때 애국주의의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환경보호사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2005.7.2, 12.23)를 발표하시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보호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는 것과 환경보호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의 생존과 활동에 더욱 유리한 자연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라고 밝혀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화력발전

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먼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결국 단편소설 《내 사랑 저 하늘》은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을 통하여 나는 당의 사상과 의도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수한 작가가 그것을 제때에 작품에 반영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새기게 되었다.

이렇게 도약했다. 비록 작품이 과학기술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고 문학적으로 결점도 있지만 그리고 가장 혹독한 비평으로 하여 아프고 피로왔지만 나는 지금도 성과작을 꼽을 때면 맨 먼저 단편소설 《내 사랑 저 하늘》을 앞에 놓곤 한다.

때로는 환희와 기쁨으로, 혹은 절망과 고민으로 강의한 문학정신과 의지를 버리어주고 남다른 지혜와 재능을 키워준 《조선문학》잡지... 참으로 잡지는 나를 작가로 키워준 문단의 교두보였으며 나의 벗이었으며 사랑이었다.

《조선문학》잡지는 그후에도 전국문학축전상을 받은 수령형상단편소설 《집》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실어 문단의 한복판으로 나의 등을 떠밀어주었다. 《조선문학》잡지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나의 문학도 자랐다. 하여 이제는 녀성작가로서 장편소설 《사랑하시라》와 전국문학축전상을 받은 장편소설 《은하수 흐른다》를 내놓기도 했다.

오늘 《조선문학》잡지 800호를 맞으며 나는 잡지만이 아니라 수고많은 편집원들도 감회깊이 돌이켜 본다. 함께 고민하고 애써준 잊지 못할 편집원들... 작품이 좋으면 작가의 이름은 알려지지만 편집원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작가와 함께 문학의 정점을 향해 고심참담한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 고지에 기발을 쫓을 때 말없이 뒤에서 지켜준 사람들이 그들이라는것을 아는 독자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은 더 좋은 소설을 위해, 더 훌륭한 작품을 위해 정을 기울이고 사심없는 방조를 준 고마운 편집원들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작가에게 문학의 교두보가 되어주고 친근한 벗이 되어주고 도약의 지지점이 되어준 《조선문학》잡지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고있다.

나는 믿는다. 관록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우리의 후배들과 신인작가들도 《조선문학》잡지를 벗으로 삼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우리 문단의 정점을 향해 힘차게 돌진하게 되리라는것을!... 그리고 《조선문학》잡지가 앞으로도 시대의 전형을 창조한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실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우리 사람들

리 룡 운

《이봐요, 혁이 아버지. 어제 말이에요, 내가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읽었다니까요.》

안해의 왕청같은 말에 현만은 아침밥을 뒤술 뜨던 손가락을 멈추고 뜨아히 되물었다.

《소설이라니, 건 무슨 소리요?》

고개를 갇수긋한채 이마전너머로 자기를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에 안해는 둥그런 얼굴이 환하게 웃음부터 머금었다.

《호호, 소설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두번이나 읽었구만요. 제목이 〈칼도마소리〉라구 무슨 수산사업소 지배인에 대한 얘기인데...》

안해는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남편의 기색을 얼핏 살피더니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 수산사업소 지배인이 밤낮 일이 바쁘다구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두 집사람이 부탁하는 칼도마 하나 해결 못해주는 얘기더군요. 한마디로 사람이 집안살림에 무관심해지면 나가 하는 일도 잘되지 않는다는 교훈적인 소설인데 참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러구...》

또 뭔가 뒤를 보태려는 안해의 말을 현만이 툭 분질렀다.

《왜, 나두 칼도마에 난 웅이구멍으루 당신의 달덩이같은 그 얼굴을 봐달라우? 허참, 그 소설이 언제 나온거라구...》

《아니, 당신두 그 소설을 봤어요?》

두눈이 둥그래서 쳐다보던 안해는 무척도 우스운지 입까지 싸쥐며 실박한 어깨를 떨었다. 안해의 그 모양을 보며 현만이라도 비죽이 웃었다.

안해가 하는 말의 의미가 너무도 험동했던 것이다.

오래지 않아 겨울이 닥쳐올것이다.

어제도 갯에 오르내리며 보느라니 겨울나이준비로 바쁜 다람쥐들이 개암이며 도토리알들을 랑불에 가득 물고 분주히 뛰어다니었다. 안해가 말은 비록 아닌보살 웃으며 하지만 이 겨울을 앞두고 구들수리때문에 속으로 걱정이 노래서 있을것이다.

몇년전부터 구들장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방안공기가 시원치 않더니 작년 겨울에는 아무리 불을 싸질러때도 아래목 한귀때기만 고양이이마뻥 한가지로 미적지근하였다. 현만이 언제부터 손을 댔다 댔다 버르는노릇이 아직까지도 피일차일 미루고만 있는것이다.

《이번 설비시설이나 끝내고는 정말 하루 시간을 내지요.》

현만의 말에 안해는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두눈을 덩둘하게 뜬다.

《아이구, 언제요?... 래일이요?! 래일에야 래일 할 일이 또 있다는게 당신 리론이 아니냐요. 내 혁이 아버지를 몰라서요. 요전에도 지원물자 가지구 갯에 들어가보니 광차로반우엔 잔돌 하나 떨어진게 없습디다. 갯일을 놓구는 그렇게두 잔가시를 고르면서 집일이라면 영 손님노릇이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손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호두기껏종발을 들어 그의 앞에 놓아주는 안해이다.

그런 안해를 밋지 않게 바라보며 현만은 허허 웃어버렸다.

그의 안해 창숙은 원래 다혈적이고 승벽이 센데다 남편에게 또한 끔찍한 녀자였다. 하기야 어느 집 녀인인들 그렇지 않으랴만 남편에 대한 창숙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졌다. 아마도 그것이 오누이자식을 편이어 군대로 내보낸 뒤 가슴에 차고넘치는 모성의 따뜻한 사랑을 남편에게라도 쏟아부어 보지 않고는 못 견디어 하는 그 녀인특유의 성정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게 오늘전투에 후방사업을 잘해주오. 작업이 험치 않을게요.》

《어이구 참, 안하실 걱정 하시지. 내가 언제 후방사업 소홀히 하는걸 봤어요?! 오히려 그렇게 열성을 내서 하는 정치사업에도 이가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예요.》

창숙은 후방사업은 정치사업이라는 말뜻까지 꺼 들어가며 남편을 편잔하였다. 그 말에 현만은 끝내 참지 못하고 너털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하지만 창숙은 정작 남편이 대문밖을 나설 때엔 간밤에 먼길을 다녀오느라 피로할텐데 작업에 주의하라고 따끈한 걱정을 끼었다. 성범이라고 지난해 봄에 결혼한 갱종업원의 안해가 해산할 때가 되어 수십리밖의 군병원을 밤도와 다녀온 현만이었던것이다.

오늘은 아침부터 초대봉에 자리잡은 후보갱에 기계수단과 설비들의 대이동을 결단코 단행하기로 계획한 날이다.

후보갱이란 지금 위치하고있는 갱의 뒤쪽 초대봉 중턱에 있는 폭포골의 옛 고굴자리에 새로 일떠세운 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원래 현만이 갱장사업을 하는 1갱은 이곳 운흥광산이 생길 당시 맨처음에 개발된 갱으로서 수십년의 광산력사와 동갑나이였다.

그 나날 1갱은 언제한번 계획수행을 미달해본적이 없는 광산의 기동갱이었다.

광산사람들은 현만을 가리켜 통칭 《곰갱장》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키가 작달막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그의 걸는 뒤모습이 어딘가 곰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것이 차츰 그의 성격이나 사업특성과 관련된 의미로 이전되어갔다. 구태여 부연한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우직스러운 곰의 피상적인 형상보다도 현만의 완강한 인내성과 지칠줄 모르는 꾸준함을 요약한 갱종업원들의 친근한 별칭이었다.

이렇게 현만이 종업원들과 함께 수십년을 두고 피타는 노력을 바친 갱에 언제부러인가 불길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광맥이 거의 고갈되어간다는것이였다. 그것은 거의 확정적인 동시에 갱의 존재여부에도 치명적인 후과를 불러왔다.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사람도 늙으면 은퇴라는게 있는게야.》

이렇게 말하는 축들도 있었다.

그때에 있어서 하루하루 계획을 한다는것은 마치 궁핍한 생활속에 줄금줄금 줄어드는 쌀독을 들여다보는 녀인의 애달픈 심정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현만은 누구와의 대화끝에 이런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나무는 빛을 따라 아지를 치고 물은 굽을 따라 흐르는 법인데...》

그 순간 현만의 뇌리에 번쩍 트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갱의 뒤에 높이 솟은 초대봉중턱 폭포골에서 이전에 보았던 고굴자리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해방전에 왜놈들이 그곳에 갱을 세우려다 실패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하나의 줄기로 이어졌던 광맥이 지각운동이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끊기워져 저 가파로운 초대봉중턱에 올라가붙은것이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하여 1갱에서는 반세기나마 잠자고있던 폭포골고굴터에서 새로운 후보갱을 일떠세우는 전투가 벌어졌다.

생긴 모양처럼 불리우는 초대봉에 있는 폭포골은 실제로 맨몸으로 한번 오르내리고도 흠뻑 땀주머니가 되여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기 교대를 마치고도 스스로 갱장의 뒤를 따라올라가 몇발과씩 더뜨리고야 산을 내리곤 하였다.

그렇게 한달남짓이 전투를 벌리던 어느날, 드디어 굴진이 광맥에 가닿았고 마침내 첫 광석을 파내었다. 그것을 들고 밖에 나온 사람들은 마치 그 광석이 처음보는 희귀한 물건이나 되는듯 서로 둘러보며 떠들썩하였다.

《보라구, 이게 아래 본갱에서 캐내던것과 똑같지 않아? 내 말이 틀림없다니까. 본갱하구 여기가 한맥이었다던...》

《썩썩, 되젠 우쭐대네. 아니, 꼬리빠진 수닭은 다 제집거래?!》

《흐흐... 초대봉 산신령이 신통하다니까. 도둑놈들한테 지금껏 감춰두구 끼고있던걸 주인들이 오니까 이렇게 척 내놓으니 말이야.》

높고 쇠진하여 하마트면 자기의 존재를 마칠뻔했던 갱은 이렇게 갱소년되어 광산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로 된것은 원래의 본갱에서만금 생산실적이 오르지 않는것이였다.

원인은 판데 있지 않았다.

떡함지같은 광석밭을 깔고앉은데 비해 그에 대한 기계설비가 따라지지 못하였던것이다. 그 조건으로 본다면 단 한가지, 새로 열어놓은 갱이 본갱에서 수백미터밖에 있으며 그나마도 온통 45도이상의 경

사를 가진 비탈길이라는것이였다.

굴진을 앞세우자면 초보적으로 여러가지 설비들이 필요한데 착암기는 고사하고 정대와 함마를 메고도 오르기 베풀하는 그길로 압축기며 변압기 같은 중량설비를 끌어올린다는것은 꿈조차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갯의 로동자들과 현만은 그 꿈을 꾸었고 비로소 오늘부터 며칠간 그 꿈을 현실로 옮기기로 작정한것이였다.

이것은 현만이 안해에게도 말한것처럼 험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었다.

《갱장동지!》

뒤에서 누군가 찾는 소리가 들렸다.

갱당비서 김정식이였다. 그 역시 현만이와 다를바없이 딱바라진 체구의 박달나무밑등같은 사람이였다.

광산사람들은 1갱의 일이 잘되는게 다름이 아니라 이 박달밑등같은 두사람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식은 빠른 걸음으로 현만에게 다가와서는 짧게 깎은 상고머리아래 건강미 넘치며 불그레한 얼굴에 싱그런 웃음을 띠우며 말을 건넸다.

《뒤에서 보느라니 갱장동지 발뒤축에서 불꽃이 일겠군요.》

《모름지기 벌써 많은 사람들이 갯에 올라와있을게요.》

현만이라도 웃음어린 얼굴로 대꾸했다.

광산으로 휘우듬히 올리뻗은 길을 따라 두사람은 걸음을 다우쳤다.

제대군관으로 현만보다 10년이나 아래인 정식이였으나 둘사이에는 별로 틀을 갖춰놓은 격식이 없었다.

《참, 명호중대장을 만나봤습니까?》

잠시후 정식이 꺼낸 화제에 현만은 곧 골살을 찌프렸다. 이럴 때면 가운데로 모여든 질은 눈섭사이에 깊은 칼자리같은것이 패이고 우뚝한 코날이 더욱 윤표해진다. 동시에 넓은 이마우로 말려 올라간 고수머리가 그의 고집스러움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따로 찾아온적은 없었소. 임명호, 그 빨질 잘하는 황소같은 녀석. 아직 침전지에서 머물대고있겠지.》

《침전지라니요, 그 사람이 어제 밤에도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남모르는 공을 세우느라고 혼자 초대봉일판을 쏘다니더라 말입니다.》

왕청같은 정식의 말에 현만은 의혹에 차서 물었다.

《건 무슨 말이요? 남모르는 공이라니?!》

…사실 현만이 후보갱으로의 설비시설을 갯종업원들앞에 선포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했지만 일부 머리를 기웃거리는 축들도 없지 않았다. 그만큼 초대봉의 산세가 험하여 여러가지 위험을 동반했던것이다. 거기다 기계화수단에 의거할 가능성은 너무도 희박했다.

더구나 당일군으로서 정식은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를 두고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그래서 간밤에 전지불을 켜들고 작업로선을 다시 밟아보았다.

마른 가둑나무들을 헤치며 걸음을 옮기는데 저아래 낭떠러지밑에서 와삭와삭 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렸다. 전지불을 그쪽으로 돌리고 눈여겨보니 무슨 풀단같은것이 천천히 움직이고있었다.

《거 누구요?》하는 정식의 말에 움직이던 풀단이 툭 멈춰섰다.

잠시후에 상대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비서동지, 접니다. 임명호입니다.》하는 반가움에 찬 말이 들려왔다.

정식이 약간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에돌아 내려가보니 정말 임명호가 량어깨에 걸뗐던 새초단을 내려놓고 뒤걸음 마주왔다.

《중대장동문 여기서 뭘하오?》

명호는 대답대신 담배를 한대 꺼내어 불어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암만 생각해봐도 래일작업에 이 구간이 제일 까다로워하거든요. 어디라 에둘수도 없지, 여차하면 사람이구 설비구… 에이.》

임명호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듯 한쪽어깨를 움츠렸다.

《그래 하다못해 이렇게 낭떠러지중간쯤에 마른 새초단들이라도 갖다 쌓아놓으면 좀 나을것 같아서…》

정식은 전지불로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다.

가파로운 낭떠러지중간쯤에 듬성듬성 돌아 허리어방까지 자란 잡관목들에 의지하여 새초단들을 한 줄로 주런이 줄맞춰 눕혀놓은것들이 보였다. 보아하니 광산수원지주변에 동결방지용으로 쌓아놓았던 새초단인듯싶었다.

《이 좋은 일을 왜 혼자 하오? 갯장동지한테 말해서 다같이 했으면…》

정식의 말에 임명호는 손을 뻗 그었다.

《저도 얼마전야야 떠오른 생각인데요 뭐. 그리구 나야 이번일루 갯장동지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배졌을텐데…》

그런 그를 바라보며 정식은 껄껄 너털웃음을 웃었다.

잠시후 두사람은 오랜 시간 새초단을 지고 골짜기를 오르내렸다. …

《지내볼수록 재미난 동물입니다. 제풀에 성나구 또 인차 뉘우치기도 하구…》

정식은 이렇게 말하며 허허 웃었지만 현만은 같이 웃을수 없었다.
…사흘전이였다.

낮에 불일이 있어 군병원에 갔던 현만은 밤늦어 갱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이젠 수십년간 그의 몸에 배인 습관이였다.

그때 갱직일성원이 하는 말이 임명호가 중대원들을 데리고 아직 갱안에서 작업을 한다는것이였다.

《당장 불러내오우.》

한참만에야 임명호가 돌가루와 석수에 얼룩진 안전모를 벗어두고 역시 돌가루에 뿌여진 장화를 털 썩거리며 들어와 현만의 앞에 마주앉았다.

《왜 아직 갱안에 있소?》

그래도 임명호는 여전히 고개를 외로 틀고 대답지 않은 기색이였다.

기지있는 유모아와 익살로 사람들을 곤잘 웃기던 그가 요즘 전에없이 성깔사나와지고 행동도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월말이 가까와오면서 생산이 시원치 않아 그런다는걸 알면서도 그것은 그냥 간과할수 없는 문제였다.

아침시간에도 중대의 누군가가 출근이 좀 늦은걸 놓고 되게 다불리는걸 조용히 불러다 말해주었다.

《왜 아침부터 큰소리인가?! 말없이 시계만 한번 들여다보는게 더 큰 가책이 될텐데. 차근차근 사연두 알아보구.》

그때에도 시뻘뻘한 표정으로 머리만 찌뻘하고있던 명호였다.

《자네 마음은 아네. 그렇다구 화풀이식으로 해보려들면 녹는건 중대원들뿐이 아니겠나. 그들도 나름대로의 생활이 가정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현만의 한껏 누그러든 목소리에 임명호의 얼굴이 번쩍 들리였다. 갱장을 면바로 바라보는 그의 눈에 서는 그 어떤 항변같은것이 번뜩이였다.

《갱장동지, 3갱에선 벌써 오늘까지 이달계획을 끝냈답니다. 빨리 특이든 탁이든 무슨 마련을 봐야지 이거야 어디 신발신고 발바닥 굽는것 같아서…》

뒤이어 씨근거리는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임명호에게 있어서 처음 보게 되는 이런 불손한 태도에 현만은 속으로 쇠뭉치같은것이 불끈 치밀었으나 애써 꼭 누르고있었다.

《그래 중대장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것 같나?!》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낮을 들고다니기가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판

데로 가든가 해야지.》

입안에서 두덜대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책상이 탕 하고 울렸다. 결김에 서부르게 한 그의 마지막 말은 그야말로 팽팽히 불어난 풍선을 바늘끝으로 건드린 셈이였다.

《가겠다?!… 가라, 당장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노성과 함께 검붉게 달아오르는 갱장의 얼굴을 잠시 질린듯 한 눈빛으로 어정쩡하니 바라보던 임명호가 자리에서 튕겨일어났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도 다른데는 못 가니 그리 아십시오.》

내뱉듯 말을 마친 그는 문을 박차고 횡 달려나갔다.

《?!…》

다음날부터 임명호는 정말로 갱에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이 삼을 꼬나멘 그가 침전지보수공 사장쪽으로 가는것을 보았다고 한다.

아마 자기로서도 본의아니게 갱장을 노엽힌 후 선뜻 그의 앞에 나타나기가 멋적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때는 설비이설문제로 광산참모부와의 론쟁이 절정에 올랐던 때라 현만은 미처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제 저녁 광산참모부와 설비이설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갱으로 내려오다가 사무실앞마당에서 준비작업으로 불비는 사람들속에 섞여돌아가는 임명호를 얼핏 보았을뿐이였다.

그러니 자기가 간밤에 병원에 다녀올 때 명호는 산판에?!…

그런 그를 생각하니 불시로 가슴이 화로라도 안은듯 후더워왔다.

아침 첫시간이 되여 종업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갱마당에 모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휴가를 받았던 사람들까지 늦지 않고 올라왔다.

《여 성범이, 동문 휴가 아니야? 왜 올라왔어?》

임명호의 청높은 목소리에 성범은 뒤더수기만 굵적거리며 대답이 없다.

《색시가 오늘 해산하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며칠동안 휴가를 췌는데 아직 여기서 머물거려?》

여전히 다긋듯하는 임명호에게 성범은 열적게 웃으며 더듬더듬 설명했다.

《병원엔 가봤습니다. 의사선생들 말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할일이… 있어야지요. 그래 새벽에 올라오구말았습니다.》

《저런 생둥이라구야. 아니, 그런 일이야 사내들이 꽃이랑 들구가서 창밖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너자들한테 힘되는건데…》

임명호의 제법 선배연하는 훈계에 성범은 여전히 어쭙게 말하였다.

《며칠전에도 그래, 어제 밤에도 갱장동지가 끝이랑 또 뭐 두루 필요되는것들을 준비해가지고왔습시다. 그런데 내가 뭘 더...》

임명호는 그 말에 더 다른 대책이 없이 헛기침만 두어번 짓었다.

《허, 결혼식을 하던게 엇그제같은데 벌써 새 생명의 출생이라. 여, 성범이, 자네 자식 낳는것두 갱안에서 광석캐듯 하는거 아니야?!》

누군가의 말에 갱마당에 사나이들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화르르 날랐다.

어질고 순박하게 생긴 성범의 얼굴은 단박 벌겋게 달아올랐다.

...지난해 봄에 갱에서는 광산사람들의 축복속에 성범이와 또 다른 한명의 청년에 대한 결혼식이 있었다. 그들은 일찌기 부모를 여윈 청년들이었다.

결혼식은 갱휴계실결에 산뜻하게 새로 지은 영양제식당에서 하기로 했다.

현만의 집에서 한다, 정식이네 집에서 한다 옥신각신하다가 온 광산사람들이 다 울터인즉 아예 널찍한 식당에서 하기로 략착이 된것이다.

광산은 물론이고 갱에서도 언제부터 조용히 버르던차라 그 준비가 일식으로 빈틈이 없는듯 한데도 현만은 뭐가 그리 안심치 않은지 여러날째 수실풍의 읍거리까지 드나들며 평소의 그답지 않게 부산을 피웠다.

당일날까지 그토록 자심하게 땀이돌듯 하던 현만은 정작 두쌍의 신혼부부가 잔치상을 받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가 있어야 사진을 찍을텐데...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아 갱사무실이며 휴계실들을 기웃거렸다. 한참만에 휴계실뒤에서 누군가가 웨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 저기 올라오는 사람이 갱장동지가 아니야?》

모두가 소리나는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멀리 마을로 내려뻗은 넓은 둔덕길을 따라 뭔가 알지 못할것을 랑팔에 목직하게 낀 현만이 다리를 재게 놀리며 이권으로 올라오고있었다.

몇몇 날랜 축들이 그를 향해 달려내려갔다.

잠시후 현만을 에워싼 그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올라왔다. 그들이 현만에게서 받아들고 올라온것은 뜻밖에도 망돌이었다.

《?!》

마당에 나와있던 사람들은 물론 그속에 있던 두쌍의 신랑신부도 그 망돌을 보며 의아한 기색을 가무리지 못했다.

《이게 별참아보여두 꼭 있어야 할것 같아서...

생활에 어떻게 웃음만 있겠나. 간혹 서로의 마음이 넘쳐나면 다툼이라는것도 있다네. 그런 날 저녁이면 우리 집사람이 이 망돌을 돌려 콩비지를 정성껏 해주곤 했는데 별로 맛있었소. 요즘 신행바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구 웃지 말고 두집에서 돌려가며 쓰라구.》

계면적은 웃음을 담은 현만의 말에 사람들은 순간 숙연한 감정에 잠겼다.

고급텔레비죤이나 랑동기, 화려한 가구도 아닌 이 산골 어디서나 드문히 볼수 있는 망돌. 거기에는 단란한 화목과 따뜻한 사랑우에 믿음으로 드림없는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한 인간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것은 요란한 수식사가 섞인 미끈한 웨침보다 크지 않으나 소박한 진심이다.

이런 때 자발스레 한말 나서며 사뭇 엄숙한 분위기를 해쳐놓는것은 중대장 임명호였다.

《아니, 갱장동지, 어찌다 두집에서 하루에 사랑싸움이 일어나면 그뻘 어찌구요. 망돌은 하나인데.》

언제나 결찬 일욕심과 함께 기지 또한 남달라서 이런 때면 가만있지 못하는 그였다. 그런 그를 향해 현만이 눈을 흘기며 몽툰하게 통을 놓았다.

《중대장이란 사람이 저렇게 소견이 바늘구멍같이 서야... 아니, 두집이 한 밥상에 둘러앉으면 좀 좋아서?!》

명호가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부러 눈을 흘프는 시늉을 하자 사람들속에서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들속에 말없이 서있는 결혼식주인공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맺히고있었다.

그때일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있었다.

...

드디어 설비들을 막장까지 끌어올리는 전투가 시작되었다.

현만은 정식이와 나란히 앞채에 달라붙었다.

그도 그럴것이 급한 경사지를 뚫아올라가는 일이니 만치 설비를 든 목도채의 앞에는 뭘수록 키가 작은 사람들로 서는것이 옳았던것이다.

이들이 제일먼저 폭포골에 끌어올리고있는것은 압축기의 공기탱크였다.

...어제 저녁 현만은 사방 불빛이 환한 갱마당에서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술한 사람들이 아직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한곳에 모여 옹거니그르거니 론쟁을 하고있었다.

《그래두 이왕 올려갈바엔 제일 무거운 증량물을 먼저 올려가는게 리치적으로 봐두 옳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에워싸고 둘러선 사람들의 가운데 나서서 목청을 돋구는것은 임명호였다. 언제 보나 제

말이라면 소코도 제 코라고 우기는 그다.

《알긴 되게두 안다. 이 압축기라는게 분해해 놓으면 본체하구 공기탱크하구 무게가 별반 차이 없어. 임자말대루 리치를 따지자면 이 부피가 크구 자네 됴침처럼 둥글둥글 뻗힌데없이 생긴 공기탱크를 먼저 올리는데 옳아. 길은 늙은 말이 아는 게야.》

마치 어린 자식 훈계하듯 뜨직뜨직 오금을 박는 것은 갱의 년장자인 설비소대장이었다. 이제는 나 이도 어지간해서인지 드문히 앓곤 하여 그새도 땀새 나마 출근을 못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제판에 뭘 좀 아노라고 으시대다가 면박을 당한 명호였으나 또한 이쯤한 경우에 쭈그러들 그가 아니었다.

《예, 예, 많이 배웁니다. 늙은 염소뿔이 굴다 구...》

마지막말은 혼자 씩얼거렸으나 모인 사람 누구나가 들었다.

광산사람들치고 임명호의 입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지라 모두들 킁킁 웃어버렸다. 현만이 그들에게로 스적스적 다가갔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길을 띄여주었다.

이제껏 가운데 나아서 쏘이요, 걸이요 아는데를 하던 명호가 현만을 보자 눈이 실췌해서 사람들속에 잠겨버렸다.

현만이 가까워서 보느라니 본갱입구에 있던 압축기가 마당으로 옮겨져 이미 본체와 공기탱크로 분해되어있었다. 그리고 덩그렇게 커다란 공기탱크는 판자들을 밑에 깔고 굵은 바줄로 칭칭 결박하여 당장이라도 맞춤형 목도채를 껴면 옮길수 있게 준비해놓았다.

《설비소대장말이 옳소. 가서 목도채를 얻어오오. 이왕이면 달라붙어 한번 움직여보자구.》

현만의 말에 여럿이 창고뒤로 돌아가 목재로 쌓아놓았던 굵직한 각목을 메여내었다.

《자, 모두 달라붙어보자구.》

현만이 이렇게 말하며 제 먼저 목도채밑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모두가 영차, 소리치며 힘을 썼으나 탱크는 땅에 들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굵직한 각목이 서너개 동강이 났다.

《하, 이거 간단히 불게 아는데?!》

《팬히 아까운 각재만 꺾어먹었군.》

그 말에 임명호가 발끈 화를 내었다.

《누구야, 그따위 소릴 하는게? 닭 한마리 잡자 해도 난알 석죽은 뿌려야 하는게야. 그까짓 나무 몇대가 뭐라구.》

그리고는 다시 창고뒤로 가더니 웅이도 없고 보기에 단단한 나무로 골라 여러대를 안고나왔다. 그것을 더 보강해놓고 다시 달라붙었다.

《모두 동시에 힘을 쓰지요. 자, 하나, 둘, 셋!》

현만의 구령에 맞추어 끄—소리와 함께 모두가 어깨들을 솟구었다.

드디어 육중한 공기탱크가 땅에서 한뼘 가웃이 들리웠다....

《하나, 둘, 영차.》

《하나, 둘, 영차.》

수십명이 일시에 구령을 치고 받는 소리가 고요하던 폭포골안을 발각 뒤집어놓았다.

갱장이하 수십명의 갱전투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달라붙었다.

선광장기대공과 권양기운전공을 비롯한 몇몇 처녀들을 내놓고는 모두가 벗어붙여 맨살을 드러낸 상체들에 먼지로 얼룩진 팔이 번들거렸다.

처녀들은 현만이며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만류했던 자기들은 1갱사람이 아니냐고 씹싸우듯 하며 부득부득 따라나섰다.

얼기설기 바줄로 얹어매어 고정시킨 공기탱크의 앞면에 또한 굵다란 바줄을 대어섯메터가량 늘이였다. 그 바줄을 여러명의 남자와 함께 기를 쓰고 따라올라온 처녀들이 당기고있었다.

탱크를 통채로 메고오른다는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고 여기에 달라붙은 사람들이 일시에 힘을 써서 땅에서 띄우는 순간 그 바줄을 당기어 한치한치 끌어올리는것이다.

그뒤로는 최장대며 각목을 든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탱크의 밑부분을 따라가며 받쳐주어 지쳐내리지 않게 안전성을 보장하였다.

서늘한 아침대기이건만 불과 10메터도 오르지 못하여 옷등을 땀땀 벗어붙였다. 하나같이 붉게 상기된 얼굴들에서 내뿜은 땀방울들이 턱을 거쳐 가슴노리로 줄줄이 흘러내렸다.

발끝을 땅에 박으며 새초와 떨기나무 우거진 급한 비탈면을 뚫아 룡선에 올라서서부터는 작업이 갑절 힘겨웠다. 랑천이 모두 깎아지른듯 한 낭떠러지로 된 룡선의 폭은 어떤 곳은 겨우 반메터내외도 되나마나였다.

그런 곳은 사람들이 달라붙지도 못하고 긴 목도채를 세로 꺾어 간신히 중심만 잡은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뚱기치며 극복해나갔다.

그러느라니 점심도 특색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다.

창숙을 비롯한 갱의 가족들이 정성을 고여 해올려온 다른 음식들은 입 대볼 경황이 없었고 정황을 예산하여 갖가지 찬들을 속에 넣고 빗은 주먹밥들만 쥐고 먹었다.

그나마도 모두들 소잔등처럼 뒤뚱하게 생긴 등성이우에 간신히 얹혀놓은 설비가 안전하도록 빙 돌

아가며 뒀던 등을 기대고 다리를 힘껏 내뻗친채 앉은 자리에서 요기를 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설비시설 전구간에서 제일 넘기 어려운, 말하자면 극한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곳을 마주하게 되었다.

량전은 모두 낭떠러지로서 에돌아갈데도 없는 좁은 외통길에 바위 하나가 락타등처럼 볼록 돌아있었던것이다. 큰 송아지 한마리가 엎드려있는것만 한 그 바위는 이 통선을 이룬 거대한 암석의 한부분이 우로 돌출된것이었다.

《자, 식사를 끝냈으면 잠깐 쉬지요.》

현만의 말에 사람들은 제가끔 담배도 불어물고 어깨며 팔을 주물렀다.

《여, 이거 생각하군 다른데?!》

《오늘같은날 직승기나 하나 날아와줬으면...》

《차, 이 친구 실없는 소릴 하지 않나. 그제 하루 밤몇알 구워먹겠다구 집채같은 난가리에 불놓을 소리야.》

두서없이 주고받는 사람들의 말에 설비소대장이 한마디 끼어들었다.

《내 이야기 하나 하라나?》

호기심에 차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빙 둘러보던 설비소대장은 나이든 년장자답게 주근주근 애기를 펼쳐나갔다.

《여기 초대봉에 대한 애긴데...》

...먼 옛적 이 아근에 한 늙은이가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들어 착실한 며느리를 맞아들였다고 한다. 그 며느리는 집안살림을 여무지게 꾸리고 더구나 시아버지공대에 극성이었다.

그런 며느리에게 있어서 한가지 근심이 있다면 결혼한지 몇해가 지나도록 몸에 태기가 없는것이였다. 마음씨 착한 남편은 그렇다치고 나날이 늙어가는 시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녀인은 죄스러운 마음에 얼굴을 들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녀인은 한 로인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정월대보름 달맞이풍속에 따라 산세험한 초대봉정점에 올라 떠오르는 달을 제일먼저 맞는 사람은 품은 소원을 이루게 되리라는것이였다. 그런데 이 고장 사람치고 달맞이하러 초대봉에 올라본 사람은 없다는것이다.

그 말을 듣고난 녀인은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굳히었다.

(내 소원만 풀린다면 그 험한 초대봉에 꼭 오르리라.)

드디어 기다리던 정월대보름날이 왔다. 마을사람들은 다들 설레며 달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 초저녁부터 녀인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잠시 일이 있어 옆집에 갔으려니 생각하다가 너무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는 식구를 두고 마침내 이집저집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그들의 마음속에 문득 짙히는것이 있었다.

저녁시간이 되어오면서 녀인이 프락에 나와 자주 집뒤에 아득히 솟은 초대봉을 바라보던것이 생각키웠던것이다. 혹시?!...

여까지 생각이 이른 아버지와 아들은 허겁지겁 그를 찾아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지치고 미끄러지고 덩굴면서도 서로 손을 잡고 밀고 당겨주면서 간난신고끝에 초대봉의 정점에 오른것은 무척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드디어 쟁반같은 만월이 솟아오르는데 무성한 숲속의 어디선가 녀자의 나직하고도 곡진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 떠오르는 달님께 비읍니다. 이 녀자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여 우리 가정에 귀한 옥동자를 내려주세요. 남은 여생의 락을 거기에 두고계시는 늙으신 시아버님께 이제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삼가 저의 소원을 헤아려...》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쥐고 달을 향해 곡진히 아뢰이는 녀인의 모습은 남편되는 사람은 물론이고 늙은 시아버지까지도 무척 놀라게 하였다.

그들은 황황히 다가갔다.

《며늘애야, 네가 이렇게 험한 여길 올라오다니? 그러다 큰일 날려구...》

기가 막힌듯 허까지 차며 녀인의 험상스런 모습을 울리훔고 내리훔는 시아버지에게 녀인은 혼연한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아버님, 저에겐 험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는 달을 제일먼저 보고싶어서...》

여전히 담담한 녀인의 말에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딱 벌렸다....

여까지 이른 설비소대장의 말에 임명호가 한마디 끼어들었다.

《아하, 그러니 목적에로의 강렬한 지향이 모든 걸 다 잊게 했다 그거구만요. 그래 다음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 임명호에게 설비소대장은 눈을 가로 흘기며 으르듯 말했다.

《저런 플메뚜기라구야. 내가 말하자는건 그후의 얘기가 아니야. 임자가 방금 말했듯이 지향이 강하면 그외의건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설비소대장의 면박에 물박에 난 봉어처럼 입만 병긋거리는 임명호를 보며 사람들은 다시한번 가뻔게 웃었다.

뒤이어 현만이 누구에라없이 말했다.

《이 일을 처음 토의할 때 누군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소. 〈닭알로 바위치기 아닐가요?〉 하던 말… 성범동무, 이 말 무슨 뜻이지?》

그런걸 다 묻느냐는듯 성범은 땀뻘뻘 이마를 쓱 문지르며 제꺼덕 응수했다.

《체, 그거야 불가능이란 뜻이지요 뭐.》

《웁소, 동무들이 생각하듯이 닭알로는 바위를 깰수 없소. 하지만 이런 말도 있소. 그 닭알에 사상을 채우면 바위도 깬다.…》

순간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야!—》

《갱장동지, 멋진 말인데요. 닭알에 사상을 채우면 바위도 깬다.…》

여럿이 현만의 말을 곱씹어보며 찬탄에 겨워 부르짖었다.

《동무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요.》

현만의 이 말은 수만근의 무게로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저쪽에 앉았던 정식이 엉치를 털며 일어섰다.

《갱장동지 말이 웁소. 과학기술이 첨단의 경지에 이른다 해서 인간의 투지와 정신마저 가치가 달라진다는건 아니요. 우리모두의 패일을 위해서 자, 동무들! 우리의 정신력으로 바위를 깨봅시다!》

그의 말에 모두가 호응하며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최대로 긴장해야겠소. 랑кен은 모두 낭떠러지요.》

현만의 말에 모두들 설비에 달라붙었다.

일시에 들고 밀며 당기며 공기탱크가 바위밑에 이르렀다. 이제는 이 커다란 중량물을 번쩍 들어야 한다.

이곳 지대의 경사가 급하다나니 힘을 써도 균등하게 쓸수 없었다.

앞쪽에서 바위의 높이로 유지해야 한다면 뒤켠에 서는 있는 힘껏 몸을 솟구고 팔을 뻗쳐 그와 수평을 이루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뒤켠에 력량을 더 보충하고 앞켠에는 현만을 비롯한 몇사람만이 남았다.

그이상으로 사람이 다가붙을수도 없었다.

딘고선 지대가 너무도 협소했던것이다.

《영차!》

일시에 힘쓰는 소리가 골안을 찡— 울렸다.

일은 이때 벌어졌다. 력량에 있어서 뒤켠보다 현저히 차이나는 앞켠의 목도채가 일정한 높이에서 더 들리지 못하였다.

뒤켠의 사람들은 한팔로는 결사람의 허리를 감아 쥐고 다른 팔들을 있는 힘껏 뻗쳐 중량물의 높이를

유지하고있었다. 이제 다시 땅에 내려놓고 어찌고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 차에 현만이 날래게 몸을 뒤틀며 목도채밑에 들어가 엎드렸다.

《공—》하고 힘을 쓰는 그의 잔등이며 땅을 짚고 내뻗친 두팔뚝에서 권양기의 쇠바줄같은 근육이 불근불근 돌아 구뿔구뿔 꿈틀거렸다.

뒤이어 정식이며 여럿이 그밑에 뛰어들었다.

거대한 쇠덩이가 마치 유압자끼우에 놓인듯 천천히 솟아올랐다.

《당기라!—》

공기탱크밑에서 지각을 뚫고 분출하는듯 한 현만의 웨침이 터졌다.

앞에 맨 바줄이 팽팽히 행기우며 설비가 공중에서 느리게 움직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탱크의 중심이 흐트러지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아래는 수십길로 아찔한 낭떠러지, 이제 벌어진 후과는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몹서리치는것이였다.

순간, 이제 한순간만 지나면…

찰나, 기울어지는 설비의 밑으로 몸을 날리는 사람이 있었다. 성범이였다. 그가 딛고선 곳은 낭끝에 가냘프게 돌아자란 가독나무그루터기였다. 어깨로는 기울어지는 탱크의 밑부분을 올리받치고있었다.

기울어지던것이 멈춰섰다.

가독나무그루터기를 딛고선 발끝이 파들파들 떨렸다. 저것이 빠지는 날이면…

이때 뒤따라 거기에 뛰어들며 성범의 한쪽겨드랑이를 끼고 반대로 힘껏 당겨주는 사람은 임명호였다.

《당기라!—》

현만의 고향소리가 재차 터져나왔다.

이 최대의 극한점은 이렇게 넘어섰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무렵, 드디어 설비는 새 갱입구까지 무사히 올라왔다. 산골의 선기를 품은 저녁바람이 우수수 불어왔다.

그래도 사람들은 달아오른 몸에 옷을 걸칠념을 앓는다.

모두들 섰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자신들이 툭 아올라온 길을 말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누렇게 가을색이 물든 산관을 뒤덮은 가독이며 새초파위가 무수한 사람들의 발길에 짓이겨져 뚜렷하게 하나의 길을 만들어놓았다. 그 흔적이런듯 여기저기 걸쳐놓은 옷가지들이 바람을 안고 너풀거렸다.

산아래기슭이 아스라하게 내려다보였다. 사람들은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아니, 우리가 이 길울?!…)

말없는 대사들을 나누며 그들은 거기에 바쳐진 자신들의 하루를 더듬어보고있었다.

《여, 성범이, 오늘 날게 될 아들 보고싶지 않아?》

맨 돌판에 되는데로 주저앉은 임명호가 곁에 있는 성범을 바라보며 거친 목소리로 시까스르듯 하는 말이다.

《첻,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범이 쑥스러운 눈길을 허둥대는데 임명호가 단언하듯 하였다.

《아니, 아들일거야. 동무같이 용감한 사람한테 꼭 아들이 생길거야.》

그 말에 모두들 얼마전에 넘어선 극한점이 있는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좋구나. 이런 때 한대 피웠으면...》

누군가 등뒤에서 조용히 중얼거리는 말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담배가 있을리 없다. 현만이라도 열 곁에 주머니에 손이 갔으나 텅 비었다.

그도 담배가 그리웠다.

《담배 여기 있어요. 피우세요.》

저편에서 처녀의 쉼쉼한 목소리가 울렸다. 영양 제식당 취사원처녀이다. 평소에 말이 적고 부지런하면서도 광부들을 위하는 마음이 깊고 노래 또한 광산적으로 명창이다. 오늘하루도 간식이며 물통을 들고 험한 비탈길을 쉬임없이 오르내리더니...

어느새 벌떡 일어나 그리로 다가간 임명호가 처녀의 손에 들려있는 담배갑들을 두꺼비 파리잡듯 덮쳐쥐며 목비틀린 기사니청으로 범석 수선을 떨었다.

《우리 갯에서 취사원 하나만은 잘 두었거던. 앞으로 어느 집 머느리가 되겠는지 멀리 시집보냈다가 광산이 큰 손해를 본다니까.》

터져오르는 웃음속에 임명호는 담배갑들을 터쳐 돌아가며 끌고루 권했다.

그러다가 현만의 앞에 이르러 똑 멈춰섰다.

《왜? 나한테 한대 안 주려나?!》

현만의 빈정거리는듯 한 말에 그는 대답없이 빈 입만 썩 다셨다.

《이보라구 중대장, 자네 구들을 잘 본다니? 이번 휴식날에 우리 집에 와서 기술지도 좀 해주게나. 그렇지 않다간 래일쯤 아마 우리 집사람이 〈칼도마소리〉를 통달시키겠다 할수 있어.》

《〈칼도마소리〉란건 뭘니까?》

임명호가 눈이 켜해서 묻는다.

《음, 나같이 게으른 사내들 때리는 멋있는 소설이 하나 있지.》

꽤 잠겨 거친 목소리들로 런발하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뒤에 앉았던 성범이 그들사이에 끼어들었다.

《중대장동지, 이제 설비들만 다 올려다놓으면 그뎨 또 굉장하겠지요?!》

《그럼.》

《그러면 계획을 넘쳐해서 그새 다른 갯에 떨어졌던걸 봉창할수 있겠군요.》

《봉창?! 에이, 그건 봉창 못해. 아마 영원히 공백으로 남아있을거야. ... 차라리 그 공백을 안고살면서 자기를 더욱 채찍질하구 분발해야지 뭐.》

《아, 그래두...》

《그래두가 뭐야, 그래두가. ... 동문 몰라? 래일은 래일 할일이 또 있다는걸.》

《체, 그거야 갯장동지가 늘쌍 하던 말이로구만 요 뭐.》

《갯장동지 말일게 뭐야, 그거야 내 말이지.》

호아—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마치 재담을 하듯 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현만은 자못 감개로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드디어 해는 아득히 먼 산봉우리뒤로 얼굴을 감추었는데 저녁노을이 가없이 높은 가을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었다.

그 노을의 여광에 휩싸인 광산마을, 늘쌍 보아오던 마을이 오늘따라 새삼스레 아름답게 안겨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시원한 가을바람이 우수수 불어왔다.

×

그로부터 얼마후 현만은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 회의에서 현만은 과분하게도 공훈 광부칭호를 수여받게 되었다.

그는 경험토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다.

《...짧은 기간에 완전히 갖추어진 새 갯의 기계화와 선팡장까지 이르는 전구간의 무동력삭도화, 그로 인한 생산의 정상화는 결코 제 혼자만의 조직력이나 전개력에 의해 이루어진것이 아닙니다.

사상의 힘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안아온 결실이며 바로 원수님의 뜻을 체질화한 우리 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이룩해놓은 재부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이 명예칭호가 우리 사람들, 우리 갯 종업원들모두의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주의를 위하여

조 광 철

봄...

준엄한 봄

올해의 이 봄은 ऐसा롭지 않아라

아지랑이 피는 대지를 덮으려

시시각각 밀려오는 핵전쟁의 검은구름

쌍쌍이 제비나는 저 하늘을 썰며

소란스레 울려오는 스텔스의 굉음...

우리가 굶고 한지에 나앉기를

우리의 귀여운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새로 지은 상점들과 식당들이 문을 닫기를

사회주의가 망하기를 바라는 미제

그 속검은 가슴팍을 겨누어

푸른 모도 창끝마냥 일어서는 봄

우리는 모를 낸다

총포성없는 전쟁과도 같은

이 봄의 엄숙함을 말없이 절감하며

써레치고 모를 내는 전투장마다엔

보도가 울려퍼진다

모를 낸다

할일 많은 손과 손들이

싱싱한 모흙을 들고 별로 나간다

인민이 주인인 사회주의는

인민이 지켜야 하기에

쌀이 그리도 귀중함을

더는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자신을 위하여

우리자신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우리는 모를 낸다

봄...

들끓는 봄

미래를 확신하는 봄

멀리에 있지 않아라

땀흘린것만큼 누릴 부유하고 문명한 생활은

살림살이 깎인 녀인들의 얼굴에

어느때나 만발한 웃음꽃이

날마다 늘어나는 고마운 시책들로 흥겨울

명절처럼 즐거운 아침낮들이

그날을 위해 들끓는 봄이다

써레질 앞세우는 트랙토르를 따라

부지런히 달리는 모내는기계들

뒤질세라 따라서는 모공급수들

대지위에 나뭇기는 기발들의 퍼덕임...

그 어떤 위협과 제재로도

결코 허물수 없는 사회주의를 지켜

우리의 분조들은 더 굳게 뭉치며

농촌테제의 빛발로 오곡을 가꾸리라

새로운 병진로선을

쌀! 쌀로써 받들어가리라

아, 경애하는 원수님

손들어 힘있게 가리키신 여기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농업전선에 땅의 주인들이 있는 한

사회주의는 번영하리라

더 젊고 씩씩하게 푸르싱싱하리라

봄뒤에 무성하는 질푸른 여름처럼

그날을 위해 우리는 일한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싸운다

살며 일하며 싸운 보람을 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우리 삶의 목표인 강성국가

김정은원수님 이끄시는 내 조국을 위하여

아, 봄...

투쟁의 봄

승리를 마중가는 조선의 봄이여!

한 모 습

업 성 영

추억이란 아름다운것이다. 바로 그래서 누구나 지나온 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느라 마음 이 절로 흥그러워지고 새힘을 얻게 되는것은 아닌지...

얼마전 나는 취재차로 수도 평양에서 멀지 않은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착공에 앞서 친히 그 이름까지 지어주신 과학자거리이다.

건설장은 들끓었다. 첫눈에도 불이 달렸다는것이 알렸다. 입구에 세워진 거리형성도안에 맞게 시원하게 열려진 큰길 좌우로 덩지큰 살림집들과 전자도서관이며 현대적인 과학연구실험실들이 줄줄이 일떠서고 학교, 병원, 목욕탕을 비롯한 갖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곳곳에서 나뭇기는 붉은기, 붉은 줄이 짙쭉 치달아오른 경정도표판, 대문짝같은 속보들이 눈에 띄운다. 건설자재들을 가득 싣고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는 대형자동차들, 혼합기의 동음, 일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경제선동대의 흥겨운 음악소리...

들끓는 건설장의 이모저모를 격동에 찬 심정으로 둘러보며 3호동건설장옆을 지나던 나는 뜻밖에 삼자연지구건설장에서 낮을 익힌 김동무를 띄여보았다.

《아니 이게 누군가, 진봉동무가 아닌가?》

입에 호각을 물고 한손에는 기발을 든채 총막부재를 들어올리고있는 기종기운전공과 눈길을 맞추고있던 그는 나에게로 돌아서며 잘 모르겠다는듯 눈만 슬며시었다. 길쭉한 얼굴, 수북한 장미, 두툼한 입술...

《아직 몰라보겠나?》

나는 다우쳐물었다. 김동무의 얼굴은 그제서야 활짝 밝아졌다.

《허허... 아니, 이게 얼마만인가?》

《벌써 10여년세월이 흘렀지.》

우린 서로 뜨겁게 손을 잡았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그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진국동무를 아니, 진봉동무를 만나니 삼자연지구건설때 굴착기를 날라오던 일이 생각나는구만.》

《그래. 어려웠지만 보람찬 날들이었지.》

우리는 그 보람찬 나날들을 함께 추억속에 떠올렸다.

...우리가 당의 부름을 받들고 618건설돌격대에 망라되어 삼자연지구건설장으로 달려간 초시기에 있던 일이었다.

함경남도의 어느 건설사업소에서 연공으로 일하다가 자원해왔다는 소대장 김동무를 비롯하여 우리는 나이와 직업, 성별은 달랐어도 마음은 오직 하나, 혁명의 성지를 꾸리러 왔다는 자부심으로 하여 뜨겁게 고동쳤다.

허나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칠줄이야! 려장을 풀고 병실건설이 끝나기 바쁘게 편속 들이닥친 폭설과 맴뽀 강추위... 북방의 겨울은 사납고 엄혹했다. 문제는 그보다 현장에 대상건설에 착수할 기계수단들과 료전기재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것이였다. 함흥에서 함께 떠난 굴착기가 이제야 겨우 해산에 도착했다는것이 아닌가. 이제 쫘쫘 얼어붙은 비좁고 울퉁불퉁한 눈덮인 산비탈길로 굴착기를 날라온다는것은 상상하기에도 어려운 일이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굴착기를 끌어올리다가 험한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한다면?... 그렇다고 눈이 녹고 땅이 풀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 한겨울 내내 기다려야 하는가?

모두들 가슴이 바직바직 타들었다.

이때 자리를 차고일어서는 청년이 있었다. 김진봉소대장이였다.

《동무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보고있소. 굴착기를 우리 손으로 끌어올립시다!》

(백두산!)

그의 열띤 목소리는 우리모두의 가슴을 쿵 울려주었다. 우리들에게 다름아닌 백두산밀에 자신들이 와있다는 자각을 불려일으킨것이다.

《모험이 아닐가?》

누군가의 목소리.

《모험이 없이야 무슨 청춘인가.》

희떠우면서도 신심에 넘친 대답소리.

정작 결심하고 달라붙으니 지혜가 생기고 기발한 착상들이 나왔다. 굴착기에 대형발구라는 《신발》을 신기고 앞에서 견인차로 끌어올리는 대담한 발기가 곧 실천에 옮겨졌다. 쉽지 않았다. 한치 한치 툭아오를 때마다 굴착기의 긴팔이 휘우뚱거리

고 경련이 인듯 몸체가 부르르 떨었다. 금시 천길 낭벼랑에 굴러떨어질것 같은 환각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 나날에 쉽게 웃어넘길수 없는 일화도 생겨났다. 어느 점심때였는데 린근마을에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올라온 취사원처녀가 빙 둘러앉은 대원들에게 얼른 국떠줄 생각은 하지 않고 국통을 마주하고앉아 툇툇툇 눈물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우리는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마주보았다.

《웬일이요?》

진봉동무가 자리에서 뉘름 일어나 처녀에게로 다가가 뚜껑을 열고 국통안을 들여다보았다. 금시 눈이 등그래졌다.

《허허, 동무들, 특식이요 특식!》

진봉동무가 두눈을 깜빡이며 너스레를 피웠다.

《특식?...》

《이건 완전히 특식이며 별식이요.》

진봉동무가 열어붙은 국통을 들어 대원들앞으로 옮겨놓았다. 우리는 취사원처녀를 탓하지 않았다. 추위에 떨고있는 동무들을 생각하며 펄펄 끓는 고기국을 국통에 담아들고 급히 문밖을 나섰을 처녀, 가파롭고 미끄러운 눈길에 지치고 넘어지면서 숨가빠 달려왔을 처녀, 그 진정도 몰라주고 얼음베개가 앉아버린 국통뚜껑을 여는 순간 처녀의 마음이 오죽 안타깝고 야속했으랴!

《허허, 정말 별맛이네.》

《난 세상에 나서 국을 뜯어먹어보긴 처음이야.》

《헛헛허... 핫하하...》

우리는 하루동안이면 쉽게 날라울수 있는 굴착기를 열흘나마 걸려서야 끌어왔고 대상건설에 착수한 이후에도 가지가지의 아람답고 자랑스러운 일화들을 창조했다. 그 일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봉동무가 서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생각했었다. 그라고 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겠느냐고.

그 어떤 힘이 억척의 지지점이 되어 그를 곳곳이 떠받들고있는지 알수 없었던 나는 어느 기회에 그의 수첩을 펼쳐보게 되었다. 그속엔 많은것이 적혀있었다. ... 백두에 메아리쳐올리던 유격대의 우렁찬 나팔소리, 캄캄한 밤하늘을 불태우며 타오르던 보천보의 화불, 왜놈들이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보무당당히 행군해간 유격대원들, 숙영지에서 은은히 울리던 《사향가》노래소리...

그는 언제나 가슴에 백두산을 안고살고있었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일했다. 그 누가 보건말건 그 누가 평가해주건말건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삼지연지구건설에 바쳤다. 성실한 땀을 물었다. 진주보석같은, 불수록 진국인 그의 마음에 대원들은 감동되었고 진봉이란 이름대신 흠없이 《진국》이라고 불렸으며 마침내 그것은 소대범위를 벗어나 온 돌격대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방금전 《진국》이란 이름이 절로 입밖에서 튀어나오게 된것도 실은 그때의 타성이라고 할가. ...

홀려간 추억의 한토막을 더듬던 나는 저도 모르게 그때의 젊음이 되살아나고 온몸에 새힘이 부쩍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은 직장장사업을 맡아한다지?》

《그렇게 되었네.》

《살림집건설이 계획대로 진척되나?》

《아무렴.》

진봉이 우선우선한 얼굴로 대답했다.

《힘들테지?》

《힘이 드네.》

그는 가식없고 솔직한 사람이였다. 두툼한 입술이 다시 열렸다.

《쉬운 일이라면야 왜 자원해 나섰겠나? 차네도 위성과학자거리건설이 어떤 대상이라는걸 잘 알테지?》

나는 대답대신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정초에 국가과학원을 찾아주시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놓고 연구사업을 할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여기로 달려왔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독창적인 건축구상을 받들고 세계를 굽어보는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놓는데 적극 이바지하려고 했을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여기로 불러주시였네.》

김진봉의 목소리는 공지에 넘쳐있었다.

《삼지연지구건설때처럼 막 신심에 넘쳤구만.》

《그렇게. 우린 출발점에서부터 큰결음을 내걸었지.》

《출발점?...》

나는 취재목적도 있고 호기심에도 끌려 스스로 없이 물었다.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맡겨주신 대상건설을 무조건 끝내기 위해 건설자들은 목표인 당창건기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일정계획을 세워 착공식을 했다는것이다. 대답은 범상하나 거기에는 당에서 일단 결심하면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끝까지 해내야할 결사판철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제철지구의 아침

주 광 남

철의 수풀우에 해가 등실
붉은 해살 줄기줄기 퍼져내리는 때
화답하듯 땅우에선 쇠물남비 덩실
타오른다 쇠물빛 불타는 노을

순간에 눈부서지는 하늘과 땅
쏟아져내리는 저 해살과
황황 솟구치는 저 쇠물빛
한데 어우러지는 황홀경이어

—출선이다!
그 누군가의 기쁨에 젖은 목소리
출근길을 멈춰 지켜보는 가슴에
환희의 물결 일어번지누나

경탄의 눈길들 함께 지켜보는
용광로는 금시 불물이 든듯
용광로뿐이라 땅우의 모든것
금빛으로 물들인다 저 쇠물빛!

보아라 저 공훈용해공아바이
주름퍼지는 얼굴 얼마나 젊어지는가

빛을 더친 용해장의 그 총각 그리는지
살며시 웃고선 저 처녀
발그레 물든 얼굴 얼마나 또 예뻐지는가

벌컥벌컥 창문들을 열어젖히는
유치원 꼬마들의 까만 눈동자에도
귀여운 아기들을 추켜올리는
보육원녀인들 등근 얼굴마다에도
쇠물빛은 한가득씩 기쁨을 뿌려주는듯

설레인다 온 제철지구가
여기선 위훈도 충정도 행복도
쇠물과 함께 꽃피나기에
용해공이라 보육원이라 아이들까지
쇠물을 안고사는 마음이거니

또 하루 기쁨속에 새날을 맞는구나
내 조국 창조의 숨결
쇠물로 더 뜨겁게 끓일
그 열정 하늘땅에 가득 차고넘쳐
오, 제철지구의 아침은 환희속에 밝아지누나!

나는 그 잡도리부터가 마음에 들었다.
뇌리에 문득 굴착기를 끌어올리던 일이 떠오르고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웨치던 진봉소대장의 열띤 목소리가 귀가에 들려오는듯싶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모습 변함없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순간의 사색을 하고 한발자국의 걸음을 옮기어도 오직 당의 의도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어려운 날에나, 행복한 날에나 변함없이 한모습으로 살고있는 사람! 이것이 어찌 진봉동무 한사람뿐이라, 3호동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의 모습이고 위성과학자거리건설에 펼쳐나선 건설자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 아니겠는가.

《출발점은 누가 정했나?》

《누구라니? 이젠 우리모두의 일치한 생각일세.》

그는 지금껏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하루도 느슨함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설참이면 새

로운 기술공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협의회도 한다고 했다.

이때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손에 종이말이를 쥔 한 처녀가 다가왔다.

《직장장동지, 기술협의회시간입니다.》

나는 그를 더 붙들고있을수 없었다.

나는 처녀기사와 함께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흥안의 시절에나 귀밀에 서리가 불린 오늘에나 변함없는 한모습, 당을 따라 곧바로 백두의 혈통을 지켜 억세게 살아온 그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변함없는 한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에 하나와 같이 일떠서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숨결을 느낄수 있었고 그들의 투쟁에 이어 펼쳐질 래일,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 이 거리의 래일을, 보다 부강번영할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고있었다.

시 초

물길굴에 새긴 청춘의 일기

—청천강계단식 희천3호발전소건설장에서—

기 경 호

우리는 기발을 높이 들고 왔다

청천강으로!

번영의 화살표를 여기로 굽고

조국은 기발을 앞세웠다

그 기수는 다름아닌 청춘들

우리는 기발을 높이 들고 왔다

인적드문 강기슭에 배낭을 풀고

천험의 산악에 너의 기폭을 올릴 때

붉은기여 어이하여 너를 우러러

청춘의 심장은 그리도 높뛰었던가

어느때나 너의 위치는

내달리는 조국의 맨앞장

그 앞장에서 걸어가느 영예를

어느때 한번 우리 양보한적 없었거니

잠시도 멈추면 순간에 쏘이 쏘

그런 삶 꿈에도 원치 않아

붉은벙타이 목에 두르던 시절부터

너와 한생의 인연을 맺은 우리

다르지 않았더라 너와 청춘의 길은

네 가는 곳 진펄이든 가시밭이든

거기에 청춘의 노래가 울렸고

거기에 투쟁의 우등불 밤을 밝히지 않았더냐

청춘이 타고왔은 승리의 고지마다

조국은 자랑스레 기발을 쫓으며

청춘 그 이름을 네 기폭에 싸안아

력사에 길이 빛내주었거니

붉은기 있는 곳에 청춘들 있었고

청춘들 섰는 곳에 붉은기 높았거니

혁명앞에 그 위치 다르지 않은

청춘은 언제나 붉은기와 함께 있는것!

욕됨이 있으랴

백두의 노을빛으로 붉은 너의 기폭앞에

우리 여기 물길굴 열어

또 하나 빛나는 위훈을 너의 자락에 새기려니

오, 우리는 기발을 높이 들고 왔다

강성번영으로 질풍치는 조국의 맨 앞장에

오늘도 기발처럼 휘날리는 삶

그것이 청춘이다!

돌격대병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접지를 얹는

청춘의 나래인가 나뭇기는 기발아래

위훈을 꿈꾸는 불같은 삶들이

모여와 한살림 펼친 돌격대병실

귀맞춰 마음맞춰 쌓아올린것은

산골에 혼한 나무와 돌뿐이던가

그 높은 리상으로 들보를 얹고

희망과 포부를 지붕으로 펼친 집

누려야 할 복과 락은 후대들께 약속하고

값비싼 젊음을 아낌없이 바치며

오늘에 천만년미래를 사는

후회없는 삶들이 여기 깃들었나니

심장에 피가 끓는 한창나이에

조국을 사랑하는 법을 익힌 곳

에서 배운 사랑의 노래는

한생의 소중한 주제가가 되리라

출생란의 지명은 서로 달라도

다르지 않더라

먼 후날 자서전에

떴듯이 써넣을 청춘의 주소는

달리며 산 하루도 짧던 나날에

청춘시절은 어느덧 멀어져가도

떠밀어 내 삶을 원수님결에

가까이 더 가까이 세운 집이어

못 잊어 조국이 기억하는 영웅들도

이 집에서 태어난다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조국과 말할줄 아는

청춘들이

애국의 추녀를 같이한 위훈의 고향집이어!

나는 이렇게 강성국가의 대문을 두드린다

또 한차례 도화선에 불을 달고
흐뭇이 한대 불어물 때면
자부로 그득한 이 가슴 두드리며
터져오르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아시는가 천길지심을 뒤흔드는 저 소리는
조국에 드리는 나의 인사
사랑하는 어머니 그대앞에 터놓는
발파공 이 아들의 정찬 아뢰임

이 하루도 아들은 앞장에 서있노라
돌파구 열어가느 남다른 궁지 어려
결코 가볍지 않은 사나이의 고백을
조국이며 귀기울여 들어달라

내 열어가느 물길굴 한치한치가
그대 진군에 보폭을 더해주고
그대 비약에 나래를 달아준다면
한줄 폭약이 되어 흩어져도 한이 없을 이 마음

그대앞에 드리는 승리의 보고도
그대앞에 다지는 불같은 맹세도
단 한방 불발을 모르는
저 발파소리말고 나는 따로 알지 못하거니

알아다오 장쾌하게 울리는 저 소리는
더 좋은 래일로 부르는
그대 목소리에 화답하여 울리는
내 심장의 메아리!

그때문이 아니라
최후승리경축광장 축포성도
내 울려가는 저 소리에 어려와
후더이 후더이 눈시울 젖어들도

몸은 비록 수십길 땅속에 있어도
마음은 환희의 그 하늘에 엮고
오늘도 더 높이 울려가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아, 나는 이렇게 강성국가의 대문을 두드린다!

물길굴에 새긴 달력

누가 먼저 말했던가
한구간 한구간...
피복을 입힌 구간마다
날자를 새기자고

그래서 우린 써넣었지
12월 1일...
12월 10일...

하루에 최고 두구간
때로는 봉락과
석수로 하여
한구간도 못친 날도 없지 않았거니

누군들 무심하라

여기에 땀과 뉘를 부은 사람이라면
기쁨과 환희 걸어온 자욱을
죄다 말해주는 저 날자들앞에서

시련을 헤쳐 더 보람찼고
위훈을 떨쳐 자랑도 컸던
아, 그 모든 날들을 소중히 품어안고
아득히 뻗어간 물길굴이어

나에겐 생각되누나
완공의 날 앞당겨 불태워온 하루하루
한눈에 다 보라고 땅속에 펼쳐놓은
콩크리트로 된 달력처럼!

위훈이여!

위훈이여
너의 참뜻을 다 알기도 전에
나는 너를 꿈꾸며
달려왔다 여기 희천으로

환송의 꽃물결
달리는 열차에 몸을 실을 때
착공의 우렁찬 첫 발과 울릴 때
너를 갈망하여 얼마나 내 가슴 울렁이었던가

허나 너는 서두르지 않았지 나와의 상봉을
밤낮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

썩히는 밥이 모래알같고
밥보다 잠이 더 그리울 때
비로소 알았노라
위훈이란 쉽게 부르는 노래가 아닌줄

그때에야 미처 알거나 했던가
미달한 하루계획 두고는
막장을 못 뜨던 그밤을 거쳐
레사롭게 보아온 모래자갈이
금돌같이 여겨지던 날들을 지나
네가 내게로 조용히 오고있을줄

봉락된 막장
 생명을 노리는 집채같은 바위밑에
 밝은 웃음 남기고 선잠 뛰어들 때
 너는 이미 청춘의 붉은 이 심장을
 자기의 보금리로 정하지 않았더냐

그렇더라 위훈이여 너는
 성실한 땀과 티없는 량심이 가꾸는 열매
 조국을 위해 뛰는 심장과
 자신을 위해 뛰는 심장을 따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삶들과만 벗하는 참된 인생의 길동무이거니

아, 석수 흐르는 물길굴도 몸소 걸으시며
 전기때문에 전기때문에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그토록 마음써오신 장군님
 그 유훈 빛내는 길에서 위훈을 떨치라고

원수님 우리 청년들을 고무해주실 때
 솟구치는 걱정속에 깨달았어라
 너와 나의 인연은
 조국에 바치는 사랑이 맺어주는줄
 너와 나의 우정은
 원수님뜻 받드는 그 길에만 꽃피어나는줄

가자 위훈이여 나와 어깨결고
 원수님 부르시는 휘황한 저 래일로
 너와 나의 우정이 깊어지는 곳마다에
 시대의 기념비는 숲처럼 무성하리라
 장성번영의 노래는 더 우렁차게 울려퍼지리라!

— 희천에서 —

작가일화묵음

책을 사랑하라

1970년대에 있는 일이다.

작가 한상운은 창작여가시간에 창작실에서 낡은 책을 손질하고있었다.

구겨진 책장들을 하나하나 펴고 찢어진 페이지들을 풀로 붙이고 표지는 두꺼운 종이로 다시했다.

이때 동년배의 작가가 창작실에 들어왔다. 그는 작가 한상운이 책을 정성들여 손질하는것을 보고 무슨 귀중한 책이어서 그러는가고 물었다.

한상운은 말없이 그저 머리만 끄덕이었다.

그러던중 동년배작가는 책표지에 찍힌 도서실의 낯익은 도장을 보게 되었다.

《도서실책이로구만. 난 또 자기 책이라고...》

한상운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도서실책은 내가 보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한상운은 마치 환자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는 외과의사처럼 보였다.

동년배작가의 충격은 컸다. 그는 책을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한상운을 다시보게 되었다.

그의 눈앞에는 며칠전 정구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한 젊은 작가가 정구치는것을 구경하면서 나무의자에 책을 깔고앉아있었는데 작가 한상운이 가볍게 충고를 주었다.

《책도 숨을 쉬겠는데 깔고앉아있으면 책을 죽이려나?》

젊은 작가는 곧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얼른 일어나 책을 손에 들었다.

딸이 하는 말

1980년대 중엽 시인 전동우의 딸에게는 그와 친한 한 녀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의사가 전동우의 집에 놀러왔다가 딸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진 요즘 무슨 영화의 주제가사를 쓰니?》

《글쎄...》

《딸이란게 아버지가 무슨 가사를 쓰는지도 모르니 넌 참 한심하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진 늘 시간이 아까워 우리와 말 한마디 나눈적이 없구 글썄 땀 그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한단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는 작가선생이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는 정말 재간이 있대. 뭐 가사를 무우뿔듯 한단나.》

《거참 듣긴 좋구나. 그러나 실지는 그렇지도 않아.》

전동우의 딸은 얼마전에 자기가 목격한 이야기를 하였다.

어느날 새벽녘에 자기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소파에 기댄채 잠들어있고 책상우에는 가사를 쓰던 원고용지가 수북이 쌓여있는데 들추어보니 전부가 예술영화 《추억의 노래》의 주제가사인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를 쓰던 원고지였다는것이였다.

전동우의 딸은 자기 동무에게 《몇줄 안되는 가사 한편을 쓰는데도 그렇게 많은 품이 든단다. 그런데 무우뿔듯 한단가? 그건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야.》하고 말해주었다.

젊어지는 모습

공 천 영

청천강계단식발전소 희천3호발전소건설장에서 나는 뜻밖에도 10년전에 한번 만난바 있는 고향동무와 반갑게 상봉하였다.

나보다 나이가 아래이지만 그도 이젠 50개를 찍 넘어섰으니 인생의 가을이 멀지 않은셈이다.

그런데도 발전소건설돌격대에 탄원해나온 그 사실이 놀라웠고 그가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젊어보이는것이 또한 신기했다. 10년전에 송원군의 한 지방공장 창고원으로 일하던 그를 만났을 때보다 더 젊어보이는것이였다. 동그스름한 얼굴엔 볼그레 홍조가 어리고 클사 한 눈엔 영채가 돌았다. 목소리에조차 청춘의 정력이 느껴졌다.

《박동문 더 젊어졌어. 정말이야.》

나는 상봉의 기쁨을 금치 못하여 그의 손을 잡아 흔들며 말했다.

《허허, 약동하는 일터에서 청년들과 손발을 맞추는데 왜 젊어지지 않겠나. 이런 건설장은 사람들도 젊어지게 하지요.》

랑만이 넘친 그의 대답에 나는 공감되였다.

그는 5년전에 희천발전소 물길굴건설돌격대에 탄원하여 완공의 날까지 일했다고 했다. 그때부터 돌격대생활에 재미를 붙였다고 한다.

발전소가 준공된 후 공장에 돌아갔던 그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전당,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마음에 불이 붙어 돌격대에 다시 나왔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을 꽃피우기 위해 청천강이 막 끓는데 먼곳에서 보고만 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속에서 힘들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주방화구를 보라, 고정직일을 서라 하는 지휘판도 있습니다.》

그는 판통된 물길굴확장작업을 하는 갯안에서 청년들과 같이 함마질도 하고 버럭맞들이도 들고 달린다는것이였다. 저녁에 또 만나자면서 갯안으로 활개쳐 사라지는 그의 뒤모습에 나는 후더운 눈길을 보내었다.

갯안에서 버럭을 실은 광차가 두줄기 소철레루를 타고 연방 나왔다가 들어가군 했다.

갯밖에 벌려놓은 발전기설치초굴착공사장 역시 기세가 충천했다. 암반을 뚫는 착암기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발전기설건설장안은 말그대로 불도가니였다. 버럭처리를 하느라 뛰어다니는 희천시의 수

백명 녀성지원자들이 법석 들끓었다.

이자 박동무가 한 말이 귀에 쟁쟁 되살아났다.

《이런 건설장은 나라를 약동하게 하고 사람들도 젊어지게 하지요.》

그 말이 옳다.

물림언제와 희천발전소언제가 우람차게 솟아나고 희천1호, 2호발전소가 완공되면서 그 일대가 얼마나 놀랍게 변모되었는가. 심심산골에 바다같은 대인공호수들이 생겨나고 풍치수려한 호수를 끼고 희한한 선경마을들이 솟아났다.

희천2호발전소가 자리잡은 곳에도 볼수록 경탄을 자아내는 문명의 경치가 펼쳐졌다. 넓게 뻗은 아스팔트도로며 석출로 규모있게 줄지어선 똑같은 모양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며 하얀 담장안의 금방 파란 잎이 피기 시작한 과일나무들이며... 정말로 선경이였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자랐는가.

금방 교문을 나선 애어린 처녀도 나이는 책상머리 사무원도 돌격대물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무척 처럼 강해지고 역세여진다.

돌격대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국가표창수훈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가. 이자 만난 고향동무도 발전소건설장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받아안았다고 했다.

그의 성격도 판판 달라졌다. 그전엔 잔잔한 호수였는데 오늘 보니 청천강의 여울목물결이였다. 청년들과 어울려 맞들이도 들고 함마질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체육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이같이 않게 그리고 그전같이 않게 민활해지고 유쾌해졌는가.

약동하는 나라, 젊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생각하느라니 내가 사는 거리의 변모된 모습도 눈앞에 펼쳐진다.

거리마다 유원지와 공원들이 새로 꾸려지고 공장 건물들과 봉사기관들, 고층살림집들이 새옷을 바꾸어입은듯 한껏 아름다와졌다.

갓가지 색깔의 불빛이 황홀경을 펼쳐놓는 밤풍경은 또 얼마나 장관인가. 유원지와 공원들은 밤이면 불꽃발이다.

생각은 내 사는 거리를 벗어나 마식령스키장으로, 세포등판으로, 룡라인민유원지로, 문수물놀이장으로 뻗어간다.

권경도앞에서

전수철

선으로만 그어지고
색으로만 채색된
한쪽의 그림이 아니다
위성과 학자거리 전경도 여

아직은 거리의 모습
전경도처럼 볼수는 없지만
아직은 탁 트인 거리에 흐르는
행복의 물결은 볼수 없지만
문명의 령마루로 치닫는
내 조국의 역센 기상인양
땅을 차고 기적같이 솟아날 이 거리

얼마나 원대한 뜻
네 바탕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숭고한 사랑이
네 모습에 비껴있고
얼마나 크나큰 믿음이
네 이름에 빛발치느냐

만일 저 하늘 별나라에
사람들이 사는 멋진 거리 있다 해도
그들조차 부러워 찾아올
그리고 눈부시고
그리고 환홀한 이 거리

여기서 우리 과학자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 마음껏 누리라고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위성을 쏘아올리며
주체과학으로 내 조국을 빛내라고
사랑담아 믿음담아
원수님 펼쳐주신 행복의 설계도

내 지금
 땅이 번개를 치면
 퇴성벽력으로 화답해나서는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거대한 격류로 굽이쳐오는 여기서
 바쳐야 할 땀의 무게를 생각하며
 청춘의 가슴 뚫어나니

위성과학자거리전경도여
너는 한쪽의 그림이 아니다
나는 네앞에서 벌써 보고있다
원수님 눈부신 그 리상이
현실로 꽃피날 그날의 그 모습
이름처럼 찬연히 솟아 빛날
내 조국의 희하한 또 하나의 명화폭을

아, 전경도여
너는 그림이 아니다
우리 세우는 위성과학자거리
세월의 눈비에 토색을 모르는
김정은시대의 자랑찬 화폭으로
천만년 길이길이 빛을 뿌리리라

며칠전에 평양시를 다녀온 한 중년녀인이 하는 말이 신비스럽기 그지없는 문수물놀이장에서 한번 물놀이를 하고나면 1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다는 것이었다.

정말 박동무말 그대로 나라도 젊어지고 사람들
도 젊어지고있다.

이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가 완공되면 이 일대는 또 얼마나 희한해지겠는가. 이곳에서 내는 열과 빛으로 하여 나라는 얼마나 더 밝아지고 부흥해지겠는가.

그렇다. 그래서 밤낮을 가림없는 건설자들의 투
쟁은 것처럼 벽차고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가는

사람들 그리도 희열에 넘쳐있는것이다.

정녕 그렇다. 아까 박동무가 말한것처럼 우리 원수님의 구상을 받들고 만복의 강 청천강은 장엄하게 끓는다.

오, 청춘의 강 보배강이여, 강산도 사람들도 젊어지는 그 모습 비껴안고 장쾌하게 흐르는 푸른 물결이여, 너의 물소리 희망의 노래, 투쟁의 노래, 행복의 노래가 아니냐.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이시고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해빛아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념원 활짝 꽃피는 이 세월을 물결이여, 천만
년 길이 전하랴!



서 칭 송

명수에게 있어서는 뜻밖이었다.

군인민위원회나 재교육강습소에 배치받을 줄 알았던 자기가 어떻게 되어 읍과 멀리 떨어진 농촌학교에 가게 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장수고급중학교!

실력으로 보아도 그렇고 생활환경으로 보아도 도무지 타당성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한 명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군적으로 손가락에 꼽을만 한 콤피터수재였으며 집도 읍중심에 있었다. 만약 리에 간다면 합숙생활을 하여야 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물론 생활에서는 좀 불편하겠지만 교원이야 어느 학교에 가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사업을 잘하면 될것이 아닌가. 교원생활 3년, 길지는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가 있던 학교에서는 얼마나 떠받들리며 살았는지 모른다.

하성중학교 교장은 교원생활의 첫걸음을 떼준 잊지 못할 스승이나 같았다.

12년제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고 그후 하성중학교가 초급중학교로 되면서 많은 교원들이 고급중학교로 떠나기도 하고 새로 오기도 했지만 교장은 그가 떠나는것을 제일 아쉬워했다.

정국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같은 실력가들이 고급으로 가는것은 응당 한거지. 그런데 아까운 인재들 훌 보내자니 참 섭섭하구만. 어쨌든 새 학교에 가서도 일을 잘하기 바라오. 그 학교교장이 보통 아니요. 체육에선 군적으로 1등이지, 명수선생도 젊었으니 배짱이 맞을거요.》

정국교장의 그 말을 들으면서 명수는 새 교장의 모습을 제나름대로 그려보았다. 체육가라니 얼마나 결쾌있고 씨원씨원하겠는가.

그는 이름도 없는 그 산골학교에서 젊은 시절을

빛내이고싶었다. 그러느라면 교원으로서 자기 이름도 빛나고 인생의 다음목표에도 빨리 도달할수 있지 않는가. 때가 되면 군에서도 나를 그곳에 그냥 놔두지는 않을것이다.

교육부장도 그렇게 말했었다.

《그 학교에서 몇년쯤 본때를 보이오. 비록 읍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수재가 될만 한 학생들은 많을거요. 그런 산골에서 수재가 나와야 교원의 보람도 커지는 법이요. 어쨌소, 떠나겠소?》

《가겠습니다.》

명수는 지금 자기에게서 새로운 희망이 나뉘고 있음을 느꼈다.

한적한 산골, 수림우거진 향촌의 아이들...

그들이 명수를 얼마나 신비스러운 존재로 바라볼것인가.

그 순간 명수는 설경이를 생각했다.

풀잎에 이슬같이 청신하고 아름다운 설경이! 그도 읍과 멀리 떨어진 산골마을 분교의 교원이다.

명수는 설경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어머니가 사위까지 교원으로 맞겠다고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수는 그때 웃으며 장담했다.

《걱정 놓소, 내 이제 교장 아니, 교육부장도 할테니...》

그 말에 설경은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었다.

명수는 흐뭇한 심정으로 새 학교를 향하여 떠났다. 그는 이 길이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

수삼나무가 미칠하게 울러뻗은 교정에 들어서니 이마가 흰칠하게 벗어진 교장선생이 축구공을 손에 쥐고 풀문대앞에 서있었다.

그 좌우로는 여러명의 교원들이 명수를 환영하려고 나왔는지 꽃다발을 손에 들고 주런이 서있었다.

명수는 교장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군교육부만 축구경기때 그에게 망신을 당한적이 있었던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교장일줄이야.

명수는 다가가 인사를 했다.

《교장선생님, 전 이 학교에 배치받아오는 교원 강명습니다.》

《반갑소. 교장 리송직이요.》

인사말이 끝나자 송직교장이 명수에게 공을 안겨주며 말했다.

《배치받아오는 교원에게 공을 채우는건 우리 학교의 전통이나 같소. 내 세번의 기회를 주겠소. 그 중에서 두알만 넣으면 합격이요. 하지만 한알도 못 넣으면 환영받을 생각을 하지 마오.》

《예?!》

(사람들이 《꼴교장》이라고 한다더니...)

명수는 첫시작부터 주눅이 들고있지 않아 공을 별차기지점에 놓고 문대로 눈길을 향했다.

그의 머리속에는 세꼴을 다 넣어서 본때를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슛—

자신만만해서 찾지만 공은 이미 송직교장의 손에 쥐어져있었다.

얼마나 날래게 공을 받는지 전문체육선수들에게서 볼수 있는 멋진 장면이었다.

두번째 공 역시 실패했다. 송직교장은 정말 숨씨가 팬찮았다.

명수는 마지막기회나 같은 세번째 공을 놓고 손에 땀을 쥐었다. 이것마저 못 넣으면 자기의 첫인상이 흐려질것이었다. 그러면 송직교장에게 처음부터 지는것으로 되며 그후로는 자기를 어떻게 보리라하는것이 불보듯 뻔했다.

명수는 세번째 공은 어떻게 해서나 넣어야 한다는 오직 한생각에 움해 최대의 긴장성을 안고 공과 교장을 바라보았다.

그런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 송직교장은 눈을 끔찍했다. 체면을 봐서 한번쯤은 눈감아주려는 모양이었다.

슛—

송직교장은 공이 날아오는 반대방향으로 뻗었다. 도무지 실수할것 같지 않던 동작이었다.

그러나 공은 명수나 교장의 뜻대로가 아니라 전혀 왕청같은 곳으로 날아가버렸다. 너무 긴장했던 탓에 공이 문대를 제대로 겨누지 못했던것이다.

교원들속에서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송직교장이 명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긴장했던 모양이구만. 후에 한번 다시 차보지요.》

명수는 그러한 송직교장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주름진 이마밑에 불이 이는듯 한 열정의 눈빛, 우뚝 선 코날과 꼭 닫긴 입술, 짙 버그러진 어깨, 명수의 눈에 비친 송직교장의 모습은 어느 체육단의 요구성높은 축구감독을 연상시켰다.

송직교장은 공을 천체로 청사에 올라갔다.

명수의 온 얼굴엔 콩알같은 땀방울들이 돌아났다. 항상 리지적이고 침착하던 그의 눈빛이 항방을 잃고 허둥거렸다.

이때 학교교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그의 주위를 빙 둘러쌌다.

《우리 학교에 온걸 축하합니다.》

명수는 불쾌한 기분을 잊으려고 애쓰면서 교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살이 남짓해보이는 한 교원이 그에게로 다가서며 말했다.

《난 김창로라고 하오. 우리 교장의 첫인사가 어떻소?》

명수는 얼굴이 활짝 붉어져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가 본 창로는 두툼한 근시안경을 끼었는데 마치 온 얼굴에 안경만이 있는것 같았다.

《배치받은 날에 다 그런 시험을 치오. 녀교원들까지 말이요.》

《녀교원들까지요?...》

명수는 녀교원들까지 공을 채운다는 말에 입을 딱 벌렸다.

마치 자기가 어느 체육단에 시험을 치러 온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이제야 이 학교가 군체육경기때마다 군적으로 1등하는 비결을 깨달았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교수는 차요시될것이 아닌가. 학교는 교수가 기본이다. 그것을 떠난 학교란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명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의 현란한 꿈이 붉은처럼 녹아버릴것만 같아 마음이 언짢았다.

그러는 명수의 모습을 보며 창로가 안심을 시키듯 말했다.

《물론 녀교원들은 룡구장에서 벌넣기시험을 치오. 그렇지만 우리 교장선생이 야박하지는 않소, 거의 합격을 주었으니까.》

명수는 그 말이 더 가슴을 찢었다. 어쩌면 자기도 합격될수 있었던것을 너무 긴장했던탓에 망신만 당하지 않았는가.

명수는 자기의 성격적약점을 알고있었다. 침착하다가도 일단 흥분되면 좀처럼 건잡을수 없는 성질이다. 그래서인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를 많이 했다. 오늘도 실수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물론 그는 축구엔 흥미가 없었다. 대학시절 머리

힘을 하느라고 다른 유희체육을 좀 했지만 축구에만은 전혀 발을 들이지 않았다. 대신 탁구나 정구, 바드민턴 같은 운동반경이 작은 체육종목을 즐겨했다. 그런것으로 해서 축구경기때마다 빠지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그를 축구선수로만은 뽑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학교의 첫인사였을뿐아니라 너무도 쉬운 공차기였던것이다.

아마 중학생에게 공을 주었어도 한풀쫄은 넣었을것이 아닌가.

명수는 송직교장에게 한풀 먹은 심정으로 교원들에게 이끌려 청사에 올라갔다.

학교는 깨끗하게 꾸려져있었다.

운동장과 교재림은 물론 결불안이라고 청사도 산뜻했다.

복도벽에는 최우등한 학생들의 사진과 함께 모범교원들의 사진도 나란히 걸려있었다.

명수는 그속에서 창로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명수는 창로에게 진심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모범교원이었구만요?》

그의 말에 창로가 얼굴을 붉혔다.

《부끄럽소...》

《예?!》

명수는 리해가 가지 않아 창로를 뻔히 쳐다보았다.

부끄럽다니, 무엇이 부끄럽단 말인가. 모범교원이 된것이?...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명수는 창로의 사진옆으로 여섯명이나 되는 모범교원들의 모습과 10월8일모범교수자인 송직교장의 사진까지 보고는 더욱 깜짝 놀랐다. 이렇게 실력이 높은 학교가 왜 아직 군에조차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알수 없었다.

명수는 자기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 때 생각했던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던것이다.

창로는 벽에서 눈길을 못 떼는 그에게 심드렁해서 말했다.

《우리 교장선생님께 교원수첩이라는것이 있는데 우리 교원들의 진짜실력이 거기에 다 적혀있소. 난 그 수첩에 〈보통생〉으로 올라있더구만.》

《예?! 그럼 대학을 보통으로...》

창로의 얼굴이 벌겋해졌다. 그는 손으로 안경을 추스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난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소. 하지만 교장 선생은 교원들을 평가할 때 대학졸업증이나 명예칭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오. 그것도 다방면적이고 다재다능한 실력이요. 한과목을 잘 배워주면 락제생, 두 과목을 잘 배워주면 보통생, 모든 과목

을 다 정통하면 최우등생으로 평가한단 말이요.》

명수의 온몸으로는 수치감 비슷한것이 짜릿이 흘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도 역시 보통생이었던것이다.

보통생이라, 보통생취급을 받자고 여기를 왔던가. 아니다, 절대 보통생이 될수 없다.

그는 마음을 도사려먹고 첫 교수안을 완성했다. 교장에게 본때를 보이겠다는 생각이 그 교수안에 온넛을 쏟아붓도록 하였던것이다.

명수의 교수안을 다 본 송직교장은 만족한듯 웃음을 병긋이 지었다.

《명수선생이 수재라고 하더니 정말 실력이 있구만. 컴퓨터나 수학에선 누구도 못 당하겠소. 명수선생, 우리 교원들부터 좀 배워주오. 아직도 교원들의 자질이 높지 못하단 말이요. 내 그래서 교원들로 자연과학학습을 하자는거요.》

《예?! 자연과학학습을 말입니까?》

명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학교에 자연과학학습반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고 있다고 해도 이제 겨우 20대 후반기에 들어선 그가 어떻게 나이많은 선생님들을 배워준단 말인가.

대학생도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있는 같은 교육자들을 배워준다는것은 생각만 해도 험치 않을것 같았다.

물론 군에서 조직하는 재교육강습때는 나이 많은 교원들도 배웠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전 공분야에서 서로 토론하고 새 지식을 교환하는 식으로 학습했다.

명수는 자기 심정을 솔직히 말했다.

《교장선생님, 의도는 좋지만 교원들이 받아물겠습니까. 전공만 하자고 해도 힘들텐데 다과목을 배워주어야 하는 학습반을 운영한다는것이 학교실정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송직교장은 리해가 되는지 머리를 끄덕이였다.

《힘들겠지, 그러나 해야 하오. 동무도 알겠지만 현대과학기술은 분과 초를 다루며 발전하고있소. 내 요즘 자료를 보니 세계적으로 해마다 출판되는 과학기술도서는 12만종이 넘었고 새 지식론문만 해도 1만 4천권이상 된다고.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의 로화주기는 18세기에 80~90년이었던것이 20세기초엔 30년, 최근 50년간에는 15년, 현재는 5년, 2년, 1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오. 그러니 1990년대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지식은 전부 〈로화〉되었단 말이요. 물론 그동안 새 지식보급도 하고 자질도 높였지만 전문화하지 않고는 거부가 될수 있소.

명수선생, 우리야 당이 맡겨준 인재강국건설의 최전선에 서있는 교육자들이 아니요. 후대들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자면 그 담당자들인 우리들부터 배워야 하오. 내 그래서 선생을 군교육부에 제기하

여 우리 학교에 데려왔던거요.》

《예?!》

명수는 교장의 깊은 뜻이 담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만 감동되고말았다.

송직교장은 앞으로 제기되는 학습반운영과 명수가 말하할 수업과정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넉넉히 물었다.

《선생은 수학과 컴퓨터과목이 전공이지? 옹소?》

《예?!》

순간 명수의 얼굴은 불앞에 다가선것처럼 화끈 달아올랐다. 그것은 창로선생의 말이 떠오르면서 마치도 송직교장이 《보통생이더구만.》하고 말하는것 같았던것이다.

송직교장은 또 이렇게 물었다.

《수학이나 컴퓨터 말고 어떤 과목을 또 할수 있소?》

명수는 자신있는 과목을 꼽았다.

물리, 생물, 화학, 외국어, 역사까지 그는 자신있다고 대답했다.

송직교장은 흡족해서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자기에게 보배덩이가 굴러든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던것이다. 그럴 때면 그는 버릇처럼 병긋이 웃곤 했다. 그의 벗어진 이마로 웃음의 잔물결이 흘러갔다.

명수도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쯤하면 실력은 합격이나 같은것이다.

축구에서는 한꼴을 먹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한꼴을 넣은것만 같았다.

그러나 송직교장의 다음말은 그를 실망하게 했다.

《문학이나, 체육, 음악 같은건 배워줄수 없소?》

《예?!》

명수는 말이 나가지 않았다. 말타면 견마잡히고 싶다고 송직교장의 욕심과 요구성도 끝이 없는것 같았다.

송직교장은 병어리가 돼버린듯 한 명수를 향해 그루를 박듯 말했다.

《배웁시다. 힘들건 없소.》

《...》

창로는 학교에서 인심이 후하고 경우가 밝은 교원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남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데는 물론이고 교직원들의 집과 학부형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일감만 생기면 찾아가서 도와주곤 했다.

학교뿐아니라 리에서도 그의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별반 없었다.

늘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그의 재간은 또

얼마나 좋은지 미장, 구들수리는 물론이고 전자제품이 고장나도 사람들은 그를 먼저 찾았다.

사람들은 남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는 그를 두고 《고마운 선생님》이라고 정답게 불렀다.

하지만 다재다능한 그도 눈이 근시인 탓에 축구만은 할수 없었다. 조금만 뛰어다니면 땀이 안경을 적시는데 그때부터는 편이 따로없이 망탕 공을 차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편의 미움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배치받던 날에 교장에게 꼴을 넣는 기적을 세워 하나의 일화를 만들어놓았다.

창로 역시 몇년전에 다른 학교에서 조동되어온 사람이였다.

그때 창로는 교장의 첫인사가 뭔가를 미리 알고 제것과 똑같은 안경을 준비해가지고왔다.

그는 첫인사로 공을 내미는 교장에게 안경을 마주 내밀었다.

《이건 뭐요?》

송직교장이 어리둥절해서 묻자 그가 히죽히 웃으며 말했다.

《공평한 경기를 합시다. 내가 안경을 썼는데 교장선생님도 안경을 껴야지요.》

《안경?!》

송직교장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했다.

《난 눈이 정상이요.》

창로는 그 말에 웃주머니에서 종이장 하나를 꺼내서 펼쳤다. 그것은 병원에서 그가 근시임을 확인한다는 이틀레면 확인서였다.

창로는 마치 대단한 증명서나 되는듯 활짝 펼치고 말했다.

《내겐 법적문건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병원의 공인도 있습니다. 난 안경을 끼여야 한다고 공인을 해주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안경을 끼면 안된다는 그 무슨 법적문건이 있습니까?》

《없소, 세상에 그런것도 있소?》

물리는 송직교장을 보면서 옆에 있던 교원들속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송직교장은 체면이 있는지라 더 우기지 못하고 하는수없이 안경을 낀채 문대앞에 서게 되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안경을 낀 교장은 하늘땅이 빙글빙글 돌아가는지 몸자세가 허둥허둥거렸다. 그야말로 안경낀 소경이 된것이다.

송직교장은 그래도 날아오는 공을 잡아보려고 힘껏 뻗었지만 공대신 창로의 벗겨진 신발을 짹 잡은채 문대에 머리를 짓궂고말았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희비극이였다.

송직교장은 안경을 벗고 제풀에 허허 웃더니만 청사로 올라가고말았다.

그후 창로는 학교에서 유일한 심판원이 되었다. 공을 몇번 채워본 교장이 그에게서 심판원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맡겼던것이다.

창로는 그것이 마치 자기 천성적인 직업이나 되는것처럼 경기때마다 특출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뿐아니라 생활에서도 심판원노릇을 곧잘했다. 하기에 교원들의 론쟁의 마당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옳고그름을 명백히 가르는데서는 경우가 밝은 것이 상 없었던것이다.

그는 자기를 《국제심판원》이라고 자칭해 불렀다.

송직교장도 창로의 사람됨을 알고 학교의 모범 교원으로 내세웠으며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해주었다. 그럴수록 그는 더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았다. 아마 그것이 사람들을 끄는 그의 미덕인것 같았다. 그런 사람이기에 학교교원들도 그를 교장처럼 존경했고 따랐다.

그런데 강명수가 온 다음부터 교정의 수삼나무처럼 든든히 뿌리박았던 창로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송직교장이 조직한 자연과학학습반이 교요하고 안온하게 흘러오던 그의 교원생활에 폭풍을 불러왔던것이다.

그는 소조운영을 앞두고 명수를 찾아왔다.

창로는 안경을 수건으로 닦으며 동자가 풀린 눈으로 명수를 바라보았다.

설된 머리칼과 작은 머리, 체소한 몸으로 하여 다시 안경을 끼었을 때 명수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보잘것없이 초라했다. 마치 온 얼굴에 안경 하나만이 있는것 같았다.

창로는 힘들게 말했다.

《명수선생, 거 학습반 말이요. 나이많은 사람들은 좀 고려해야 하지 않겠소. 나같이 2년있으면 들어갈 사람에게 전공도 아니고 자연과학을 학습시킨다는것이 꼭 시간낭비같구만. 그 말고도 솔직히 할일이 많지 않소. 나야 지리과목을 맡았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 밝고있는 땅이야 변하겠소? 그리고 음악교원이 화학을 배워서 는 또 뭘하겠소. 음악시간에 비누를 만들겠소? 허허...》

듣고보니 명수도 웃음이 나왔다.

창로는 간절하게 말했다.

《얼마 남지 않은 교원생활에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싶구만. 술한 일감이 날 지금 기다리고있소. 명수선생, 그러니 눈 좀 감아주오.》

명수는 그 후더분한 인정미에 끌리어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이 학교에 와서 신세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바로 창로였다. 교원합숙에 전기설비가 고장나도 그가 수리해주었고 어떤 때는 집아주머니까지 찾아와 그를 각근히 돌봐주곤 했다. 이

제 몇년 있으면 집에 들어갈 로교원을 괴롭힐 필요가 있겠는가.

명수는 그가 하고싶은 일을 하도록 놔두고싶었다. 그것이 명수로서 할수 있는 신세값음인지도 몰랐다.

명수는 배워야 할 교원들의 명단을 작성할 때 창로와 함께 이제 몇달있으면 집으로 들어가게 될 나이많은 교원들의 이름은 빼놓았다.

그런데 그 일이 송직교장을 노하게 할줄은 몰랐다.

명단을 다 본 송직교장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꼭꼭 짚으며 물었다.

《왜 몇명의 교원들이 없소? 창로선생, 내혁선생, 영란선생, 동선선생이름은 왜 안 넣었소?》

명수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기 심정도 말했다.

명수의 말을 듣는 송직교장의 눈에서 평곳 불줄기가 쏘아지는상싶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는것 같소? 지금 과학기술이 분과 초를 다루며 발전하고있는데 몇달이면 어쨌다는거요. 정말 한심하구만.》

송직교장은 격해진 자신을 다잡으려고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마셨다. 그는 나머지 물을 제라니움화분에 붓더니 의미심장한 눈길로 망울진 꽃을 보며 좀 수그러든 목소리로 말했다.

《명수선생, 우리 원수님께서서 무엇때문에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신것 같소. 난 우리 교원들이 원수님께서서 더해주시는 그 1년의 의미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보오.

1년,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품에서 자란 우리 교육자들을 믿으시고 그 1년에 창창한 내 조국의 100년대계의 설계를 하시었소. 그런데 우리 교원들이 분과 초를 쪼개가며 그이의 높은 뜻을 따르지 못할마정 한시간도 아니고 석달, 2년씩 태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내 조국의 시간이 그만큼 멈춰서지 않겠소. 난 그것이 가슴이 아프오. 우리야 미래를 키우는 원예사들이 아니요.》

명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그릇된것인가를 통절히 느꼈다. 그럴수록 송직교장에 대한 호감은 더욱 가는것이였다.

송직교장은 자신부터가 과학기술학습에 참가했다. 맨 앞자리에서 컴퓨터를 펼치고 수업을 받는 송직교장의 모습을 보면서 명수는 태일에 대하여, 밝아오는 우리 미래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

어느날 설경이에게서 명수에게 손전화통보문이 날아왔다.

《새 학교에 가신걸 환영합니다. 성과가 있을 때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설경 올림.》

명수는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는 아직 설경의 부모들의 직업이 뭔지 몰랐다. 오직 그의 아버지도 교육부문에 있다는것과 그래서 어머니가 사위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택하겠다고 했다는것만 설경에게서 어렴풋이 들었었다.

명수는 설경이면 그만이었다. 부모들이 뭘 하든 그것이 사랑에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오직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기에 명수는 설경에게 부모에 대하여 묻지 않았고 알아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명수가 설경을 알게 된것은 1년전 교수경연때였다.

설경은 우선 특이한 옷차림으로 교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항상 흰색옷을 입고다녔는데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뽁뽁 뛰어나왔다. 그럴 때면 백조가 깃을 펴고 날아가는것처럼 아름다웠다.

더구나 컴퓨터과목교원들이 거의 남자다하니 설경은 숲속에 홀로 핀 산나리꽃처럼 특별히 도드라졌고 청신했다. 그것은 마치 화분을 옮겨온것처럼 온 강습소에 환한 빛을 주고 총각교원들이 슬금슬금 결눈질을 하게 했다.

하지만 꽃을 꺾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 산나리를 명수가 꺾게 되었다.

사실 명수와 설경은 실력에서 첫자리를 다투는 경쟁자들이었다. 그래서인지 서로가 반했고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대했다. 명수의 늘씬한 키와 정열에 불타는 눈빛, 침착하다가도 일단 불이 달리면 온몸이 활활 타번지는 그 사나운 모습과 높은 실력이 설경을 끌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날 명수는 설경이가 자리를 뜬 사이에 그의 휴대용컴퓨터에다가 자기 심정을 담은 글을 새겼다.

《사랑합니다. 강명수.》

명수는 그것을 다매체화해놓고 설경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것도 모르는 설경이 컴퓨터를 펼쳐보다가 그 다매체화면앞에서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경치좋은 숲을 배경으로 큼직큼직하게 새겨지는 명수의 고백은 처녀의 심장을 뽁뽁 두드렸다.

그렇지만 설경은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명수의 심장에 더 큰 불을 달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차마 터놓지 못하던 그들의 사랑은 도쿄수경연의 나날 드디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그 못 잊을 밤, 인적드문 산골역, 길게 울리던 기적소리...

깊은 밤, 역에 홀로 내린 설경은 역기다림칸에 찾아들었다가 거기에 있기를 단념하고 분교로 떠났다. 다음날에는 방학을 마친 아이들에게 새 학기 첫 수업을 하여야 했던것이였다.

정작 밤길을 걷자니 무서움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바람에 나무잎 굴러가는 소리조차 짐승의 으르렁소리처럼 들려왔고 폐부속에 늘 향기롭게만 스며들던 산골의 고유한 송진냄새도 이상야릇한 냄새로 오싹하게 풍겨왔다.

설경은 무서움을 쫓느라고 안간힘을 쓰며 걷는데 언제부터인지 누군가가 자꾸 뒤를 따라오는듯한 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설경은 속이 후들후들 떨리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것 같았다. 그렇다고 보일듯말듯하게 따라오는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쳐 부를수도 없었다.

인적없는 산골에서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다. 설경은 뛰기 시작했다. 뛰면 무서움이 좀 없어지는 법이다.

설경은 돌부리에 걸쳐 넘어졌다가는 또 뛰어갔다. 드디어 가까이에 분교합숙의 불빛이 보여왔다.

설경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합숙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박자박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합숙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누구예요?》

설경은 합숙문을 꼭 닫고 기겁하여 소리쳤다.

밖에서 웅글은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경선생! 나요.》

《예?!》

분명 명수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었다.

쏟아져나오는 불빛에 산길을 걸어온 명수의 모습이 확 안겨왔다. 그의 손에는 설경이가 들고오던 교구비품가방이 쥐여져있었다. 설경이가 넘어지면서 떨군것이 분명했다.

(그럼 나를 지켜주자고...)

그렇다, 명수는 설경이의 밤길이 걱정되어 슬그머니 뒤를 따라왔던것이다.

그들은 한동안 못박힌듯 그 자리에 서있었다. 오직 불타는 눈길만이 어둠속을 뚫고 서로의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명수의 말은 짝막했다.

《난 가야 하오.》

《예?! 이밤중으로요?...》

설경은 명수를 붙들지 못함을 알았다. 그 역시 태일이면 새 학기 수업을 해야 했던것이다.

오직 이제 70리길을 가야 할 그에 대한 생각밖에 떠오르는것이 없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설경은 합숙으로 뛰어 들어가 자전거와 함께 보자기로 싼 꾸레미를 들고나왔다.

《고마웠습니다.》

명수는 다른 말이 없이 자전거를 끌고 돌아섰다.

그는 어느 한 고개중턱에 올라서서 설경이가 넣어준 보자기를 풀었다.

그 보자기에는 먹음직한 복숭아와 쪽지편지가 있었다.

명수는 쪽지편지를 서둘러 펼쳤지만 희미한 달빛마저 소나무에 그늘이 저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주변을 휘둘러보다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갔다. 그리고 달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를 뜯어먹다싶이 한자한자 읽었다.

《명수선생님, 사랑합니다!》

명수는 온몸에 불길기 확 켜여지는 충격적인 흥분으로 하여 쪽지를 하늘높이 쳐들고 소리쳤다.

《설경이!—》

환희에 가까운 그의 웨침소리가 온 산골을 찌렁 찌렁 울렸다.

교원모임에서는 군축구경기출전을 위한 선수명단을 발표했다.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진행하는 군교육부문 축구경기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장선생은 명수의 이름을 제일먼저 불렀다.

공격수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모든 교원들의 눈빛이 그에게로 모아졌다. 그도 그럴것이 명수는 공을 찰줄 모르는 교원으로 인정되었기때문이었다.

원래 있던 학교도 군축구경기에 몇번 나갔지만 그때마다 명수는 선수명단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태양절날 한명의 선수가 발목을 상하는 통에 대신 나간적은 있었으나 명수가 차는것을 보다못해 후반전부터는 나이많은 정국교장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 대전한 팀이 바로 장수중학교(당시)였다.

명수가 그만 연락을 잘못하여 자기 문대로 공을 날려보내자 경기장에서 함께 뛰여다니던 송직교장이 땅에 풀썩 주저앉아 배를 쥐고 웃던 모습은 아직도 그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져있었다.

그런 사연을 알면서도 왜 굳이 참가시키려고 하는가.

명수는 이름할수 없는 마음속 고충을 묵묵히 새기며 머리를 들지 못했다.

교원모임이 끝나자 선수로 뽑힌 다른 교원들은 신심에 넘쳐 방을 나섰지만 명수만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교원들이 다 자기를 비웃는것 같았다.

창로가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명수는 교장방으로 찾아갔다.

《교장선생님, 어째서 저를 공격수명단에 넣었습

니까? 선생님도 제 수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송직교장은 단마디로 대답했다.

《알기때문에 선생을 기본선수명단에 넣은거요.》

《예?!》

명수는 놀라움보다 혹시 교장의 머리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부터 들었다.

알면서 그럴수 있는가. 학교의 명예가 좌우되는 판에...

그가 별의별 생각을 다하고있는데 송직교장이 말했다.

《명수선생, 전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육자요. 지금 온 나라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부글부글 끓고있는데 체육후비를 키워야 할 우리 교원들이 축구를 못해서야 되겠소. 우리가 최우등생일 때 학생들도 최우등생이 된다는걸 명심하오.》

명수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나왔다. 그는 이제라도 축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어깨가 축 처져 복도로 걸어가는데 창로가 목에 호각을 걸고 다가오다가 그를 찾았다. 아마 훈련감독과 심판사업을 또 맡은 모양이었다.

《이젠 주객이 바뀐것 같소, 허허...》

창로는 히죽이 웃으며 그의 손목을 이끌었다.

《나도 좀 만나려했는데 우리 집에 가지요. 별새 날도 어두워지누만. 내 오늘 합숙생에게 소박한 저녁식살 대접하지.》

명수는 끌리다싶이 해서 그의 집으로 갔다.

명수는 그의 집안에 들어서며 깜짝 놀랐다.

방안이 얼마나 험란한지 있어야 할것은 물론 없어도 되는것까지 다 갖추어져있었다.

전실에는 여름바다를 형상한 시원한 풍경화가 있었다. 부엌문사이에 드리운 연보라빛가림천은 화려하다기보다 사치한감을 주었다.

《집을 잘 꾸렸군요. 사모님이 꽤나 섬세한 모양입니다.》

《필...》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시건설대에 있는 내 제자가 꾸려준거요. 고마운 일이지. 졸업을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승을 못 잊어서 찾아오고있지 않소. 내 그래서 교육자가 된걸 긍지로 생각하오.》

명수는 집살림에 비해 항상 텅텅하게 하고다니는 창로가 이해되지 않아 다시 물었다.

《선생님은 살림도 궁색한것 같지 않은데 어째서 옷차림에 신경 안씀니까?》

창로는 눈웃음을 짓고 제가 입은 옷을 한번 힐끔 훑어보며 말했다.

《옷 말이요? 잘 입어선 될하오. 그저 이 차림이 좋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간격을 두지 않고

찾아오지 않겠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교원이 티를 내면 속을 잘 주지 않소. 우리야 교원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소.》

명수는 그 말이 옳은것 같기도 했다. 창로는 얼마든지 그럴만한 사람이었다. 남을 위해서 바치는 그의 진정은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을수록 감동되는 말이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창로는 속에 있던 말을 꺼냈다.

《거 자연과학학습반 말이요. 내 시간이 바빠 그러는데 과제를 주고 숙제를 해오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소. 나도 결심이 확고하오. 배워야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하지 않소. 그래서 잠시간을 내어 숙제를 하는 식으로 하자는거요. 내가 만약 건달을 부리거나 숙제를 안해오면 그땐 이 귀를 잡아끌어서라도 배워달란 말이요. 그럴 땐 내 스스로가 벌을 받겠소.》

명수는 진정이 비진듯 한 그의 말에 공감이 되어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배우면 되지 않는가.

창로는 오히려 명수를 걱정하며 말했다.

《축구 말이요. 어찌겠소, 선생도 바쁘겠는데 내 눈감아줄테니 그러저럭 넘기오.》

《아니요.》

명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배우겠습니다. 나야 젊지 않았습니까.》

명수는 자존심이 흔들거렸다. 어떻게 해서나 축구도 잘해서 교장이 바라는 최우등교원이 되고싶었다. 그래야 학교에서 자기의 위치가 더 뚜렷해질것이라고 생각했다.

창로는 머리를 끄덕였다.

《좋구만, 그 젊음이 부럽소.》

명수는 많은 시간이 흐른것 같아 벽시계를 보았다.

그런데 시간은 들어올 때와 같았다.

《시계가 멎었구만요.》

창로는 히죽이 웃었다.

《우정 세운거요.》

《우정이요?》

창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난 식사를 하는 전설의 시계만은 돌리지 않소. 우리 교원들이 얼마나 바쁘오. 먹을 때만이라도 정지된 시간속에서 살아보자는거요. 얼마나 좋소. 배포유해지는게...》

명수는 창로가 이따금씩 지각하는 원인을 알수 있었다.

(정지된 시간속에서 산다. 참, 새로운 소리군.)

창로가 하는 수업을 교수참관한 송직교장이 교원

모임을 열고 그를 되게 닮아세웠다.

교수안이 몇년전부터 써먹던 그대로 낡고 틀에 박혔다는것이였다.

송직교장이 더 격분해한것은 다른 나라 산높이는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자기 고향의 산높이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는 두리뭉실하게 대답해준것때문 이였다.

송직교장은 격해서 말했다.

《나는 창로선생이 왜 날마다 변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계도간 석지가 건설되어 조국의 땅이 넓어지고 마식령과 세포동판, 새로 뻗어가는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비롯해서 이 땅에 기적과 전변의 력사가 흐르는데 어찌서 아직도 낡은 교수안에 매달려 우리 후대들을 속이고있습니까.》

안경을 낀 그 큰 눈으로 우리 조국을 좀 보시오. 그러자면 배워야 합니다. 지식의 눈이 어두우니 세상이 보이지 않는겁니다. 그리고 내 오늘 말이 난 김에 좀 합시다. 과학기술학습을 하지 않고 과제만 받아가지고는 리기술원을 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대필해온다는것이 사실입니까?》

《...》

창로는 불에 덴것처럼 얼굴이 빨개져 대답을 못했다.

명수 역시 속이 뜨끔했다. 그가 승인했던것 이다.

그런데 창로가 남에게서 대필을 해가지고 올줄은 생각 못했다.

너무도 멋들어지게 해오기에 이상한 생각은 했지만 그럴줄은 몰랐다.

송직교장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해서 필하겠습니까? 기한이나 채우다가 들어가면 그만이라는거지요. 그런데 선생이 빈둥빈둥하며 흘러보내는 그 시간에 우리 미래가 소경이 됩니다. 그 한초한초에 전진하는 조국의 시간이 멈춰선단 말입니다.》

그날 송직교장은 창로에게 수업정지처벌을 주었다.

창로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질듯말듯한 그의 안경이 겨우 코에 걸려있었다.

송직교장은 교원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아이들의 머리속엔 오직 정확한 지식만을 새겨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창로가 한 지리수업을 다시 조직했다.

그리고 송직교장자신이 교수안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창로는 자연과학학습반에 잘 참가했다.

그 역시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해내는 성격의 소유자였던것이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수 없는것 같다.

안간힘을 쓰며 젊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던 그가 끝내 쓰러져서 며칠동안 출근하지 못했다.

명수는 이를째되는 저녁에 병문안을 갔다.

문을 두드리니 뜻밖에도 송직교장이 나오는것이였다.

송직교장은 명수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창로선생, 우리끼리 맛있게 먹으려 했더니만 불청객이 뛰어드는구만, 허허— 할수 없지, 내쫓을수도 없고.》

창로도 웃었다. 그의 얼굴색을 보니 병이 좀 나은 모양이였다.

송직교장은 부엌일을 하는 안주인의 차림새였다.

창로의 안해가 만팔해산방조를 가다나니 면회왔던 송직교장이 주부노릇을 했던것이다.

《교장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송직교장은 물발린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며 말했다.

《이 선생이 아직 내 솜씨를 모르누만. 창로선생, 거 얘기 좀 해주오.》

창로가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우리 교장선생의 음식솜씨야 온 학교가 다 알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잘 만드오.》

《사랑을요?》

《부인이 젊어서 식료공장에 다녔으니 사랑 만드는 재간을 배웠겠지요. 안그렇습니까, 교장선생님.》

《틀렸소. 내가 배워주었지, 배웠을게 뭐요.》

송직교장이 부정하자 명수는 궁금해서 물었다.

《그럼 교장선생님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창로가 송직교장에게 전에 들려주었던 사랑이야기를 또 하라고 했다.

《그렇가?...》

송직은 싫지 않은지 이야기 서두를 뻔다.

《우리 처가 젊어서 식료공장을 다녔는데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느라 참 어려웠소. 그는 사랑작업반에 다녔는데 사랑을 하루에 10키로도 만들지 못해 애가 타 하더구만. 부족한것이 많을 때였으니까 오죽했겠소. 아침일찍 나갔다가는 저녁늦게야 들어오곤 했는데 교원인 나보다 더 바빴소. 그래서 내가 저녁이면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밥도 하곤 했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소.》

...딸을 업고 퇴근길에 오른 송직은 옛말 해달라고 칭얼거리는 딸에게 도깨비에 대한 옛말을 해주었다. 그런데 한참 오다보니 딸애가 잔등에서 잠이 들어 무겁기 그지없었다.

송직은 저도 모르게 안해에 대한 욕사발이 쏟아져나왔다.

그가 자기 안해를 사랑도깨비라고 한참 눈먼 욕

을 퍼붓는데 딸이 깜짝 놀라 깨어났다.

《아버지, 도깨비가 사랑이였나?》

천진한 딸의 물음에 송직교장은 생각없이 그렇다고 말해버렸다.

《나 무서운 사랑 안 먹을래.》

딸애는 꼭 쥐고있던 사랑봉지를 던져버렸다.

송직은 몇알밖에 안 남았던 사랑때문에 가던 길을 지체하고싶지 않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처는 아직도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뺨이 꿈틀거려 아이를 재워놓고는 식료공장으로 발길을 향했다.

안해가 일하는 작업반에 들어서던 송직은 그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굳어져버렸다.

정전된 속에서도 수동으로 사랑을 만들고있었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온통 땀으로 얼룩져서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장승처럼 멍하니 서있는 그를 발견한 세포비서가 다가왔다. 한 40쯤 되어보이는 녀성이였는데 그 역시 정상이 딸이 아니였다. 얼굴은 온통 얼룩지고 입술은 조갈병에 걸린 사람처럼 부르튼데다가 잠을 못 자서인지 눈은 시뻘겋게 충혈져있었다.

녀인은 미안해하며 말했다.

《가정부인을 오래 붙잡아두어서 미안해요.》

《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송직교장의 통명스러운 물음에 녀인은 힘들게 이야기했다.

《며칠전 우리 장군님께서 어느 식료공장을 찾으셨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하루에도 수천리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께서 글썽 사랑 만드는 직장에 오시여 우리 노동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셨다질 않아요. 장군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워 아이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것이 제일 가슴아프다고, 앞날에 조국을 떠받들어나갈 우리 미래들에게 사랑마저 넉넉히 먹이지 못하는걸 생각하면 전선시찰을 가다가도 가슴이 찢기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만들어보내주라고 간곡히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승리하고 잘살 날이 오면 그때는 사랑을 폭포처럼 만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안겨주라고 하시는데 글썽 그이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번쩍이더랍니다!》

그 녀인의 눈에도 맑은 눈물이 맺혀있었다.

송직교장은 그만 뜨거움에 젖어버렸다.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였으면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셨으랴. 언제면 우리가 그 위대한 후대판과 미래판을 따라배울수 있겠는가.

송직은 자책감에 빠져 안해와 함께 오면서도 준

비해은 욕 한마디 못했다.

송직교장은 그밤중으로 딸애가 내버린 사랑을 찾아가지고 왔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 한알한알은 조국의 사랑으로, 밝아오는 래일의 미래로 보였다.

그 사랑이 묻고있었다.

너는 교육자로서 어떻게 살고있는가?

송직은 다음날부터 자기 손으로 사랑을 만들었다. 그것을 유치원에도 보내주고 자기가 담임한 학생들에게도 나눠주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안해도 배워야겠다고 우스개소리를 하곤 했다.

그 시절에 리송직교장은 《사랑선생님》으로 불리웠다.

...

이야기는 끝났으나 세 교원의 눈가엔 뜨거운것이 맺혀있었다.

정말 잊지 못할 밤이었다.

며칠후 창로는 조국편답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것은 창로 스스로가 결심한 일이었다.

창로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소. 전진하는 조국의 시간을 멈춰세웠단 말이요. 내 이제 변모되는 조국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 원수님의 미래관, 후대관을 배워오겠소.》

송직교장은 회의가 있어 못 나왔지만 창로가 먼 령길에서 앓을수 있다며 약품을 준비해서 보내주었다.

창로는 눈물이 그렇게서 송직교장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령차에 올랐다.

×

한동안 소식이 없던 설경이에게서 소식이 왔다. 어머니가 반송낙을 하였으니 이번 교수경연에서 꼭 1등을 하고 함께 부모님들을 찾아뵙자는것이였다.

명수는 이번 교수경연에 자기의 운명을 걸었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전투를 벌렸다. 물론 군에서는 1등이 문제없었다. 하지만 이왕이면 도나 중앙경연까지 나가서 1등하고싶었다. 그래야 설경이 부모들도 제격 승인할것이 아닌가.

명수의 무지개꿈을 송직교장이 하루아침에 깨어버렸다.

그에게 컴퓨터교수경연이 아니라 문학교수경연에 참가하라는것이였다.

명수는 눈앞이 새까맣게 되었다.

전공도 아니고 련판된 과목도 아니고 생땅이나 같은 문학을 뛰지라니 이거야말로 개구리가 하늘을 날라는것이나 같은 말이 아닌가.

송직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난 선생이 컴퓨터나 수학을 가지고 교수경연에 나가면 1등 한다는걸 아오. 하지만 그건 자기 명

예나 만족시키겠지. 난 이번 기회에 선생이 문학을 배워서 자연과목도 화폭적으로 아이들에게 납득이 가게 배워주면 좋겠구만. 그렇게만 되면 자연과목도 문학처럼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수업도 재미나게 흘러갈거란 말이요. 그런 수업은 아이들의 머리속에서 잘 잊혀지지 않소. 난 이것을 해결하고싶구만.》

명수는 거절하지 못했다. 송직교장과 보낸 나날이 자기만을 위한 자신을 버리게 했던것이다.

(설경이, 미안하오.)

명수는 문학공부에 달라붙었다. 문학도서들도 탐독했고 작가나 기자들도 찾아다녔다.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오전엔 수업, 오후엔 축구훈련, 밤에는 문학공부로 하루 스물네시간이 치차처럼 물려있었다.

그러나 항상 그의 곁에는 송직교장이 서있었다. 언제나 이끌어주었고 떠밀어주었다.

송직교장은 그를 위해서 축구도 배워주었고 문학공부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도 빌려다주었다.

그 정성이 깃들어서인지 명수는 전공교원만큼 문학과목에 정통하게 되었다.

드디어 교수경연의 날이 왔다.

그의 정열적인 노력, 천성적인 두뇌와 다문박식한 지식, 송직교장의 남모르는 수고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 군적으로 2등을 했던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였다.

하지만 설경이의 일로 하여 기쁘지 않았다. 서운한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재교육강습소를 나서는데 그의 앞으로 사랑하는 백조가 날아왔다. 설경이였다.

쌍까풀진 그의 고운 눈에서 웃음이 찰랑거렸다.

《축하해요.》

그는 명수에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난 1등을 못했소.》

명수가 심드렁해하자 설경은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저기 누가 왔나 봐요.》

은행나무밑에 웬 녀인이 서있었다.

명수는 설경이와 함께 그리로 가며 물었다.

《누구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설경이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왔다.

《명수라고 했지. 수고했구만. 내 딸을 사랑해주라구.》

《고맙습니다, 어머님.》

설경이가 행복에 겨워서 속살거렸다.

《이 꽃다발은 아버지가 보낸거예요.》

《아버지?!》

명수는 그제야 물었다.

《아버지는 뭘하시오?》

설경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명수동질 보낸분이에요..》

《아니 그럼? 교육부장동지란 말이요?》

명수의 눈앞에는 교육부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설경은 명수의 생각을 짐작하고 말했다.

《이건 다 송직교장선생님의 덕분이예요. 우리 아버지가 비밀을 루설하는 바람에 송직교장선생님이 다 알게 되었어요. 교장선생님은 오늘 교수경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부탁했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참가하니 훌륭한 사위를 어서빨리 맞이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채가기 전에 데려오라고 어머니까지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자신도 몰랐다. 스승과도 같은 송직교장의 모습이 두사람의 얼굴로 떠올랐다. 그것은 교육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또 한 명의 훌륭한 교장의 모습이었다.

명수는 학교로 갔다.

명수가 교장방에 들어서니 송직교장은 컴퓨터앞에 마주앉아있었다.

그는 명수가 들어오는것도 모르고 열심히 컴퓨터 건반을 두드렸다. 그의 능숙한 손놀동에 따라 화면에는 다음의 글자들이 새겨지고있었다.

이름 강명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5년 7월 21일 성적 최우등

명수는 송직교장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교장선생님, 전 아직 최우등생이 못됩니다.》

송직교장이 뜨거운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다.

《알고있소. 하지만 나는 명예보다 실력을 평가하오. 선생은 최우등생이요.》

명수는 온 가슴을 휘젓는 뜨거움에 목이 짹 메어 이렇게 불렀다.

《선생님!》

예선부터 치렬하게 벌어진 축구경기는 결승의 마당에 와서 더욱 아슬아슬해졌다.

명수는 교장의 전술에 따라 예선경기엔 한번도 출전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결승경기장에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아연해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명수는 그동안 런마했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했다.

명수네와 맞선것은 그가 원래 있던 하성초급중학교팀이었다.

그들은 눈이 멩그래서 명수를 바라보았다.

그가 재치있게 공을 몰아 문전까지 돌입할 때면 폭풍같은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를 우습게 보

고 개인방어를 허술히 조직했던 하성초급중학교팀은 생각지 않게 런속 두꼴이나 먹었다.

결국 경기는 2 대 0으로 끝났다.

놀라운 현실앞에 정국교장이 명수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언제 축구를 배웠소?》

송직교장이 대신 말했다.

《명수선생은 최우등교원이요. 이쯤한건 아무것도 아니지, 허허...》

송직교장은 통쾌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이자 곧 승리자가 된 명수의 웃음이기도 했다.

얼마후 명수는 수학과목교수를 문학적으로 응용하여 중앙교수경연에서 특등상을 받고 10월8일모범교수자증서를 받았다.

그것을 들고 학교로 오는 명수의 마음은 최우등을 한 학생의 심정과 똑같았다.

×

명수가 학교운동장에 들어서니 처음 배치받아오던 그날처럼 송직교장은 공을 손에 쥔채로 문대앞에 서있었다. 그 주위에는 창로를 비롯한 학교의 전체 교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있었다.

명수가 문대앞에 이르자 송직교장이 공을 보내며 말했다.

《명수선생, 나를 향해 차오.》

명수는 쏘문대를 향하여 공을 날렸다.

슛—

공은 그대로 그물에 걸렸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울리고 교원들이 명수주위를 빙 둘러섰다.

《10월8일모범교수자가 된걸 축하합니다.》

명수는 그들이 안겨주는 꽃다발을 안고 송직교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

송직교장은 공을 가슴에 안아쥐고 빙그레 웃고 있었다.

《축하하오.》

《선생님!》

《명수선생.》

그들은 굳게 포옹했다.

떨렁—

꽃다발과 공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날 설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손전화통보문이 날아왔다.

《결혼승인받음. 승리를 축하함. 당신을 사랑하는 설경 올림.》

명수는 푸르른 조국의 하늘을 우려했다. 더 밝고 창창할 우리의 래일이 그의 눈가에 아름다운 화폭으로 비껴들었다.

깊은 뿌리, 알찬 열매

정 철 호

농부신 창조와 변혁의 시대가 이 땅우에 펼쳐지고 있다.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며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웅장하고 화려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설문학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에 발맞추어 지난날의 도식적인 틀거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인공이 지닌 남다른 성격을 발견하지 못한 작가는 붓을 들 권리가 없다. 작가는 매 작품에서 자기가 발견한 뉘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새로운 성격을 들고나와야 한다.》

소설은 성격을 그리는 문학이다. 극적인 구성, 문학적이야기의 깊이, 묘사의 생동성 등 창작실천상에서 나서는 문제들은 결국 작가가 어떤 성격을 새롭게 발견하고 형상구조를 새롭게 전개했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단편소설 《인연》(김철순 작 《조선문학》 2013년 12호)은 제염연구사들의 투쟁과 생활을 그리면서 성격의 새로운 발견에 기초하여 형상을 전개한것으로 하여 이채로운 작품이다.

작품은 한 제염연구사처녀의 성격발전과정을 아담하게 그리고 있다.

소금생산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지하초염수를 개발할 목표를 내세우고 고심하는 연구사 혜성의 가슴속에는 제염분야만이 아닌 과학계의 혜성이 될 야심이 고개친다.

그러나 연구소일군들과 동무들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시작한 그의 현장연구는 거듭 실패한다.

초조한 심정속에 날이 감에 따라 점점 어두워지는 지하초염수의 연구전망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는 자기와 어린시절 함께 자란 청년, 자기가 너무나 평범한 리상을 지녔다고 외면하였던 작업반 기술원청년이 자기가 흔적에 불과한것이라고 무시했던 대상들에서 지하초염수의 광대한 원천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접하게 된다.

자기의 연구를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아온 그 청년이 자체로 만든 평범한 탐측기재들로 전면부정한것이다.

엄연한 사실앞에서 처녀의 번민은 깊어진다.

파연 그 청년과 자기의 아득한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된것인가.

혜성은 윤호가 학술적으로 새롭고 경제적인의의가 큰 자기의 연구성과를 통채로 넘겨주기로 결심하면서 우리 제염소마을에서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말했다는 사실을 걱정속에 전해듣는다. 그 걱정속에 혜성은 언제인가 윤호가 들려주던 군사복무시절의 이야기를 새롭게 되새기며 마침내 자기와 윤호와의 아득한 차이를 낳게 한 근본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심장으로 절감한다.

《꿈과 리상은 하늘에 없어두 사랑만은, 애국의 마음만은 자기 땅에 든든히 뿌리박고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두 너의 오빠에게 천성처럼 몸에 배인 그 사랑이, 이 땅과의 인연이 나에겐 그리두 힘들고 낯선 초면의것으로 되었던걸 이제 알것 같애.》

결국 그는 제염공학계를 놀래우는 새로운 창조가 이 땅에 대한 사랑, 이 땅과 맺은 인연을 뿌리로 하여 맺은 열매라는 사실을 자기의 심장으로 깨닫는것이다.

그러면 파연 평범한 제염기술자인 윤호는 이 땅과 어떤 인연을 맺었기에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는가.

작품에서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윤호가 혜성을 만나는 계기에서 그의 성격적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공부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혜성의 권고에 윤호는 자기는 아버지가 하던 루수연구를 하루 빨리 완성하고 새 제염법도 연구하겠다고 말한다. 자기의 군사복무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는 고향이야기를 즐겨하는 전우들앞에서 자기는 소금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한창 최성기에 백옥같은 하얀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광경이랑 세계적인 제염공업발전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금을 낼수 있을가 하는 생각을 하군 하였소.

집에 있을 때보다 고향을 멀리 떠나서 소금과 더 깊은 인연을 맺었다고 할수도 있지.》

고향을 떠나서 소금과, 고향과 더 깊은 인연을 맺은 청년. 이것이 바로 제염공학계를 놀래울 과학적발견을 한 청년의 성격적기초이다.

고향에 그냥 살면서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고향과 맺은 진정한 인연, 그것은 벌써 범상치 않은 인연으로 의미심장하게 새겨진다.

하다면 고향을 떠나 소금과 더 깊은 인연을 맺게

한것은 과연 어떤 나날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귀중한 청춘시절을 바친 군사복무시절이었다. 언땅에 배를 대고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이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의 삶속에서 고향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더 심장에 뜨겁게 새긴 청년인것이다.

작품에서 윤호의 군사복무시절에 대한 직접적인 형상은 거의나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자기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마자랑을 하던 전우에 대한 애뜻한 회상이 있을뿐이다.

병사시절의 눈보라치는 행군길이며, 산벼랑을 뚫으며 힘겨웠던 훈련의 나날들에 대하여 그리지 않았지만 조국의 소중함을 심장에 새기던 병사시절 고향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윤호의 진정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젖어들면서 의미심장한 진리를 말없이 새겨준다.

조국을 위하여, 고향을 위하여 바친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고향과 인연을 맺을수 없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는 헌신으로만 이 땅과 사랑의 인연을 맺을수 있다는 작가의 주장은 우리의 대지는 자기와 인연이 없는 인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인간에게 자기의 보물을 드러내보이지 않는다는 새로운 진실에로 확대된다.

한마디로 윤호의 군사복무시절에 대한 추억은 그의 성격적기초를 해명해주면서 작품의 인간학적깊이를 보장하고 인물의 성격론리를 살리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

뿌리가 깊으면 그 뿌리가 안아올린 열매는 분명 참답고 훌륭한 열매인것이다. 전제가 없는 성격, 기초가 없이 작가의 주관에 불과한 성격은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주인공의 성격적기초가 진실하면 그 성격의 발현과정도 진실하게 안겨오는 법이다. 전문제염연구사도 아닌 평범한 기술자가 우리 나라의 제염공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발견을 했다는 사실은 제염공학과 그 연구과정에 대한 작가적설명으로서는 납득시키기 어려운 생산기술적문제이다. 그러나 그가 바로 가장 어려운 헌신의 시절에 자기의 고향과 더 뜨거운 인연을 맺은 인물이라는 인간적공감은 그 어떤 과학기술적주장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에 젖어드는것이다.

실사 과학적문제에 대한 파악은 독자들에게 생소한것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있는 인간들의 성격이 진실하다면 그러한 성격은 독자들을 매혹시키면서 그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성격에 대한 작가의 발견은 그의 성격적기초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지향과 투쟁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전진의 자욱을 수놓고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눈부신 창조와 변혁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찬란한 현실을 심장으로 절감하며 세계가 우러러볼수 있는 자랑스런 창조를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삶과 투쟁의 목표로 되고있다.

자기의 땅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심장에서 태어난 열매는 세계를 눈부시게 한다는 애국의 진리는 우리 과학자들의 새로운 도전과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고있으며 새롭고도 아름다운 창조를 낳는 기적의 원천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지난날의 진부한 도식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설문학이 과학중시의 시대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수 없다.

새로운 시대에 참신하고 발견이 있는 성격을, 이것은 우리 소설가들의 절박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주관적욕망으로만 이룰수 있는것이 아니다.

성격적기초의 참신한 발견으로부터 그 성격발현과정을 다양한 생활의 흐름속에서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려낸 작품이야말로 시대의 명작으로 빛날수 있는것이다.

이 작품에서 활용한 대비구성수법은 주인공의 성격적기초를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상대인물의 성격발전을 비약적으로 보여주는데 효과적이었다.

남다른 야심과 포부를 지닌 혜성의 시점으로 생활을 보여주면서 그의 내면세계의 파동속에서 부각되는 생활의 계기들마다에서 윤호의 생활을 라렬하지 않으면서도 비약과 함축속에 성격을 인상깊게 강조한것은 훌륭한 시도라고 본다.

물론 아쉬운감도 없지 않다. 윤호를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상대역인 혜성의 성격이 너무 일면적이고 개성이 없이 그려진것으로 하여 작품의 인간학적품위가 웅당한 수준에서 보장되지 못한것이다. 대학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윤호를 오해하고 그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재미없는 성격, 실무적인 성격이다보니 그의 형상적역할이 별로 뜨겁게 안겨오지 않는다.

제염연구사이지만 어디까지나 처녀인것이다. 처녀로서의 독특한 개성과 미를 가진 성격으로 그려주었다면 그가 조성하는 생활적계기들이 더 재미있고 그의 성격발전을 이끄는 윤호의 성격은 더욱 매혹적이었을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격의 발견은 여러가지로 이루어질수 있다. 지향에 대한 발견, 그 발현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문학적이야기의 새로운 발견, 새롭고도 독특한 성격이 비껴있는 문학적세부의 발견 등 여러가지를 말할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역시 인물의 성격적기초, 성격적전체를 어떻게 새롭고도 진실하게 설

세월은 흘러만 가는가

김 정 삼

시작은 어데고
끝은 어데나
가도가도 끝없는
푸르러가는 세포등판의 대지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있다

목메인 추억 그 추억들이 없다면
그러히도 한가슴에 소중히 안아보라
자옥자옥 백옥같은 진정을 묻었기에
안아볼수록 더더욱 귀중한 땅이어

이제는 흘러가버렸는가
야전천막에 배낭을 벗어놓고
눈덮인 등판으로 오르내리던
개척의 시련에 찬 나날들은
암반같은 언 땅을 한조각한조각
정날로 뜯어내던 그 엄혹한 겨울은

이제는 정녕 흘러가버렸는가
무릎까지 빠지는 수렁창에서
속새풀뿌리와 잡관목의 뿌리를 들춰내던
그 지겨웁던 장마철의 낮과 밤들은

식사시간마저 아까워
선채로 언 밥을 씹으며
함마자루만은 놓지 않던 돌격대원들
김발피는 얼굴마다에 흘러내리던 더운 땀이
땅속깊이 숨배여있는 땅

봄바람에 살랑이는 풀잎들이 아니더냐
흙마대를 메고 하루 백리를 달린 꽃나이처녀들
쓰러지면 입속으로 그리움의 노래 부르며
어깨에 다시 흙짐을 메고 일어서던
그 후더운 숨결을 안은 잎새들이

사나운 눈보라를 태우던 우등불결에서

휘황할 태일을 두고 나누던 그 속삭임
이제는 고향의 공원길보다
산관길에 더 정이 들었다는
단발머리처녀의 즉흥시의 구절구절은
너의 대지 한끝까지 물결쳐가지 않았더냐

앉아지고 부러진 정대들과 곡괭이들을
박물관 유리함속에 보관하여
우리는 그 나날들을 멈춰세우려 하지 않는다
방목공들이 살 새 거리 새 집에
첫 불을 지피던 그 진정 그 기쁨을
화강석비문에 아로새겨
그 나날의 위훈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허나 이 땅에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새봄을 안아오려
우리 흘린 땀과 양심과 투쟁의 발자취는
조국의 푸른 대지 세포등판이 그대로
애국의 증서 우리의 자서전되어
후손들에게 전하려니

어찌 세월의 눈비에 실려갈수 있다더냐
격전의 나날 우리 부른 신념의 노래
이 땅우에 행복의 메아리되어 울려가고
우리 새겨온 위훈의 자옥자옥에
펼쳐져 설레일 만년푸른 초원과
솟아 빛날 방목공거리의 푸른 지붕을
세월로 펼쳐었었거늘

아, 세월은 흘러만 가는가
넋이 없는 세월은 락엽에 실려 사라져도
축복받은 인민의 천만복을 꽃피우며
로동당만세소리 천지를 뒤울리는 이 땅에선
세포전역의 그 나날들은 영원히 가지 않으리라
김정은시대의 값높은 창조물들은
조국청사에 길이 솟아 빛을 뿌리리라!

~~~~~

정하는가 하는 문제인것이다.

성격론리는 성격적기초로부터 출발한 성격발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성격적기초가 진실할 때 그 성격의 발현과정의 진실성이 담보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하면서 주인공이 굉장한 과학적발견을 했다는 식의 설명자체만으로는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낼수 없다.

과학자를 그린 작품이든 어로공을 그린 작품이든

새로운 인간성격의 발견이 눈부신 작품이야말로 시대의 명작이다.

성격의 발견은 허공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성격적기초의 진실하고도 깊이있는 탐구와 설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것이며 그러한 성격이야말로 오늘의 시대를 빛내이는 참신한 성격으로 독자들의 뜨거운 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있는것이다.

우리의 작가들은 새로운 성격의 발견이 비낀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시묵음

## 통일을 부르는 목소리

### 판문점에서

동 기 춘

오, 판문점  
분계선이 지나간 땅  
이 나라 둘로 갈라진 이곳에  
겨레여 놀랍게도  
《자유의 집》이 있다

저 《집》에서 뻗어나온것은  
이 땅의 허리를 묶은 철조망뿐  
그 철조망틈새에 길을 틔워놓고  
양키병정이 지금 그 《자유》를 지키고있다

《자유》의 가시쇠줄은  
민족의 가슴에 건너지  
기나긴 세월

생리별에 희여진 백발들을 낳았고  
눈 못 감은 원혼들을 땅에 묻었다

저 선을 넘었다고  
수갑채워 감옥에 끌려갔고  
저것이 가로막아  
통일의 대행진도 멈춰섰다

비극의 이 분계선을 안고  
몸부림치는 판문점, 판문점에서  
피땀은 절규를 듣노라  
조선아, 우리의 자유는  
저 《자유의 집》을 없애는데 있어라

### 겨레의 절규

김 영 일

삼천리 우리 강토 허리 가른  
외세가 박아놓은 가시철조망  
그로 하여 근 70년세월  
어머니대지가 분렬로 몸부림친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소나  
그 품에 태를 묻고  
그 뱃으로 사는 우리 겨레  
어머니대지의 그 고통을

7천만 우리 겨레 하나가 될 때  
우리의 피는 더 뜨겁게 끓고

그 피는 철조망을 녹이리  
분렬장벽도 단숨에 무너뜨리리

이대로 더는 살수 없다  
삼천리에 메아리치는 절규는  
외세는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높이 들자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겨레 마음 하나로 합치자  
하나로 뭉친 우리의 힘으로  
분렬의 원쑤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자 우리 민족끼리!

### 통일의 길

김 형 준

내 사는 통일거리 아침  
손녀손목 잡고 산보나섰는데  
신호기를 든 건설자처녀  
나에게 말을 하네  
— 할아버지 저기로 돌아가세요  
길을 내느라 굴착작업중입니다

건설자처녀 신호기 들어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네

그래 새 길을 낸단 말이지  
아예 굴착기무쇠삽날로  
분계선장벽까지 말짱 들어내고  
여기서 부산까지 큰길을 내세!

오늘날 하늘에도 길을 내어  
인적없는 달에도 다녀오건만  
왜라서 한겨레 우리가 살아서  
달나라도 아닌 제땅도 오가지 못한단 말인가

길을 내야지 넓게  
통일을 위한 길에

생때같은 귀한 목숨  
헌헌히 바친 열사들도 함께 길을 길

육신을 바쳐서라도 내야 할 길  
7천만이 앞선이 뒤선이 없이 나란히  
원수님 모시고 통일광장에 들어설 길  
통일거리에서 부산까지 곧바로 넓게!

## 래년이면

박 철

래년이면  
래년이면  
생각만 해도 가슴 저리누나  
선뜩 등골로 식은 땀 흐르누나  
이 땅의 분렬 70년

그것은 고고성을 터친 아기가  
70살 백발을 떠인다는 세월  
조상의 땅이 둘로 갈라져  
그 긴 세월을 눈앞에 둔 이 비극  
너와 나는 그 비극의 수난자

이제 세상앞에  
우리 무슨 낫을 들고 맞으랴  
하나의 민족 그 더운 피줄을 지니고

국토분렬 70년을

막아서야 한다  
끝장내야 한다  
여기서 오늘에 결단코  
사람의 나이야 막을수 없지만  
분렬의 나이야 왜 끝장 못내랴  
7천만이 시퍼렇게 살아서

오, 북남관계개선의 활로  
뜻 합쳐 힘 합쳐  
너 열고 나 열어  
통일의 아침해 안아올리자  
어서 내 나라 3천리강토에  
기쁨에 겨운 통일의 나이 안겨주자!

## 통일이란

서 일 순

아니다 통일이란  
북이나 남이나 하는 선택이 아니다  
아니다 통일이란  
반공이나 런공이나 하는 문제도 아니다

통일이란 우리 민족의 소원  
우리 나라 강토가 하나되는것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가장 귀중한 념원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야 할 지상의 목표

통일이여 너를 위함이라면  
우리 아끼는 생명이란 없건만

통일이여 너를 이루기 위하여  
바친 목숨은 그 얼마  
허나 우리에게  
통일이 목숨보다 더 귀중하여서

민족의 념원 통일을 위해  
서슴없이 목숨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 민족의 전부인  
아, 통일이여 조국통일이여

## 황해금강 장수산

한 옥 란

### 옛성터에서

푸른 이끼 헤쳐보면  
선조들의 옛자취 뜨거워  
하여 내 삼가하노라  
그 자취 세월의 비바람에 식을가봐

성돌을 안아보면 들려온다  
끝안에 울리던 말발굽소리  
옥계수에 몸 잠근 저 돌은  
창검을 갈던 숫돌이 아니냐

상기도 이끼 못 덮은 저 가마터에  
서리서리 감도는 새벽안개는  
외적치고 돌아올 남정네들 위해  
녀인들 밟짓던 밭가마의 흰김이런듯

이끼덮인 성돌아래  
숫돌바위는 나를 찾누나  
내 몸에 총창을 썩썩 갈아메고  
조국보위성전에 앞장서라고

### 쇠부리터앞에서

성밖엔 탐승객들의  
홍겨운 노래소리 울리는데  
이 가슴엔 펄펄 불길 솟누나  
장수산 쇠부리터 화독의 불길

천놈의적 달려들면  
천자루 장검 버리고  
백놈원쭈 한칼에 베일  
장수장검 버리던 쇠부리터

탐승객들 홍겨운 노래가락에  
쿵쿵 울려오는 메질소리

탐승객들 홍겨운 춤가락에  
보여오는 야장군의 억센 기상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펄펄 솟는 쇠부리터의 불길  
원쭈놈들 이 땅에 남아있는 한  
그 불길 꺼짐없을 쇠부리터 화독

황철의 용해공들 안고가는  
펄펄 솟는 쇠부리터 화독의 불길  
병사들 복수의 장검 버려안고가는  
장수산 쇠부리터의 불길이어

### 계곡미의 《녀왕》

세상엔  
이름높은 계곡도 있더라  
향기풍겨  
장미계곡이라 제모습 자랑하고

세상엔  
이름떨친 계곡도 있더라  
폭포내려  
폭포계곡이라 그 이름 자랑하고

하지만  
장미계곡 폭포계곡도 한철이건만

있다오 여기  
사계절 아름다운 계곡의 절경

여름엔 장군님 찾아주신  
사랑의 자옥우에 행복의 꽃이 피고  
장수산은 설경이 제일이라고  
장군님 온 세상에 내세워주신 산천이거니

옛날엔  
경치좋아 계곡미의 《녀왕》장수산  
오늘은  
선군세월 하좋아 세상으뜸 황해금강

## 장 수 칼

지지는듯 6월의 불별에  
바위들 불돌마냥 달아도  
서리발 날리는 세자루의 장검  
명소의 소나무에 걸려있구나

내 나라 삼키려 달려든 외적무리  
삼대배듯 모조리 쳐없애고  
노한 칼 소나무에 걸어놓고  
바위로 굳어진 세 장수

절경에만 취하라  
열두굽이 내리는 사람들 가슴속에  
칼 한자루씩 안고갔어도  
그냥 남아있는 장검 세자루

내 장검 드세게 거머쥐노라  
이 땅에 원썬들 덤벼든다면  
저 노한 장검으로 다 쳐없애고  
내 세 장수바위결으로 가리  
장수산아 그 한자리 나에게 내어다오!

## 붓 대 봉

명산은 명산이로다  
이 세상 그 어느 명산에도 없는  
장수산의 붓대봉  
비껴들면 먹물이 푹푹 떨어질듯

옛세월 명필가 추사 김정희  
명산의 현판쓰러 왔다가  
명산의 절경에 넋을 앗겨  
바위를 붓통삼아 꽂아놓고간듯

옛세월 문장가 송강 정철이  
시 한수 남기려 붓을 들고왔다가

열두굽이 절승에 취하여  
그만 바위우에 두고간듯  
  
내 오늘 용약 그 붓을 들어  
장군님은정 원수님사랑 시로 지어  
후세에 남기려 했던만  
나 역시 옛 시인 되고말았네

아, 이 몸 저 붓대봉에  
작은 붓이 되어 굳어지라지  
명산을 노래하는 한자의 글이 되여도  
여한이 없을 나

## 큰절 드리네

아득한 세월부터  
열두굽이 자랑하던 장수산 탐승길  
자옥자옥 절승절경이어서  
20리길은 노래의 20리길이었던만

오늘은 열두굽이 즐거운 탐승길  
굽이굽이 140리길로 열렸으니  
천년세월 어제런듯 다 돌아보고  
백년세월 하루런듯 즐거운 탐승길

우리 장군님 험한 길 걷고걸으시여  
자옥자옥 명승길 열여주시고  
잠들었던 명소도 찾아 빛내주신  
장수산은 천하 으뜸 명산중 명산

아, 그 은덕 생각할수록  
고마움에 목메이고 눈물겨워  
끝없이 찾아오는 등산객들 따라 명산도  
장군님 우리러 큰절 드리네

## 상 식

비거란 《날아가는 수뢰》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타고 비행할수 있는 활공기인데 임진조국전쟁 초기에 창안리용된 특출한 발명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임진조국전쟁 초기에 왜적이 경상남도의 진주성을 포위하였을 때 비거에 사람이 타고 30리를 날아 외부와의 연락을 보장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이른 시기인 13세기와 14세기에도 사람을 태운 큰 연을 리용한 사실이 전해지고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비거는 가족으로 된 큰 연에

날개를 붙이고 그안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여 사람이 움직이도록 한것인데 여기에 련결된 바줄을 움직이면 바람을 내면서 공중에 떠 날아가게 되어있었다.

## 비 거

비거는 세계적으로 볼 때 사람이 타고 비행한 최초의 군용활공기로 된다.

도이쉴란트와 중국에서 《나는 수단》에 대한 착상이 제기되었으나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도이쉴란드에서 이러한 착상이 제기된것은 1845-1855년이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비거는 그보다 250년이상이나 앞서서 실용화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전시

## 세상을 걱정하여 외 1편

류린석(1842-1915)

김상훈 역

우리 조선 사랑하니  
왜놈은 원썬로다  
왜놈의 머리 왜놈의 입  
왜놈의 온몸을 미워하노라

몸 머리 입만 미워하랴  
그놈들의 정치를 더 미워하노니  
어떤것은 가볍고 어떤것은 무거우랴  
그모두가 원썬로다

## 의병들에게

마음과 힘 다하는것  
오직 우리 도리일세  
병기가 좋고 나쁨  
그다음에 론할거지

례의로 전통이은  
이름높은 우리 조선  
속임수만 일삼는  
저따위 섬오랑캐

애국정성 지극한가  
다만 못내 근심되고  
형세의 강약으로  
어렵다 하지 마오

홍망과 성쇠를  
하늘만 기다리랴  
인간이 제 할일을  
힘써 해야 하느니

## 날 개

유리 위로노브(이전 쏘련)

박명순 역

날개 있다면!  
새처럼 억센 날개가  
그러면 훨훨 날아올라  
큰 땅으로 가련만(봉쇄환박을 의미함)  
포탄이 웅웅거리지 않고  
폭음에 집이 흔들리지 않는 곳  
레닌그라드를 잊고  
밤마다 불안없이 살수 있는 곳으로

날개가 있다면!  
바람과 눈보라를 뚫고  
겨울을 피해 갈수도 있으련만  
저 멀리 뜨거운 남방  
달빛밝은 저녁 하늘가에서  
위험이 노리지 않는 곳으로  
따끈한 빵덩이로

새날을 맞는 곳으로

날개가 있다면!  
하나 막상 그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말했으리 《안될 말!》  
그리고는 그 말대로 하였으리  
날아가지 않았으리

새들은 구름속으로 날아도  
우리는 제손으로 날개를 뽑아  
모닥불에 던졌으리  
그 불길을 적들이 볼수 있도록

아, 만일 날개가 있다면!...



## 아편전쟁시기 중국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 시가문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때 청국은 자기 나라에 아편을 밀수하는 영국과 두차례에 걸치는 아편전쟁까지 하였다. ...

림측서를 비롯한 청나라의 선각자들은 인민들과 함께 아편밀수를 반대하여 영국침략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19세기 중엽 영국과 중국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아편전쟁은 제국주의에로의 이행시기 유럽 자본주의열강들이 벌린 식민지략탈전쟁의 대표적인 전쟁의 하나로 력사에 기록되어있다. 중국의 넓은 땅과 시장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영국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중국의 광범한 근로인민대중과 애국적인 선각자들은 결사항전에 용약 일떠섰다. 그들은 누가 조직하거나 시키지는 않았으나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일념으로 이르는 곳마다에서 원수들을 반대하여 용감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지향을 반영하여 이 시기 중국에서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시가작품들이 수없이 창작되게 되었으며 그것은 이 시기 문학의 기본흐름을 이루게 되었다.

아편전쟁시기 중국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 시가문학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한목숨 아낌없이 바쳐 싸운 애국적장수들의 업적을 찬양한 작품들이다.

당시 중국인민의 반침략투쟁을 반영한 시가작품들가운데서 《3장군가》, 《진충민공사사시(충신민장군의 업적을 칭송하여)》, 《로병의 탄식》과 같은 작품들이 가장 널리 알려져있다. 송시형식으로 된 이 작품들에서는 목숨바쳐 나라에 보답하고 대의를 펼친 민족의 영웅들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시 《진충민공사사시》에서 시인은 《천성만성적이 달려들어/화광은 바다물을 붉게 물들이고 군사마저 흩어지는 속에서도 《내가 가면 성은 누가 지키고/성을 버리면 무슨 낮으로 살겠는가》고 하면서 끝까지 싸운 충신 민장군의 영웅적모습을 그려보이면서 죽어서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부끄러워한 그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찬양하였다.

특히 장시 《로병의 탄식》에서 시인은 성들이련이어 침략자들의 발길에 짓밟히는 속에서도 도망

만을 일삼는 투항주의적인 봉건관료배들과의 대조속에 성문을 지켜 끝까지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애국적장수의 업적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였다. 시에서는 한마디 호령으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면서 악전고투하다가 원수의 화살에 가슴을 찔리고 칼마져 부러진 림씨가 죽으면서도 끊임없이 적들에게 욕질을 해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 장주의 호남아여, 그대 이름 국사에 전하리》라고 칭송하였으며 변방의 장수들모두가 그와 같다면 《그들과 함께 동생동사하리》라고 시인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창작가들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형상의 중심에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투쟁모습을 내세우지 못하고 봉건관료 출신들을 내세우고 찬양한 제약성은 있으나 그들의 형상을 통하여 중국인민의 강렬한 애국정신과 견결한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편전쟁시기 중국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 시가문학에서 웅당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고 높이 찬양한 작품들이다.

시인 주기는 장시 《감사》에서 아편전쟁과정에 대하여 펼쳐보이면서 중국인민들의 견결한 반침략투쟁의지와 삼원리전투를 칭송하여 《충의는 바로 백성속에 있네》라고 노래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논 역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연서루시집》의 저자인 서시동도 시 《림고대》, 《귀두요(귀신의 머리에 대한 노래)》, 《결아곡(결인에 대한 노래)》 등에서 병과에서 영국침략군을 격퇴한 공로가 모두 평범한 백성들에게 있다고 노래하면서 영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논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편전쟁시기 중국인민의 거족적인 반침략애국투쟁을 폭넓게 반영한 시가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민항전의 찬가》로 알려진 장유병의 서사시 《삼원리》이다. 작품에서는 삼원리 주변의 100여개 마을에서 약 수만명의 남녀로소가 펼쳐 일어나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긴 삼원리 전투과정을 생동하게 펼쳐보이였다.

삼원리에 우뢰같은 북소리 울리니  
천만사람 한결같이 모여들었네  
분노에 떠는 가슴들에 용맹 넘치고  
사람들 힘을 합쳐 원수놈들 몰아내네

우리의 집과 논밭을 보위하자  
북소리 울리기도 전에 용기부터 솟구치네  
부녀들도 마음합치니 대장부같고  
보습과 호미도 손에 드니 병쟁길세

서사시에서 작가가 힘을 넣어 보여주려고 한 것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일떠선 중국인민들의 결사의 의지와 그 무궁무진한 힘이다. 서사시는 앞부분에서 영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일떠선 중국인민들의 거세찬 모습을 《천만사람 한결같이 모여들었네》, 《분노에 떠는 가슴들에 용맹 넘치고》, 《우리의 집과 논밭을 보위하자》, 《북소리 울리기도 전에 용기부터 솟구치네》, 《부녀들도 마음합치니 대장부같고》와 같은 격동적이고 함

축된 표현들로 생동하게 펼쳐보여주면서 부녀자들까지도 손에 쟁기를 들고 싸움에 나서게 된 결정적 요인은 바로 침략자들로부터 자기들의 집과 마을을 사수하려는 중국인민들의 애국주의적사상감정이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시에서는 이러한 결사의 항전의지를 지닌 인민들의 무서운 기세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침략자들의 당황망조한 물골과 무주고혼이 되고야말 놈들의 운명을 통쾌하게 조소하면서 거족적인 항전에 일떠선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아편전쟁시기 중국인민의 반침략애국투쟁을 반영한 시가문학은 외래침략자들에게 굴복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을 때려부실데 대한 전투적인 사상을 제기하지 못한 제한성은 있으나 외래침략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인민의 의지와 투쟁모습을 폭넓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근대중국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리 한 철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6호 (루게 제800호)

**편 집 위 원 회**

|     |                      |
|-----|----------------------|
| 낸 곳 | 문 학 예 술 출 판 사        |
| 인쇄소 |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 인 쇄 | 주 체 103(2014)년 6월 1일 |
| 발 행 | 주 체 103(2014)년 6월 5일 |

ㄱ-46367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